

PRSR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美 京 大 同 窓 會 報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 981-1464, Fax. (847) 981-1465
e-mail : snuausa@snuua.org
website : http://www.snuu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총무 : 李龍洛
편집인 : 김정수

월간 93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 A

2001년 11월 28일

母校를 高揚하는 재미 총동창회

워싱턴지역 동창회 모교와 총동창회 지원

모교는 재미 동문들을 위한 기념현판 설치 계획

조수미 공연 CD 한정판 제작, 재미 총동창회에 500개 기부

母校는 재미 동문들의 모교를 향한 반포지성(反哺之誠)을 기리는 기념현판을 학교 구내에 설치하고 모교를 방문하는 재미동문들을 위한 특별 안내 계획을 마련중이다.

이 계획은 최근 모교와 총동창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吳仁錫 재미 총동창회 명예회장 겸 母校와 後

자문위원단(BLUE RIBBON PANEL)의 세미나(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의 경영대학 국제회의실에서 열림)에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 이기준 총장의 초청으로 관악 캠퍼스 내 호암 교수회관에서 자문위원단 및 동창회 간부들과 있는 만찬에 참석하였다.

회의 및 운영회의를 참관하고 총동창회 담당자들과 재미동창회보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서울의 총동창회 편집위원들은 재미 동창회보 90호 및 91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독자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는 재미 동창회보의 내용이 지나치게 "學術雜誌의 느낌을 준다"

는 것과, 둘째는 회보에 실린 사진들은 개별 명암 관 인물 사진 보다는 보다 동적이고 자연스러운 사진 (live motion picture)이던 독자들에게 더욱 친근감을 줄 것이라고 조언을 하였다.



모교 중앙도서관의 핵심 소장본인 민족문화의 보고인 규장각. 한운성<미대 70년 졸>동문 원작. <그림제공=대학신문 기자 서지현 동문>

이 자리에서 오인석 재미 총동창회 명예회장은 재임 4년 동안 재미 총동창회와 회보의 발전에 후원과 조언을 주신 모교와 총동창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또 이 자리에서는 모교의 발전과 동창회의 역할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외국에서 온 교육행정가들은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선진 고등교육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에는 모교를 졸업한 동창생들의 후원과 기여가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조언하였다.

이러 10월 11일 목요일 정오에 서울의 언론회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보의 월례 편집

이 자리에서 오인석 재미 총동창회 명예회장은 재임 4년 동안 재미 총동창회와 회보의 발전에 후원과 조언을 주신 모교와 총동창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또 이 자리에서는 모교의 발전과 동창회의 역할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외국에서 온 교육행정가들은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선진 고등교육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에는 모교를 졸업한 동창생들의 후원과 기여가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조언하였다.

이러 10월 11일 목요일 정오에 서울의 언론회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보의 월례 편집

는 것과, 둘째는 회보에 실린 사진들은 개별 명암 관 인물 사진 보다는 보다 동적이고 자연스러운 사진 (live motion picture)이던 독자들에게 더욱 친근감을 줄 것이라고 조언을 하였다.

또 10월 19일에는 대학신문사를 총동창회 이세진 사무총장과 함께 방문하여 주간인 배영수교수(인문대 76년 졸, 서양사학과 교수), 박수찬학생 편집장과 최근 미국의 우수 4개 대학을 방문한 학생기자 3명(서지현, 석현혜, 심재용)과 간담회를 갖고 만찬을 함께 하였다. 이 자리에서 배영수 주간은 이번이 미국 취재 여행을 가능하게 해준 전미주 동문들과 재미 동창회에 감사를 표하였다. 또, 爽 주간은 내년에는 대학신문사가 대학생활 특집 시리즈의 연장으로 서양 대학발상의 근원지인 유럽지역 대학의 취재를 검토중이라고 하였다.

<2면에 계속>

지난 8월 25일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동문을 초청하여 성공적인 음악회를 George Mason University 내의 Center for the Arts Concert Hall에서 개최한 워싱턴 DC지역 동창회는 당일 실황 녹음하여 제작된 한정판 CD 500개를 총동창회에 보내왔다.

이 CD는 "Love from Washington"이란 제목으로 조수미가 열창한 19곡의 서양과 한국 가곡 중에서 선별된 다양한 곡목의 아름다운 노래가 담겨 있고(자세한 내용은 15면 워싱턴지역 소식

및 아래 광고 참조) 음질도 우수하다. 이 CD는 연말 연시를 맞아 선물하기 좋으며 음악애호가들에게는 제한 제작된 CD라 수집품이 될 것이다. 재미 총동창회는 이를 同門 및 일반에게 선착순으로 판매하며(아래 광고 참조) 가격은 1개당 \$ 15이며 우송료는 1개당 \$ 3이고 2개 이상 주문 시에는 한 개당 \$1씩 우편 주문시 우송료가 추가된다.

그 판매대금은 관악후원회비(200개 분)와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300개 분)으로 사용된다.



조수미 초청음악회 실황 녹음 CD 판매 "Love from Washington"

소프라노 조수미(Sumi Jo) Washington, DC Concert (2001년 8월 25일)에서 실황 녹음하여 제작된 CD를 500개 한정판으로 우편 판매한다. 이 판매 대금은 관악후원회와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으로 사용된다.

가 격 : CD 1개당 \$15(송료는 첫 한 개에 \$3 배수 구입 시 개당 \$1 추가)
구매수량(1인당) : 제한 없으나 500개의 제한된 수량이므로 선착순 주문 판매함(30면 상단에 주문서를 기입하여 가격과 우송료를 포함한 수표를 아래로 보내시기 바람).

주문처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
SNUAA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unausa@anuaa.org
* 수표는 Payble to SNUAAUSA로 작성 바람.

목 차

-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 제 2부 : 문필과 논고 - 4면
-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15면

<1면에서 계속>

10월 21일에는 총동창회가 주최한 동문들의 Home Coming 겸 관악산 등반대회에 참가하기에 앞서 아침 8시 반부터 2시간 반동안 뚝딱금 위원장은 모교 학생처장인 김기석 교수(사대 72년 졸)를 방문하여 대한 모교와 재미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처장은 이 자리에서 모교는 재미 동창회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보내준 재미 동문들과 재미총동창회의 모교에 대한 반포지성(反哺之誠)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재미 동창회 업무를 권장하던 부서가 국제협력처로부터 본부 학생처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또한 김처장은 모교를 돕기 위한 백만불 기금에 기여하는 재미동문

들의 정성을 기리기 위하여, 모교 구내에 재미 총동창회의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백만불 기금회를 위한 현판(懸板)을 설치할 계획을 밝히고 모교를 방문하는 재미동문들을 환영하고 안내하기 위한 특별 안내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하였다.

김회장은 11월 중순에 Harvard 대학에서 있을 학술 세미나에 참석 예정인데 이 기간 중에 선진 유

수 대학의 동창회의 발전에 관한 여러 제도와 사례들을 중점 연구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뚝딱금회장은 이어 열린 등반대회에 참석한 3000여명의 동문들과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인석동문은 인사말을 통하여 재미 동창회의 근황에 대하여 본국 동문들에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Home Coming 등반대회에 참가한 오인석 기금위원장.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母校를 高揚하는 재미 서울大學校 총동창회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오늘은 재미총동창회가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작한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의 중간 보고를 드리고, 이 基金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 基金은 이름대로 우리 모교인 서울 大學校의 영구하고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을 지원하고, 母校에 재학중이거나 졸업을 한 후 진의 창의적인 研究活動을 돕기 위한 재미동창회의 基金입니다. 재미 동창회가 창립 10년을 들어서는 2000년 6월에 개최된 전국 평의원회의는, 7천여 동창여러분들이 19개 지부와 Canada의 4개 지역 동창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동창회보를 통하여 이들 조직은 물론 전세계에 있는 同門들과 횡적으로 연결되는 동창회로 성장하였으니,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간 적극적인 사업을 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놓고 검토한 결과 역시 동창회의 제일 큰 사명은 母校와 後進을 위하여 무엇이든 보람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의 과제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모았습니다. 우리의 재미 선후배 동문들은 일찍 '50년대 6.25사변을 계기로 유학을 오시기 시작하여 미국에서 생활기반을 마련하시고 이제는 은퇴의 나이에 들어서신 형편입니다. 미국에서 배우고 특히 체험하신 산지식 이야말로 그대로 써히기에는 아까운 지혜로 국제화시대에 발돋움 하려는 後進에게 傳授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수들이 母校를 위하여 더 좋은 연구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미국 대학교에서 훌륭한 연구를 하는데 적으나마 일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모교의 주간지인 大學新聞은 각 국의 명문대학과 대학생의 생활상을 취재하기 위하여 일본의 동경대학, 중국의 북경대학과 월남대학을 母校 後輩 학생들로 구성된 취재팀의 방문 결과를 보도하여 직접 이들 대학에 방문하지 못한 2만 여명 학생들과 실제로 보고 느낀 체험담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금년 미국방문 차례에는 大學新聞의 자체 광고 수입 감소 등으로 취재여행이 힘들게 되었는데, 이런 사정을 지난 6월 Chicago에서 열린 평의원회의에서 모교 측 방문단 일원인 대학 신문 주간 배영수 교수를 통해 알게 되었고, 재미 총동창회가 백만불 基金을 통하여 왕복 항공 여비 \$3,600을 지원함으로써 Boston의 Harvard와 MIT, Bay area의 Berkley와 Stanford를 3명의 후배 재학생 기자가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보 89호, 91호 및 92호 관련기사 참조).

현재 등록 동문만도 7천 여명, 만 여명 이상이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미국 방문 취재가 \$3,600의 항공요금 때문에 성사가 안되고 중국, 일본, 월남대학만 기사화 되었다고 상상하면 재미동문들로서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단 \$3,600로 미국 유수대학을 취재 할 수 있었듯이, 은퇴하신 先輩님들의 성의를 모아 母校에서 보다 나은 연구와 강의를 하기 위한 海外研修에 필요한 왕복 여비를 부담해 드린다면, 교환교수로 同門이 이곳으로 옮기는데 여행비등의 도움을 드리는 것은 모두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백만불 基金 募金 첫해에 108명의 동문들로부터 납입된 금액이 \$481,843.33이며 또, 11명의 同門들이 \$261,000(\$26,000 납입)을 약정하였습니다. 이중 10명은 방은호, 윤정옥, 김영덕(공대 53입), 이병준, 김병수, 최수용(상대 55입), 유창남(의대 58입), 오인석, 이진구(농대 60입) 및 임낙균동문들은 anchor-donor로서 각자 1인당 2만불 이상의 납입을 約定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분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중에 \$343,000은 기증하신 동문들의 희망을 참작하여 \$330,000은 서울大學校 發展基金에, \$13,000은 간호대에 寄贈했습니다.

따라서, 이 基金에는 현재 금년 납입분을 포함하여 총 118명의 동문들이 \$489,493.33을 납입하였고, 현금 잔고는 (11월 24일 현재) \$142,893.33이며, 이밖에 백만불 基金을 자신의 생명보험금 \$100,000의 受惠人으로 지정한 徐東榮동문(사대 60년 졸)과 강경식동문(문리대 59졸)을 포함하면 약정액은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미네소타에 계신 김태환동문(의대 64졸), 워싱턴 D.C에 방은호동문과 미시간의 정태 동문을 위시하여 여러 동문이 遺贈 및 기타 계획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백만불 모금은 시간문제일 따름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현금으로 백 만 불을 적립하여 年平均 6%의 收益을 올리면 매년 6만불의 果實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위에 열거한 사실만으로도 우리 재미 동문들의 노력으로 母校와 後進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 만큼인가를 여러분이 쉽게 상상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재미 동창회 등록동문 7천명이 각자 평균 \$1,000씩을 出捐하신다면, 7백 만 불이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으로 모아집니다. 재미 서울대 동문들이 이 정도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 모두가 世界化의 시대에 외국의 先進 高等教育機關과 비교하여 손색없는 大學으로 母校를 高揚하는데 牽引車가 된다는 自負心을 우리 在美同門들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면 우리가 가까이에서 돕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도 母校를 아끼고 後輩를 사랑하는 서울대인이라는 矜持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동문여러분! 지금 당장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앞으로 수표를 적어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동문여러분! 추가 “anchor-donor”의 일원으로 참여해주시거나 獻金 또는 遺贈의 約定을 해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委員會 위원 일동

- 方恩鎬(약대 42입) 尹延玉(약대 50입) 李丙俊(상대 55입) 吳仁錫(법대 58입)
- 金秉洙(상대 55입) 任洛均(약대 64입) 李龍洛(재미 총동창회 회장, 공대 48입)



희귀한 癌과 투병중인 암 전문의사

유희길 同門을 살릴 혈액 기증자 찾습니다

월 하순 알고 지금 투병 중이다.

유동문은 공대 전자 공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미하여 텍사스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했다. 졸업 후 텍사스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지난 76년 36세란 늦은 나이로 다시 의학을 공부

민사회에서 일고 있다. 유동문은 91년부터 원호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4,000여 명의 암환자를 치료해왔고 장기 완치율을 40%로 끌어올리는 등 암치료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인 환자들을 돕기 위하여 남다른 열성을 보여왔다.

유동문은 현재 Stemcell Transplant 치료법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이는 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기증 받아 이를 증류한 치료액을 투입, 암세포 등을 제거해야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최근 19명의 환자 중 10명이 완치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마다 Blood Tissue Type이 달라 유동문에게 맞는 혈액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같은 혈액

형을 가진 사람은 1만 명 중에 1명 찾을까 말까"한 실정이며 당장 면역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내년 1,2월에는 트랜스 플랜트 치료를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한국의 가족, 친지들을 통하여 같은 혈액형을 찾는 일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한다.

近隣의 兄弟의 精을 우리 동문들이 발휘할 때가 아닌가 한다. 암 치료비, 수술비가 20만 불이나 소요된다고 하니 동문들의 성원과 도움이 절실하다.

(연락처: 이경림 동문, 전화: 212-768-9144, 212-385-5157, Fax: 212-768-4494)

<11월 5일자 한국일보 New York 판, 장래준 기자 기사 참조>

유희길 동문(공대 졸, 현재 뉴저지 이스트 오렌지 소재 Veterans Health Care System 근무)은 암전문치료로서 다른 암환자들을 돌보다가, 본인이 희귀한 신장암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지난 9

부를 시작하여 암전문의가 되었다. 그동안 어려운 암 환자들을 치료해 왔는데, 본인이 "희귀한 암에 걸려 위기에 처해 있으니, 모두 힘을 합하여 유 박사를 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뉴욕지역의 동문들과 교

전신에 미연방 노동성 여성국장 관악 후원기금 출연

전경철(공대 55입) 동문의 부인인 전신에 여사가 재미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하여 관악후원회비 \$500을 출연하였다.

전신에 여사는 일리노이 주정부 노동장관을 오랫동안 역임하였으며, 이번 Bush 행정부에서 노동성 장관실에서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중책(Women's Bureau Director, U.S. Dept. of Labor, Office of the Secretary)

을 수행하게 되어 Korean-American의 긍지를 높이고 있다.

<아래 사진은 전신에 여성국장이 (사진 좌에서 4번째)가 일레인 차오 미연방 노동장관 (사진 좌에서 첫번째)에게 부근 전경철동문 (사진 좌에서 3번째) 동문이 입회한 가운데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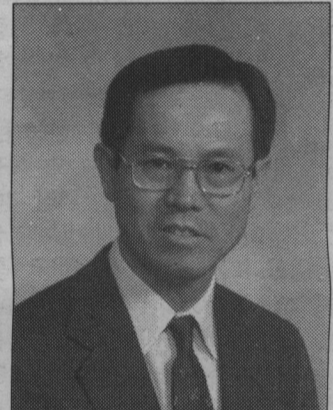
장재찬 동문 미국 내과의학회 (ACP-ASIM) Ohio Chapter Year 2001 Laureate Award 수상

장재찬 동문(의대 '65년 졸, 현 Wright State University 의대 교수)은 미국내과의학회(Th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American Society of Internal Medicine)의 Ohio Chapter가 시상하는 올해의 ACP-ASIM의 Laureate Award를 수상하였다.

이 상은 1989년이래 의료, 의학 교육, 의학연구 및 지역사회나 미국 내과학회에 대한 봉사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장동문은 Rochester 대학에서 Hematology와 Oncology로 Post Graduate Training을 수료하고 1972년에 Dayton, Ohio에 와서 Veterans Administration

Medical Center의 Hematology & Oncology Section Chief를 역임하였고, 1974년이래 The Good Samaritan Hospital에서 진료하고 있다. The Wright State University press release (www.wright.edu/~jae.chang) 와 ACP-ASIM bulletin에 의하면, 장 동문은 의학연구에 있어서 두 가지의 업적을 남겼다: "The Diagnostic Test for and Treatment of Neoplastic Fever" 와 "Two Serious Blood Disorders - Heparine-induced Thrombocytopenia with white clot syndrome and postoperative 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in patients who un-



derwent open heart surgeries". 또 장동문은 The Wright State University 의대의 Professional Excellence Award (1985) 와 Medical Economic Magazine의 Medical Essay Competition Award (1990)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연락처: (937) 278-2612, Ext: 3313 Web URL http://www.wright.edu/~jae.chang

관악 후원회 이사님 추대

존경하는 재미 서울대학교 동문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을 기하여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본부가 시카고로 이전한지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분의 성원으로 재미 서울대동창회보 발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 동창회보는 미주에 산재해있는 동문을 한 가족으로 결속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이런 우리 동창회보를 더욱 발전시켜, 여러분이 항상 기다리는 신문이 되도록 제 6대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한 회보발간 사업이 아직도 구독료만으로는 그 간행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동문들께서 어려운 중이시더라도 부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관악후원회 이사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재정문제로 동창회보 하나 동문들의 힘으로 발간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동문들의 자부심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에 동문 여러분께서도 동참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후원이사로 참여하셔서 우리 회보발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악후원회 이사회비는 본 회보 제1면 마지막 면에 있는 양식에 기입하신 후 보내주시면 후원회 이사로 추대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10월 28일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관악후원회 부회장 송순영(宋舜英), 회장 이용락(李龍洛) 드림

뿌리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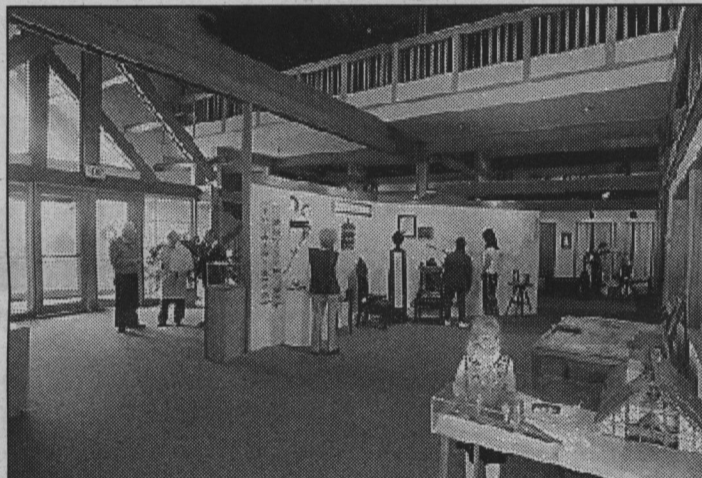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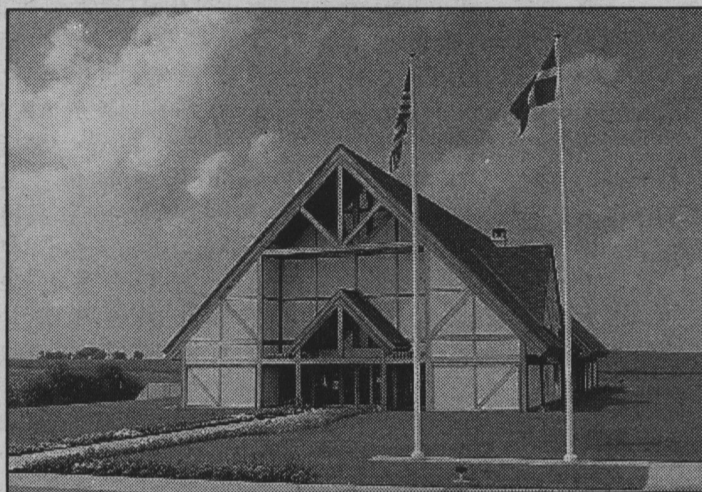
덴마크 이민 박물관 (Danish Immigrant Museum)

김현영 <수의대 58입, Pennsylvania주정부 수의병리연구관>

Iowa주 수도인 Des Moines에서 자동차로 I-80 하이웨이를 타고 서쪽으로 약 1시간 반쯤 평원을 달리는데 덴마크 이민 박물관(중앙 사진)이라는 간판이 있어 한국 이민자로서 특별한 흥미를 느껴 가던 길을 멈추고 (Exit 54)에서 나와 북으로 8 miles 쯤 가니 Elk Horn이라는 마을의 아주 큰 풍차가 보이며 아담하게 현대식으로 세워진 덴마크 이민 박물관(Danish Immigrant Museum)이 있었다

그들 박물관의 목적과 사명은 덴마크 이민자들과 덴마크계 미국인(Danish American)들의 경험과 그들이 지내온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계속하여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수집하고 보호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 박물관은 바로 덴마크 이민자들의 이민초기 어려웠던 쓰라린 경험과 성공한 경험 등을 모아 놓은 문화 역사적인 센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의 모든 전시는 안내자 없이 방문자들 자신이 직접 볼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며 어떻게 그들이 조국 덴마크를 떠났으며, 미국에 이민와서는 어떻게 새가정과 학교와 교회들을 세웠는가를 그들의 경험과 인생여정을 말해 주고 있었다

박물관이 있는 그마을은 120여년전 덴마크에서 이민온자들이 주로 목장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큰 마을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주말과 여름 방학동안에는 덴마크어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조국인 덴마크를 지켜주기를 애써 흔적을 볼수 있었다

박물관은 지하 일층 지상 이층 모두 삼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1층은 Danish-American, 2층은 Family history and genealogy center, 아래층은 Denmark의

역사등으로 구분되어 조직적으로 그리고 현대식감각을 살린 품위있는 박물관이었다

일층에 있는 한벽에는 1885년부터 현재까지 덴마크를 떠나 미국으로 이민와서 새생활을 시작한 360,000명의 덴마크 이민자들의 이름이 동판으로 잘 새겨져 있었

는데 그 이름들은 영원히 이 박물관의 보전 될것이며 바로 이사업이 이박물관의 큰 목적의 하나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동판의 새겨진 이름들은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사람당 250불 이상의 기부금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고 하였다

2층에 있는 가족역사 족보 센터(Family History and Genealogy Center)에서는 이민자들에 가족 교회 지역 등에 따른 역사 자료들을 수집하고 컴퓨터 등에 보관하면서 모든 이민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 본국과 이민자들 간에 편지등 서류 번역에도 봉사하고 있다

덴마크 이민 3세인 넬슨이라는 한 중년여성은 이센터를 통해 덴마크에서 15살에 두 가방만을 들고 미국으로 이민온 자신의 친할아버지의 고향을 찾아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며 할아버지가 세례 받고 다니셨던 교회까지 찾아가는 등 족보센터의 역할을 크게 확인 하였다

덴마크 이민자들은 백인종이기 때문에 미국사회의 主流속에 빨리 동화되었다고 한다

지금 이 박물관이 있는 이 마을에 남아 있는 교회도 교인들은 덴마크 이민 후세들이라 할지라도 영어를 사용하는 교회로 바뀌었으며 모든 생활이 일반적인 미국인들이었다

이렇듯 그들의 미국이민이 120년이상이 되었고 적어도 5세대 이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뿌리를 계속 유지키 위해 이민 박물관을 세우고 그들의 모국 전통을 살리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들은 이미 모국어인 덴마크어를 잃어버리고 그들 교회에서도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뿌리를 찾

아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때 미국이민 역사가 짧은 우리 한국 이민자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모국을 잊지않고 한인의 뿌리와 전통을 지킬수 있을까를 우리 다같이 생각 하여야 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건데 이민자의 후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 Identity을 찾는 것은 그들이 살고있는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이며 동시에 그들의 모국의 전통을 지킬마음은 그들에 이민 선조들의 경험과 인격을 존경할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예로서 일반적으로 이민 2세대들은 모국을 부인하며 그들의 부모들을 존경치 않으려고 하나 이민 3세 후부터는 모국에 뿌리를 찾으며 그들에 부모도 인정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이땅에 사는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우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인격체로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강조하는 것 만큼 우리 1세대도 우선 영어를 익히고 미국을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과도 언어의 장벽을 넘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인격체로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덴마크 이민 박물관을 보면서 우리들 한인 이민일세인 서울대 동문)도 미국에서 살게 될 우리 후손들을 위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전시문

“생전에 단 한 권의 책을 남기고” 싶어하였던
故 전시문 동문(1932-1998)

서울대학교 재학시 학업을 중단하고도 미하여 미국대학에서 철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고 미국사회에서 우리나라 삶의 지혜를 재미있게 담은 수상록 “어느 무명철학자의 유쾌한 행복론”(350면, 서울 도서출판 명상, 2000)을 유가족 MRS. 전(전건희 여사)에게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가격 : \$12.00 (송료 포함)
주문처 : Keon-Hee Chon
21852 Locomotive Terrace #102
Sterling, VA 20166
전화) 703-430-3896

2부 文筆과 論考 목차

*편집자주 : 93호의 문필과 논고란은 아직도 계속되는 9.11 테러사태의 여파가 우리 동문들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음을 느낀다(강영국, 김태환). 흔히 세계화의 시대라 하지만 완전한 하나의 지구촌이 되기에는 인류역사의 진전이 따르지 못한 듯하다. 그리하여 우리의 개인과 민족의 뿌리로 회귀하는 글(김현영, 김문소, 김용건, 정태)들과 현대식 병원 속에 내 맡긴 환자들과 삶의 의미(허성이)는 전통가족제도의 의미를 반추하게 한다. 또 재미동창회보의 생명공학 특집을 위하여 우선 강수상, 신상균 및 김준현 동문의 글을 여기 게재하며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다른 동문들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동문 여러분 “당신분야의 상식은 다른 분야의 동문들에게는 유용한 정보” 이오니 바쁘신 중이더라도 재미 동창회보의 풍요로운 지면을 위하여 여러 동문들과 함께 당신의 玉稿를 기다립니다. 또 이 특집 기획을 시도하는 문외한인 편집자를 계발하기 위하여, 투고된 원고를 정독하시기에 바쁜 휴가 주말을 보내신 익명의 동문 선배님께 감사 드립니다.

1. 덴마크 이민 박물관. 김현영 4면
 2. 족보, 김용건 5면
 3. 막내가 묘약이라, 김문소 5면
 4. 도산 안창호선생 동상제막식에서, 김항자 6면
 5. 교육자의 책임, 이승자 7면
 6. 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문, 이상철 7면
 7. 9.11 미국에 대한 테러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김태환 8면
 8. 神의 전쟁, 강영국 8면
 9. 神의 전쟁, 강영국 8면
 10. 인간복제와 생명공학, 강수상 9면
 11. 가을과 함께 온 “마지막 삶”의 의미, 허성이 9면
 12. GRANDMA, 정태 10면
 13. 즐기세로 연구와 인간복제, 신상균 11면
 14. 미국은 舍衆國이자 舍州國이다, 김일훈 12면
 15. 한국의 생명공학 연구와 산업진흥을 위한 제언, 김준현 13면
 16. 류마치스 관절염에 대한 蜂毒의 효과, 이장현 14면
- (서울동창회보 '01-10-15일자 18면 전자)

막내가 妙藥이라

김문소 <수의대 65년 졸>



모친과 다정한 한때.

따르릉 따 따르릉 한밤중에 울린 전화
졸린 눈 비비면서 수화기를 들었다.
전선 넘어 귀에 익은 반가운 둘째 누이
어머님 근황 알리는 음성이 흔들렸다.
“어머니가 숨을 숨을.....”

호흡이 멈추는 건 죽음의 예고인데
그것도 이십 여분 숨결이 멎었었고
응급실 왕래하며 힘든 고비 넘겼다나.
찾아 뵈고 즐기던 지난 시간 떠올리며
L. A. 행 비행기 속에 뒤척이는 상념들.

막내들이 그리던 구십 팔세 울 어머니
식욕을 잃어가며 피골이 상절토록
상사병 앓다 앓다 책장암 생기셨나?
보스턴의 귀염둥이 너무도 보고 싶어
한동안 숨겨두며 다급하게 부르셨나?

차디찬 손 맞잡고 찬송가를 불렀다.
찬양을동 어울리며 함께 즐긴 사흘간
기적처럼 되찾은 어머니의 밝은 기억
재룡이 묘약인가? 막내가 묘약인가?
감사기도 드리며 소리 없이 통곡했다.

집으로 돌아온 몸살어름 달는 나날
여행가방 묶어 둔채 羅城이 염려인데
“이제는 죽도 드시고 체중도 느셨어...”
심하던 통증도 가셨다는 희소식에
졸인 마음 다독이며 보파리를 풀었다.
장수를 축복하던 이웃과 주변에
“백세는 문제없이” 장담하신 어머니
하나님 은혜 안고 하나님 영광 위해
찬양하며 사시리! 백세를 채우시리!
이품을 거두신 기도응답 감사하며.

(2001년 8월 20일 어머니님 병문안 후에 씀)

지난봄에 한국에 가서 우리 집
족보(族譜)를 만들었다. 금년 봄
에 태어난 우리 집의 새 가족인 손
녀까지 포함한 보정판(補正版)을
나의 직계(直系)만 골라서, 옛날
의 수십 권이던 족보가 아닌 한 권
으로 된 족보를 만들어, 한국에 계
시는 사촌 팔촌에게 한 권씩 나누
어주고, 미국에 있는 자식들에게
도 한 권씩 나누어주었다.

내가 퇴직하기 전에는 거의 해
마다 한국에 나갔는데, 그때만 해
도 consulting이나 conference
나 해서 바쁜 일정이야, 한국의 정
겨운 풍경을 음미한다든지, 나의
뿌리를 찾는다는지 하는 것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바쁘기만 한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난 뒤에도
연중행사로 누나의 초상이다, 조
카들의 결혼이다, 누나의 회혼례
(回婚禮)라 하여, 한국에 가서 한
달 내지 두 달씩 지내다가 왔는데,
그때는 친지들과 어울려 한국의
구석구석을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
었다. 동해안의 해맞이, 남해의
절경, 전라도의 다도해, 서해의
백리포, 그리고 백제의 고도(古
都)인 부여, 공주 등등을 내가 직
접 차를 운전하면서, 한국의 멋을
만끽하였다.

그러다 보니 어언
간 세월이 흐른 뒤, 다
시 생각해 보니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다
는 것을 깨달았다. 그
것은 다름 아닌 내 자
식 그리고 번성하는 가족들과 함께
후손들이

자기뿌리를 찾는데 내가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
떻게 이곳 이국 만리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전의 조상
들은 어떤 분들이었는지 하는 것
들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훗날의
Korean-American의 정체성(正
體性)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막상 족보의 증보판을 만들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의 앞을
가로막았다. 우리 집 족보를 보관
하고 계시던 장손자(長孫子)가 여
러 번 이사를 하는 사이에 족보 보
관을 소홀히 한 탓에 족보가 비에
젖어 못쓰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도 기가 막혀 어떻
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마침 내
가 30년 전에 우리 집 족보를 보았
을 때 30여권이던 것이 되어 가지고 다
니기도 어렵다 생각되어 마지막

족보(族譜)

김용건 <의대 52년 졸업>

한 권만을 보관하여 두었다는 생
각이 나서 여러 곳을 헤매다 마침
내 그것을 찾아내었다. 거기에는
나의 형님까지만 수록이 되어있었
다. 그 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金海金氏王山世家石藏大
同譜二卷十三, 進士公派”. 이 책을
들고 부산에 있는 족보출판소인
한국 족보 출판사를 찾았다. 그곳
에는 족보에 관한 여러 문헌과 이
미 출판된 여러 가문의 족보들이
사무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으며,
내가 가져간 족보 한 권으로부터
쉽게 선대(先代) 조상들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
의 시조 할아버지는 김수로태조왕
(金首露太祖王)이라고만 알고 있
었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 김수로
왕은 가락국의 시조 왕으로서 서
기 42년에 대가락국(大駕洛國)을
창건하시고, 신라에 합병되기까지
500년 가까이 독립국가로서 건재
하였으며, 신라에 합병된 뒤에도
삼국통일에 공헌한 김유신 장군과

을 바라보면서, 혼자 가는 기차 여
행은 많은 회상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름답다는 산수(山水)는
보기에 따라서는 생산성이 낮은
빈곤한 농촌생활을 연상케 했으며
옛날의 기차 여행 때 즐거이 먹던
도시락은 온데 간데 없고, 대구 역
이나 대전 역에서 먹던 따끈따끈
한 우동도 찾을 수 없고, 학창시
절에 비싸 엄두도 못 내던 음식을
차내 식당에서 사먹었으나 대중식
당의 것과 다름이 없어 실망이 컸
다. 내가 자랄 때 부산에는 몇 차
레 갔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멀리
있는 낙동강 넘어 산밭으로 흰 연
기를 뿜으면서 달리는 기차를 하
염없이 바라보면서 언제 저 기차
를 타고 머나먼 서울에 가볼까 생
각했고, 그 뒤에 기차를 타고 난
뒤에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타
고 먼 나라로 가보고 싶다고 생각
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나니 고
향이 — 어릴 때 놀던 내 고향이



번성하는 가족들과 함께

찾았는지? 누
군가 자연
(自然)에서
태어나 자연
(自然)으로
돌아가는 것
이 인생의 항
로라 했던
가? 그 항로
중에서도 김
해 김씨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한국인으로
서 일생을 산
다는 것이 알
마나 소중한

같은 조상을 낳은 자랑스러운 가
문(家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
다. 그리고 나는 69대 손(孫)의
한사람이라는 것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나의 형제 자매 뿐만 아
니라 4촌, 8촌까지의 호적등본을
만드는데 힘이 많이 들었다. 전화
로서 연락이 되는 친척은 그래도
쉽게 만날 수 있어 다행이었는데,
여타 친척들은 시골에 계시니 만
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출판사 김 사장(金社
長)의 배려로 초고에서 교정을 거
쳐 출판되기까지 약 한 달이 소비
되었다. 그 사이에 부산을 자주 다
녀왔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
는 데는 비행기편 보다 기차편이 옛
날의 학창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
보기에 알맞다고 생각되어 기차에
몸을 맡겼다. 차창(車窓)을 스쳐
가는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강산

고 고마운지 모르겠다.
인쇄를 마친 족보를 가방에 넣
고 기차에 몸을 실으니, 이제 나의
임무의 하나를 마쳤다는 안도감이
나의 가슴을 어루만졌다. 부산역
을 출발한 기차의 좌석은 아주 편
안했으며 옛날의 기차보다 훨씬
깨끗하고 승무원들도 친절하여서
나는 무척 즐거웠다. 족보를 꺼내
어 다시 읽으니 거기에는 한자(漢
字)와 한글이 전부였다. 그래서,
행여나 나의 자손들이 이 책이 무
엇인지 궁금해 할까봐, 영어(英
語)로써 이 족보의 출판경위와 나
의 그 기차 안에서의 감상을 적어
넣었다. 이 책은 별도로 나의 장손
(長孫)에게 남겨주리라 생각하면
서, 서울에서는 나의 조카(70대
손)들의 모임인 사촌회에서 우리
대(69대손)를 위하여 마련한 모임
이 있었다. <6면에 계속>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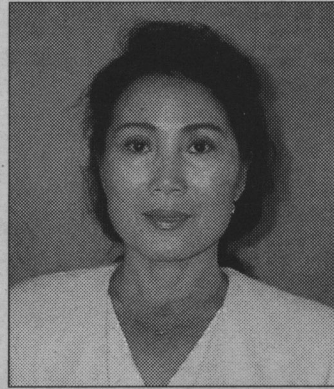
도산 안창호선생 동상 제막식에서

김향자 <약대 61년 입>

愛愛他己

도산 선생 휘호.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1935년 대전감옥에서 기출옥하신 도산은 송태 산장에서 은거하던 중 1937년에 수양 동우회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100여명의 흡사단 동지들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병이 중해지자 경성제국대학 병원으로 옮겨지셨는데 1938년 3월 10일 자정이 넘어 “목인아 목인아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61세로 운명하셨다. 목인은 일본 메이지천



행위이다. 미국인의 인도주의적인 뜻을 본다. 광장에는 마틴루터 킹의 동상도 이미 있고, 앞으로 간디의 동상도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 지구 사이는 좁아지고 위인은 소속된 민족뿐 아니라 세계의 공유인이 되고 있다. 우리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남겨 줄 수 있는 정신적 유산이 있다는 점과 세계인은 조지 워싱턴, 미턴루터 킹,



2001년 8월 11일, 리버사이드 로 날드 러브리지 시장은 이날을 도산의 날로 선언했다. 조용한 시골냄새를 풍기는 라성 근교 리버사이드의 다운타운은 시청과 광장, 골동품상점들, 고대 풍의 미션 인 호텔, 고서로 벽을 장식한 커피숍, 오래된 건물의 한 모서리 등이 옛 사람들에 대한 노스탈자를 불러준다.

강물같이 흘러간 시간, 도산이 가신지 63년이 지나 사람들의 뜻과 힘이 합쳐서 오늘의 동상제막식을 갖게된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보면서 미국국가와 애국가를 2절까지 부르는데 가슴이 뭉클해진다.



리버사이드시 광장의 도산선생 동상.

서 독립을 위해 싸우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하시며 무쇠와 같은 우렁찬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외치셨다.

감격이 되어서 나의 눈이 촉촉이 젖는다. 조국의 운명 앞에 많은 희생이 요구되었던 도산의 가족에게 오늘은 찬란히 빛나는 영광된 자리이다. 여사께서 나의 손을 잡으며 “Your father was my best friend”라고 하신다. 귀국해서 교육자로 살다 가신 부친을 기억해주는 여사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기념사진을 찍으려는데 단상위로 5-6명의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 여사를 가로채서 저들이 사진을 찍는다.

무슨 단체대표자들인 모양이다. 종과부족의 힘이라 당하면서 영화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에 나오는 무사여인이 되어 지붕이나 나무 위를 날아다니며 검술로 혼내 주고 싶은 생각을 한다.

이날 동상을 제작한 ‘아티스트’에 대한 소개가 없어 아쉬움과 궁금증을 주게되었다. 문득 미국 6대 대통령 John Quincy Adams (1767-1848)의 말이 생각난다.

“...나아가서 후세에 오는 예술가들을 위해서도 정치학을 공부하여야겠다는...”

광장에서 발길을 멈추고 부르는 도산이여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거짓하는 자는 자신이 괴로울 것이오.

차라리 침묵이 되더라도 정직하라 하시는 도산이여

그대의 송고한 정신 찬란히 빛나리니...

색동옷 동자들과 미소짓는 도산이여 푸른들 속에 파랑새여

<5면 족보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조카들에게 이번 에 만든 족보를 한 권씩 나누어 주고, 金海 金氏 Badge를 하나씩 나누어주었다. 그 badge는 부산에 있는 김해 김씨 종친회(宗親會)를 방문하였을 때 그곳 회장께서 나의 가상한 종친들에 대한 사랑의 증표인 족보출판을 기념한다면서 나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종친회회의 종친회원으로 등록을 하였다. 대한항공편으로 긴 여행을 마치고 Atlanta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장남(長男)이 마중 나와 나를 맞이하니 여행의 피로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 같았다. 태극마크를 붙인 비행기였다. 비빔밥, 된장국까지 먹고 한국말로서 접대하는 여자 승무원까지 갖추었으니 세상도 많이 달라졌구나 새삼 감상에 잠겼다. 내가 처음 미국에 올 때는 propeller 비행에 태평양 중간에서 재급유하고

awaii까지 왔었는데 말이다.

우리가 귀국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의 제사(祭禮)가 있었다. 여느 때처럼 큰아들과 작은아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지냈다. 딸들은 먼 곳에 있기에 참석하지 못하고 전화만 왔다. 또 큰손녀의 친구가 exchange program의 일환으로 독일에서 와 있다가, 함께 제사 밥을 먹자고 초청하였더니, 큰손자도 같이 밥을 지낼 친구가 있다기에 그 청년도 같이 오라고 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본 그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관찰하는 것을 보았다. 알고 보니 제사지내는 것을 처음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제사 밥을 맛있게 먹고 난 뒤에 손녀와 손자가 그들의 친구들에게 우리 족보를 보이며 김수로 왕과 김유신장군의 사진들을 가리키면서 자기들의 조상이라며 뽐내는 것을 보니 나도 한없이 기뻐다

황을 부름이다. 개회사에 이어 환영사에서 로날드시장은 국가의 자유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가 도산의 제막식을 리버사이드에서 갖게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도산은 1904년 리버사이드에 오셔서 오래지 마는 동포들에게 굴 하나 딸 때에도 정성스런 마음이 되어 잃어버린 조국을 생각하라고 하시며 공립협회를 창립하고 공립신문을 발행하며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셨다. 노동자들의 파업 어린 대가로 모아진 10전씩 20전씩의 돈은 상해 돈은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졌다.

동상건립을 위해 애쓴 로날드시장은 인정미가 있어 보인다. 은백의 머리카락이 잔잔히 나부낀다. 민족의 교육과 산업을 통해 나라 찾는 힘을 기르자고 외치면서 인생을 조국에 바친 도산의 넋을 추모하고 기리는 동상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도산을 향한 존경과 우정의 표시이며 가식과 허위가 없는 진심의

인도의 간디를 알 듯이 또한 도산을 알고 기억하게 되리라.

도산의 사진과 사료가 저장된 타임캡슐을 50년 후에 열게 되는 ‘미래의 열쇠’가 10대의 아이들에게 증정되었다. 그 중에는 5-6세 되는 귀여운 도산의 증손자도 기어 있다. 오늘 행사는 이들에게 어떤 씨를 심어 줄까. 한복으로 꼬까웃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날의 날씨처럼 화창하게 퍼져나가 마음을 밝게 해 준다. 동산의 베일이 제거된 뒤 제자리에 와서 앉아 달라는 진행자의 부탁이 있었다. 삐삐거리는 셀 폰을 끄지 않고 천연히 앉아있고 제멋대로 질서 없이 행동하는 미국 땅을 오염시키는 염치없는 민족으로 비치는 않았을까.

우리의 문화수준은 얼마나 진전되었는가? 도산의 사상은 얼마큼 뿌리를 내렸는가? 잠시 후 장내가 정돈이 되어 식이 계속되는데 도산의 장녀인 수잔 안 여사께서 강단에 서시어 “아버님, 오마님, 두 오빠님, 그리고 리버사이드 땅에

老夫婦의 사랑

신장 기증자 찾습니다!

서울대 학교 미중서부지역 동문화 창립회원이시며 제 1



대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이날까지 동문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 기억(문리대 47년 졸)동문의 부인 천옥순여사께서 신장(콩팥)기증자를 찾습니다. 병환이 깊어서 하루 빨리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이랍니다. 혈액형은 O형 RH+ 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전화 414-351-2298 이기억

교육자의 책임

이승자

<사범대 64졸·시카고 교육청 언어·문화 및 유아교육국 교육행정 담당>

엄밀히 생각해보면 성년인 우리들은 아동들에게 모두 교육자이며 중대한 책임감을 갖고 아동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 틀림이 없겠다.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타인, 특별히 아동들을 선도하며 바람직한 장래의 훌륭한 시민 양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개개인이 지닌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원만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데 있겠다.

우리 사회는 특히 선생님 위치에 있는 교육자에게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또 그런 기대를 걸어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 교육인들은 전문인의 자격으로 이런 기대를 자부심을 가지고 받아드리며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미래의 시민인 어린이들과 그들 부모님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사명을 지닌 교육자들이지만, 본의 아니게 성실한 교육자로서의 기대감에 어긋나는 실수를 하며 때로는 학생들, 동료 교사들 혹은 학부모들에게 여러 가지로 실망을 주기도 한다. 그것은 교육자로 임명받은 우리도 교육자이기 전에 한 사회인이므로 부족한 점도 많으며 또 감정과 느낌에 치우쳐 행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사회가 바라며 기대하는 진정한 교육자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올바른 인생관을 또 지식을 쌓도록 지도하는 스승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사회의 기대에 어긋나는 실수를 하기 쉽고 또 실망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간단히 검토하기로 하겠다.

특히 우리는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또 동참한 상대방 사람들의 직위나 품행에 따라 우리의 언어 및 태도 감정의 표현들이 다양하게 수시로 바뀔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형편에 따라 우리의 품행과 태도가 변한다. 특히 어린이들 앞에서 헤이 하게 행동하기가 쉬우며 심지어는 이성을 잃고 화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본다.

첫째, 우리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도 모르는 척 하며 지나치는 실수를 하기가 쉽다. 특히 순진한 아동들, 또는 사회수준이 낮은 상대방을 대할 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아무리 바쁘고 귀찮더라도 심지어 매우 보잘것없는 의견이라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인정해 주면 더욱더 교육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사회인들의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는 행동은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들어내어 부족한 점들은 지적해 내는 것이다. 상대방의 단어, 행동, 가치관, 또 그들의 병안들을 볼 수 있는 때로 볼 것 아닌 것까지 지적하는 태도이다. 특히 학



교나 배움의 마당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며 대하는 것은 선생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막대한 실수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우수한 것처럼 처신하며 남의 생각과 정보는 틀린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다. 특히 교육자들은 상대방의 사고나 방안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더욱 더 자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교육자는 남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새로운 다른 의견을 받아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넷째로, 우리는 불평을 많이 하는 실수를 하기가 쉽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자신만이 많은 일과 책임을 갖고 분주하게 일하며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다. 비교적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남을 존중하거나 호감을 갖고 대하지 않으며 때때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다. 우리 교육자들은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평보다는 진취적인 묵묵한 자세로 교사의 의무와 직책에 충실한다면 우리는 사회를 실망시키지 않는 참된 교육자가 되리라 믿는다.

다섯째로, 실망을 초래하는 교육자의 실수는, 긍정적인 참여 의식이 희박하며 확실한 목적의식 없이 자기 자신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역시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공동의나 규범에 맞는 단체행동에서 멀리하며 변화 없는 쉬운 하루하루를 때우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가 부여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자가 되려면 자기만족을 즐기는 안일한 생활 태도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도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교육자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단점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타인의 처지나 마음의 상태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존중할 줄 알아야 하겠다. 또한 진정한 교육자는 자신의 행동 및 언어에 절대적인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산 본보기가 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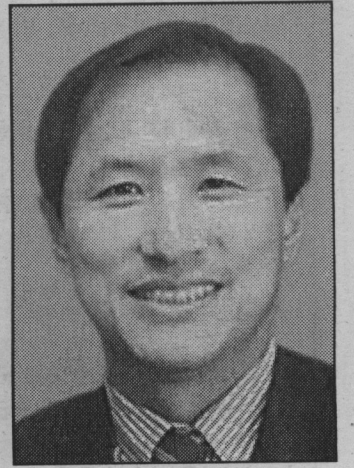
우리 교육자들은 정직하고 옳은 마음이 짐과 남에게 짐해를 가져오는 일을 삼가며, 그러나 혹시 실수를 하는 경우, 곧 반성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다.

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혁신적 개혁과 점진적 개선 함께 추구해야

이상문 <상대 61년졸, 현재 네브라스카대 교수> 이상철 <공대 71년졸, 한국통신사장>

이제 닷컴시대는 지나가고 닷넷시대가 도래하였다. 전 세계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그 안에서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e-글로벌화의 추세를 직시한 기업들은 기존의 관행과 사고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혁신적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경제의 침체와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거품론은 이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대두된 “급진적 개혁보다는 기존의 가치를 그대로 살리는 범위 내에서의 점진적인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들은 더욱 기업들을 방황하게 하고 있다. 이에 필자들은 “개혁”과 “개선”의 논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혁과 개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改善은 연속적이고 선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 改革은 불연속적이고 비 선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e-글로벌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가 불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기술이 전파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과거와 달리 기존의 패러다임, 관행, 경쟁법칙과는 전혀 관계 없는 환경의 변화가 네트워크를 타고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예를들어 과거에 경쟁을 위한 충분조건 역할을 했던 품질과 가격이라는 요인들은 이미 필요조건들로 전락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지적인 힘을 갖춘 e-고객들의 까다로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주는 속도, 고객맞춤화 등의 요인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최근에는 e-고객에 초점을 둔 DCM(Demand Chain Management)개념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더 나아가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확산은 “기술의 차이”보다는 “인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더욱 중요한 시대를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TQM, benchmarking 등과 같은 점진적인 개선으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 기업의 구조, 구성원의 패러다임, 기업관행등을 획기적으로 바꿔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점진적인 개선을 기업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일까? 기업들이 흔히

생각하는 오해가 개혁이나 개선을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둘 중에 꼭 하나는 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필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개념이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느 기업도 항상 급진적인 개혁만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개혁은 조직에게 환자의 가슴을 여는 수술을 하는 부담을 주는 것과 같다. 막 대수술이 끝난 환자가 기력을 회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수술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경우 환자가 기력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또 다른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개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전후에는 꼭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개혁으로 인한 조직 내의 반목과 상처를 감싸안고 치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급진적인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앞세우는 명분은 “급진적인 개혁은 조직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고 기업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던 기존의 핵심역량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점진적인 개선이 이러한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

둘째, 기업의 활동은 선형적이지 않고 부문마다 다른 처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조직이 과거의 단순한 독자적 형태에서 Business Web을 사업단위로 한 수평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때에 개혁이나 개선 중 하나를 택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 만큼 비효율적인 접근 방식은 없다.

기업의 각 부문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어떤 부문들은 개혁을 다른 부문들은 개선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각 부문들이 개선과 개혁을 조화롭게 선택을 했을 때 그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많은 기업들이 구축하고 있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8면에 계속>

神의 전쟁

강영국 <농대 1975년 졸, 수의사>



神의 이름 빌어
神을 가슴에 안은 인간을 살육하
고
너의 평화말에 걸리는
他人의 아비규환이
환상의 도시 멘하탄에서 벌어지
어

그 옛날 못다한 恨을 품고 죽은
히틀러의 원혼이
히로히토의 망령이 世紀를 넘어
내려 앉는 불빛 잿더미 타고
넘실넘실 웃으며
시가지로 퍼짐인가

땅속 철광석 한톨한톨 주워 모아
하는 높이 쌓아 올린 인간 승리
쌍둥이 빌딩은,
십여만명을 가슴에 품은
그 공중의 도시는
천년이 흐른 십자군 가슴에
쌍갑을 쫓는 자-하드 성전 복수
극에
날개를 접었나

다시 천년의 세월은 울지언데
어찌타 인간의 心性엔
惡病을 향한 노스탈지어가 남아
단순한 놀부 심사론 모잘라
神을 빌어 무리짓고
우리가 무리지어 더 큰 神을 만
들어

내 神과 내 神을 걸어 싸움질케
하고
신보다 귀중한 너의 목숨을 던져
내 목숨보다 더 중한 他人의 목
숨을
그리 쉽사리도 앗아 버리는가

더 멋진 건물이사 시간문제로 치
자

血도 靈도 魂도 불태워버린
육천여 귀한 인간 生命은

또
그들의 삶에 영긴 날줄과 씨줄은
어이 풀려나

聖人은 말했다 복수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떻게하려나 어떻게하려나
人類史의 형성이 복수의 줄기인
것을

참 神은 구토하고

콧잔등에 따끔히 쏘인 거인은
손등으로 아픔의 눈물을 씻고
불끈 전 쇠주먹으로 불모의
사막과 산등성이를 찾아 나섰
고,
쇠주먹의 위력은 땅을 헤집고
산을 뭉개어도

상대가 없는, 오직
신무기 실습 전쟁터 일뿐
힘이 진리란 世上事에 감히 버
티는

벼룩 세계의 천년은
과히 펼쳐져리나

인간아, 집단아!
리근를, 이기를, 이기를——

<7면 혁신적 개혁서 계속>

인적자원의 창조력과 변화의 속
도, 권한이양을 지원하는
"Customer-Driven Systems"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대에 최고 관
행의 강조로 인한 아이디어의 확
일과, 장기간의 구축으로 인한 느
린 변화, 중앙집중적 통제등이 단
점을 동반할 우려가 있는 ERP
는 "Software-Driven Systems"
이며 글로벌 경영정신에 위배된다
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개혁과 개선을 서
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개혁
이 개선을 이끌고 개선이 또 다른
개혁을 가능하게 해주며 조직내의
여러 부문 속에서 개혁과 개선이
조화를 이룰 때 기업은 역동적으
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에게 급진적인 개
혁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 필자
들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급진적
개혁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이를
접근하고자 한다.

기업들은 내적 외적인 상황으로
기업이 위기에 닥쳤을 때에만 급
히 구조조정을 하려고 든다. 그러
나 구조조정은 기업의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준
비를 시작해야 진정한 효과가 있
는 것이다. 기업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지속되면 변화에 둔감해지
고 긴장이 해이해져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점을 놓치게 된다. 환자
가 수술을 하려면은 수술후의 일
정기간의 후유증을 극복 할 수 있
는 기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병이 깊어 증상이 완연해져 수술
을 하는 것 보다는 미리 문제를 발
견하여 수술을 버텨낼 여력을 몸
이 지니고 있을때에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즉 기업이
위기에 닥쳐 구성원 모두가 개혁
의 필요성을 동감하여 개혁을 추
진하고자 할 때는 이미 시기를 놓
친 후가 된다는 것이다.

e-글로벌 시대의 기업은 감원이
나 감량등을 통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 수동적인 구조조정
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미리 예
견하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처하
여 미래 경쟁력의 기반을 마련하
는 능동적인 구조조정을 해야한
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체제
속에 들어가 않은 기업들이 구조
조정으로 비틀거릴 대에도 경제
위기 이전에 이미 내실 있는 구조
조정을 마친 기업들은 승승장구
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최
고경영자의 미래를 보는 선견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
고 경영자들은 개혁이 가장 필요
할 때는 위기를 느꼈을 때가 아니
라 기업의 모든 것이 잘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대라는 사실을 명
심해야 한다.

구조조정에 대해 한 가지 더 생

각해 봐야 할 것은 구조조정이 꼭
급진적 개혁만을 대상으로 할 필
요는 없다는 점이다. 구조조정 자
체가 개혁과 개선의 두 가지 의미
를 다 포함 할 수 있는 것이다. 필
자들은 이 두가지 개념을 Hard한
구조조정과 Soft한 구조조정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Hard한 구조조정은 우리가 흔
히 생각하는 감원이나, 매각, 분
사등과 같이 조직의 틀을 근본적
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에 Soft한 구조조정은 관련된 종
업원에 의한 패러다임의 변화, 재
교육, 업무흐름의 합리화 등을 통
해 새로운 환경 속에서의 "종업원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Hard한 구조
조정이 틀을 바꾸는 것이라면
Soft한 구조조정은 틀이 잘 돌아
가게 해 주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
을 하는 것이다. 이 두 유형의 구
구조정이 상호조화를 이룰 때 우
리는 개혁-개선-개혁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극대
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경쟁우위는 어
디에서 나올까? 급진적인 개혁과
점진적인 개선의 조화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변화를 남보다 먼저 예
측하고 먼저 결단하고 먼저 움직
이는 것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모두의 통합적 창조성과 팽창목표
의식이 기본요소라 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9.11테러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金泰煥 <법대 48년 입, 필라 노인대학 전임강사>

역사적 배경

새로운 21세기가 시
작된 금년, 9월 12일
에 기독교의 나라, 세
계 최강국인 미국, 세
계 모든 나라 사람들
이 살고 있는 나라의
뉴욕시와 워싱턴에서
과격파 이슬람교도
집단 (Osama bin
Laden)에 의해서
110층의 쌍둥이 건물
과 미국방성의 건물이 폭파된 것
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이는 일시적
인 생각과 일시적인 생각과 감정
속에서 일어난 참사가 아니라 기
독교, 기독교도와 이슬람교, 이슬
람교도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상
호의 악연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905년 전인 서기
10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종교
전쟁이라고 일컫는 십자군 싸움
(전쟁)으로부터 이야기하고 싶다.

이 십자군전쟁은 11세기말부터
13세기말에 걸쳐 200년 동안 8차
례에 걸쳐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기독교 국가
들이 이슬람교도에게 계속 점령당
해 온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의 회복을 위하여 일으킨 전쟁이
며 그 전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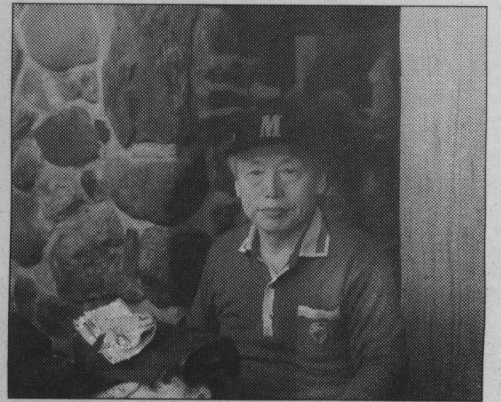
제 1차 십자군 (1096년-1099년)
프랑스의 기사들이 많이 참가하
였으며 그들은 소아시아를 거쳐
격전 끝에 성지를 회복하고 예루
살렘 왕국을 비롯하여 몇 개의 기
독교도 국가를 세웠다.

제 2차 십자군 (1147년-1149년)
제 1차 십자군이 세운 왕국들을
다시 터키족이 점령하자 이번에는
독일의 황제 콘라드 3세(Conrad
III)와 프랑스왕 루이 7세(Louis
VII)가 참가하였다. 그러나 이 군
대는 도중에서 약탈만 행하다가
다마스쿠스 공격에 실패하고 되돌
아왔다.

제 3차 십자군 (1189년-1192년)
살라딘(Saladin)의 성지를 점령
한데 대해서 일어난 것으로서 독
일황제 프리드리히 1세
(Friedrich I), 프랑스왕 필립 1
세(Philippe I), 영국왕 리처드 1
세(Richard I)가 참가하였다.

그러나 독일황제는 소아시아에
서 역사하고 프랑스왕은 영국왕과
사이가 나빠서 귀국해 버렸으며
영국왕만이 남아서 싸웠으나 성지
를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제 4차 십자군 (1202년-1204년)
교황 이노첸티우스 III(Inno
centius III)의 호소에 의해서 프



랑스의 제후와 기사들이 참가하였
다. 그러나 그들은 지중해 商權을
노리는 베네치아(Venezia)의 상
인들의 利害에 좌우되어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constan
tinoplo)을 점령하고 거기에
라틴제국을 세웠다.

소년, 소녀 십자군

1212년에 독일, 프랑스의 소년,
소녀들이 모여서 계획한 것인데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
고 도중에서 그 대부분이 마르세
이유의 상인에 의해 노예로 팔려
가는 비극으로 끝났다.

제 5차 십자군 (1228년-1229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히 II(Friedrich II)에 의해서 일
어났다. 황제는 외교적 수단에 의
해 성지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왕
국을 부흥시켰으나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이집트군이 성지를
다시 점령해 버리고 말았다.

제 6차 십자군 (1248년-1254년)
과 **제 7차 십자군 (1270년)**
두 차례에 걸쳐서 프랑스왕 루
이 9세에 의해 이집트 및 북아프리카
의 이슬람교도를 토벌하기 위해
서 행하여졌다.

그러나 제 6차에서는 루이왕이
포로가 되어 상금을 내고 귀국하
였으며, 제 7차에서는 루이왕이 전
염병에 걸려 죽었으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였다.

그 후에도 소규모의 원정군이
있었으나 13세기말에는 그것마저
도 없어져 결국 십자군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즉 유럽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도들의 십자군에 의
한 성지회복의 목적은 달성치 못
하였다.

이와 같이 기독교도와 이슬람교
도간의 싸움이 905년간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현황

테러의 주모자로 불리우는 오사
마 빈 라덴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부호의 17번째 아들로서(40세) 이
슬람교도 중에서 과격파 테러리스트
이다.

<10면에 계속>

인간복제와 생명공학

강수상 <53년 의대졸업 · Rush Medical School 유전학 교수>



적으로 유전자와 환경의 공동 산물이라는 것을 깊이 음미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런 점을 생각할수록 복제라는 어휘는 피해야 할 것 같다.

참고로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말과 글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한문 문화권 속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클론을 중국에서는 '克隆'으로 쓰고 '크롱'이라고 발음하며 일본에서는 영어발음을 그대로 'クローン'이라고 쓰고 있다. 마땅한 어휘가 찾아지지 않으면 원어와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

끝으로 '유전 공학'이나 '생명 공학'이라는 어휘도 쓰여 경우를 가려서 써야 할 것 같다. '유전학', '세포학', '분자 생물학'과 같은 분야가 있는데, 다루는 과제도 분명치 않다.

또한 별로 통용되지도 않는 공학의 한 분야의 과제로 클론을 다루는 것에는 생각할 여운을 남긴다. 실제로 클론의 연구를 주도한 학자들은 대부분 세포생물학이나 세포생리해부학 출신이다.

클론을 다루는 분야를 工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물학을 공학으로 바꾸어야만 첨단 생명과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복제라는 어휘는 예술품 가구 출판물 같은 것을 원래의 작품과 똑 같이 모방하여 만든다는 뜻인데 언제부터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문이나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문화계 종교계 심지어는 학계에서까지 이 용어를 생명체의 생식과 관계되는 '클론 (CLONE)'의 뜻으로 쓰고있는 것을 보고 이리다가는 인간클론을 인간복제로 사전에서까지 쓰게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될 것 같다.

'클론'이라는 어휘는 동물이나 식물이 원종의 특수세포에서 무성 생식의 과정으로 생긴 원종과 동일한 동물이나 식물을 뜻한다. 요즘에는 그 뜻이 더 한정되어 미수정란의 세포핵을 다른 체세포 핵으로 교환해서 생긴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명체를 클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클론의 어원은 희랍어로 '가지'인데, 가지는 나무의 동지에서 뻗어난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클론은 생명체에서만

사용되는 어휘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점에서 '생명윤리 자문 위원회'에서까지 만약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구분이 없이 쓰고 있는 '복제'라는 어휘를 클론의 뜻으로 쓰게 된다면 이것이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말을 하는 밑바닥에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의 문제가 깔려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간 클론'의 문제를 생명윤리 위원회는 '예기치 않은 재앙을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 연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성사에 의한 정상생식과 인간클론의 차이의 문제를 과학, 윤리, 종교적인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현재 수용되고 있는 인위적인 생식과정도 심도 있게 참작한 견해가 나와야 할 것 같다. 인간클론을 반대하는 근거가, 첫째로, '생식과정에 인위적 조작이 윤리적으로 얼마만큼

허용이 되는가' 하는 문제와, 둘째는 "이 과정을 거쳐 생긴 생명체와 그 원종의 유전적 동일성과 인격적 동일성의 수용한계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성합의 과정이 없는 인공수정은 물론이고 인체 밖에서 정자와 난세포를 수정시키고 배양하는 시험관내 수정(IVF) 난세포 벽을 통과 못 하는 정자를 세포 속으로 주입하여 수정시키는 난세포내 정자 주입법(ICSD)같은 조작 과정과, 클론의 조작 과정이 왜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것 같다.

"클론"에서 생기는 생명체와, 클론에서 난세포의 핵 대신 주입된 체세포핵의 임자와의 생물학적 동일성에 대한 문제도, 간단하게 결론 지을 문제가 아니다.

새로 생겨나는 생명체가 세포핵이 가진 유전자의 영향을 제1크게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세포

유전자를 관리하는 난세포와 그 속에 들어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역할도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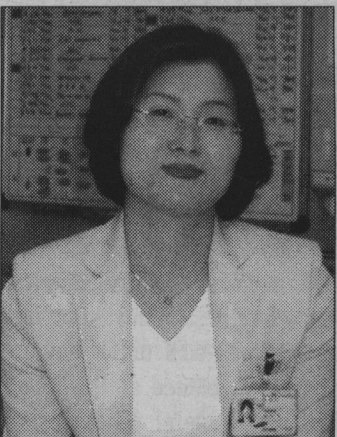
그런데도 세포핵 유전자의 동일성만 강조되어야 할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알고싶다.

동일성을 따진다면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에 비하면 클론의 경우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더구나 클론에서 보는 두 생명체의 출생일시의 큰 차이는 유전적 역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세포핵 유전자가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은 사람의 체세포의 클론과, "얕은 생명체"와의 동일성을 찾는다는 생각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한 개체는 생물학

가을과 함께 온 "마지막 삶"의 의미

許聖伊 <간호대 87년 졸, 삼성서울병원 내과 수간호사>



에 초점을 맞추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느냐는 것이었다. 지금껏 우리 사회가 수많은 암 환자나 만성질환자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온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많은 선진 국가에서는 수 해 전부터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 오고 있다.

바로 우리 사회도 그런 삶의 가치를 위해 한 걸음 내딛으려는 시도가 그런 소극적 안락사란 것으로 잘못 표현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일부 병원과 종교 봉사 단체에서는 그런 행동을 "호스피스"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호스피스의 의미는 죽을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맞을 삶의 마지막 선에 있는 죽음을 대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숨겨진 고통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시 우리 사회의 삶을 재충전시켜주는 그런 것이다.

오늘도 나는 또 다른 고통의 삶을 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일은 고통의 삶이 아닌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삶을 대하고 싶다.

서늘한 바람으로 아침을 깨우는 오늘은 창문을 여기도 전에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올 것만 같다. 젖혀진 커튼 사이로 나의 기대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파란 하늘이 있다. 아! 벌써 가을은 이렇게 조용히 우리를 곁으로 자리를 잡을 모양인가 보다. 앞집 아주머니도 밥하던 손을 털고 무심히 밖을 내다본다. 하지만 나의 하늘을 보는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축 처진 눈가에서 주름처럼 흘러내리는 뺨가를 볼 수 있었으니 말이다. 지난 달 어머니를 여의셨던 일이 생각나셨나 보다. 유난히 어머니와 사이가 좋아 남들의 부러움을 샀던 아주머니이셨는데, 그녀의 어머니께서는 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지난달 지금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 저 편으로 떠나셨다. 잠깐이나마 가을을 느끼려고 했던 나의 마음이 미안해진다. 그리고 그 미안한 생각은 이내 여러 갈래의 사연들 속으로 나의 마음을 데리고 간다.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껏 병원이란 곳에서 일하면서 참 많은 사

연들을 보았던 것 같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거쳐 지금은 암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나를 말한다면, 그도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것이다. 게다가 병원에서의 14년이 훌쩍 넘어 버린 시간의 무게를 더하면 가슴 저미는 그런 사연들은 끝이 없다. 병원이란 삶은 늘 그랬다.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지막 자신의 삶을 위해 애써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늘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거리고 온 가슴으로 함께 그들의 삶을 안아오만 했다. 그러다 보니 늘 삶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일까 하는 깨우침을 갖게 했고, 또한 나로 하여금 그 의미에서 손끝을 뻗 수 없게 만들었다.

어제도 나는 이렇게 서늘한 바람 부는 날, 아름다운 한 영혼을 부는 바람에 실려 보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삶의 시간, 3개월을 병원에서 떠나질 못했다.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암으로 인한 통증과 아무 것도 먹지 못하는 고통 속으로 자신을 점점 빠져들

게 하면서 병상에만 누워 3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가족과의 마지막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저 두려워만 했다. 아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고통의 모습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고 그렇게 떠나갔다. 남겨진 가족의 훗날 두 눈에는 그의 마지막 고통의 모습이 그대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대부분 암 환자나 만성 질환자들에게서 많이 접하는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그의 삶의 의미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고, 그의 단순한 신체적 아픔만을 달래 주고자 그저 병원에 묶어 두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또 다른 고통으로 그를 이끌어 가곤 했다. 그는 침상에만 누워 그렇게 3개월이란 시간을 무던하게만 보냈다.

침상에만 누워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게 한 우리 사회의 그에 대한 책임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언제부터가 우리사회는 그랬다.

사랑하는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같은 시간을 만들어 내었던 그 가정의 공간에서 정작 마지막 그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지 못하고 막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사회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면서, 아름다운 그의 삶을 함께 정리해 주기보다는 함께 하는 시간과 공간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병원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다 했다는 위로를 갖게 하면서 말이다.

몇 달 전 한동안 신문지상을 장식했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기사가 떠오른다. 우리 사회는 경악했다. 단순한 죽음과 삶이란 생명

(편집자 주: 99년 12월 5일 세상을 떠난 부인 이복덕여사를 그리며, 생전에 나는 祖孫간의 사랑을 그린 글을 투고하심.)

GRANDMA

Caring and loving

정 태 <외대 62년 졸>

"Grandma! Where are you?!" Our four year old granddaughter shouted out as if she was scared and worried. Grandma had just left to go to the bathroom. Her out cry was not because she was scared or worried but because she was a little disappointed. She was not aware of her Grandma's whereabouts ahead of time, when she discovered being alone with her two year old sister, who cried for a bottle of milk and was perhaps in need of a diaper change.

Grandma was happy and willing to be involved in taking care of her two grandchildren. Grandma had heart-felt love for her oldest son and her daughter-in-law, who was in her Residency training at the university hospital. Typically, the grandchildren were brought to us Sunday evenings and taken back to their home on Friday evenings. Actually, the parents were "weekend parents", unless they had a day off from their work or a vacation. I do believe that our Grandma loved taking care of her grandchildren. Some grandmothers might decline to do this but, because of heart-felt love for her grown-up son and daughter-in-law and also because of her own need to care for and to be around children again, she agreed to the job. Grandma often con-

fessed how lucky she was to be able to care for her grandchildren and insisted, whenever she got a chance to speak, that all her children must have at least four children each! (She has three sons and a daughter, all grown and left). Believe it or not, one of her sons assured her by telling his mother and her friends that he would have several children, and if for some reason he could not have his own children, he would even adopt!

Grandma was yelling out across the room while I was crazed about the Superball game for a moment. Mr. Elway's last attempt to gain the Superball Ring! She was demanding a diaper should be brought to her immediately. With some annoyance, I responded to her vehement request, in spite of my preoccupation, my crazed Superball or not.

Our two year old with a new diaper and her four year old sister were getting full stream with happy giggles and chuckles. They kept me on my toes so I didn't have a chance to glance at the football game again. They insisted on watching Cinderella, Snow White or Bambi. I was

happily exhausted by responding to their demands to change one tape after another. SUPPERBALL!!-I waited to watch it all season long. No way! All I heard was that Mr. Elway finally got his long wish, the Superball Ring, on the late night news.

After Bambi, our two year old was still fighting sleep; however, she slowly drifted to sleep in my arms. Our four year old was still trying hard to catch the last scene of Cinderella and joyfully exclaimed, "Grandma! Isn't it beautiful?" (you may wonder how a four year old child could be such... I assure you, this four year old little girl has more understanding about things around her than a grown-up. She was able to complete the U.S.A. map puzzle all by herself when she was just over two years old and was able to name several states without any difficulty, not mentioning the many amazing things she was able to do!)

Days and nights passed by with much joyous excitement and surprises. On one warm late spring day, we walked down to the lakeshore as the children demanded to see the fish, the ducks along with their ducklings, as well as the geese with their chicks. The geese and ducks were busy snorkeling with their little ones and seemed to enjoy the late warm spring peacefully and happily as much as we did. Suddenly, our four year old asked, "Is that the mother!?" pointing to a duck heading her little ducklings in a very harmonious line. I could not answer right away. She was not about to lose a precious moment of her exciting DISCOVERY by waiting for my reply. Instead, she proclaimed with full grown

authority in her voice. "She is, I know!". She pointed to a duck being followed by her little ducklings. With happy curiosity, I asked how she knew this "she is". She replied without a moment of hesitation, "because she is leading!". I was at a loss for words for a moment. To her "leading" meant being a mother duck. Is this something inherent, something a little girl knows?!. A mother is one who shapes the contour of a child's mind (while the father is busy earning a living). Mother is there to mold, change and shape ideas in a little very fragile mind. Grandmother is the grand one of all doing so: she knows what, when and how to mold, change and shape the ideas to anyone, even very fragile little minds.

"Grandma! You sit here! I'll fix you tea". Four year old little girl went to her playhouse kitchen and came back with a cup on a server very gingerly, as if it may spill. Our two year was more than helpful to her sister, and said very complacently, "I made TEA just for you, Grandma!". My heart dropped out of my chest and joyous tears were rolling down my cheeks. How beautiful and heavenly this moment was to me! This is what our Grandma was looking for, to care for her two granddaughters with heart-felt love, even though she did not wish any return from her GIVING(LOVE) and GIVEN. This beautiful and wonderful moment was a pure reflection of her love and her grandchildren's love for her! There was no trace of shade or taint of dirt, crystal pureness: JUST PURE LOVE (only a pure heart and mind can show)!

Our grandma was so willing to be just a GRANDMA not only for her children but her children's children with pure MIND (heart-love). Grandma had a major operation (lung-lobectomy) and after a short thirty days of recuperation, she was again most willing to resume caring for her lovely

granddaughters. (Most people who have had this type of operation need a long time to recuperate). Her grand children were to precious, to special and the love for them was too great to allow her to feel any pain or be tired or even to allow her just to sit around and recuperate!

Eureka! Our grandma saw this beautiful and heavenly moment. She allowed to touch her heart with deep feeling of caring, loving. She was able to devote all her love without a tainted trace of feeling of GIVING and GIVEN, even when she was at her

weakest point in her life physically!

I do remember when our children were young and I was little more willful than now, she used to prepare Thanksgiving dinner for my classmates and their children at our home for years. On one Thanksgiving day, our boys asked if we could have Thanksgiving to ourselves at least "just one time!" Grandma was little perturbed then with mixed emotion but scornfully uttered to her boys, "Thanksgiving is to share with others", and she did not mind a bit to continue. Looking back over those years, I do believe our GRANDMA was a super-special woman in her ability to love and to care. she knew how to set an example of one who gives her ALL without a tainted trace of feeling of GIVING and GIVE, and JUST DOING for her own deed of caring and loving!

"Grandma! this tea is for you, Grandma! I made it JUST for you, Grandma! do you like it?" Gesturing to drink the tea her lovely granddaughter prepared, she murmured with tremorous voice, "I do! Surely I do like it! I love you, darling!" Grandma stretched out her arms and gave a big hug to her and her two year old sister, with a bright BUDDHA smile on her face.

I was at a loss for words. (August, 1998)

<8면 9.11 테러서 계속>

그는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도를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나라 미국과 미국인을 극히 중요하고 있는 자이다. 그는 아프카니스탄의 과격파 탈레반 정권의 두목 모하마드 오마루(39세)와 상호혈연관계(서로 장인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그 아프카니스탄의 산악지대에 은신하면서 보이지 않는 테러 전쟁을 자행해 나가고 있다. 즉 신관 종교전쟁을 일으켜서 과격파 이슬람교도에 의한 기독교도의 말살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대표적인 적이 이번 9.11 미국, 미국인에 대한 테러 행각

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주요 행각
- 1997년 미국 ABC TV와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이 사우디를 떠나지 않으면 죽게된다고 엄포를 하였다.

- '98년, 99년, 2000년 세 차례에 걸쳐 세계의 이슬람교도에게 보내는 메시지 (ISLAM 교회 성명)를 보내 기독교에 대항하는 테러와 저항운동을 꾀도록 선동하였다.

- 이번 2001년 9월 11일에는 미국의 뉴욕 110층 쌍둥이 건물과 미 국방성 건물을 폭파해서 많은 (6천 여명 이상) 사상자를 내게 하였다.

줄기세포 연구와 인간복제

序言

고려시대 선비 우탁(1263-1342)은 늙음을 안타까이 여겨 다음과 같은 시조를 남겼다. “한 손에 막 대잡고 또 한 손에 가지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또, 구약성서에 이르기를 Adam에서 Noah 까지 인류조상의 첫 10세대는 대부분 (70%)이 900세 이상 살았다 한다. ① Adam 930세, ② Seth 912, ③ Enosh 905, ④ Kenan 910, ⑤ Malalel 895, ⑥ Gared 962, ⑦ Enoch 365, ⑧ Methusela 969, ⑨ Lamech 777, ⑩ Noah 950). 우리에게는 부러운 일이다.

서양논리학의 전형적인 삼단은 법(Syllogism)의 예로,

“All men are Mortal.
Socrates is a man.

Therefore, Socrates is mortal“라는 구절이 흔히 인용된다. 이 모든 것은 인류가 죽을이란 것을 가장 피하고 싶은 소망의 표현이라.

무릉도원, 천도복숭, 신선이란 개념들은 모두 불로장생과 관계 있는 말이다. 또, 불로초를 찾기 위해 3천명의 동남동녀를 전국 각처로 동원시킨 진시황제의 얘기, 회갑을 3천 번이나 맞아 18만년이 산 三千甲子 동방삭(東邦朔)은 그래도 검은머리를 갖고 있더라고 부러운 듯이 말하는 전설은 시대의 古新(diachronic)이나 洋의 東西(diatopic)를 막론하고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염원임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永遠”이란 생각은 어쩌면 조물주가 인간의 가슴속에 새겨 넣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Ecclesiastes 3:11). 영혼불멸 사상이나 힌두교, 불교 및 Platonism에서 보는 환생설(reincarnation)은 육체는 아니더라도 영혼만이라도 영생을 해보겠다는 인류의 집단적 희망에서 오지 않았겠는가? 영광된 몸(glorified body : 이것이 영적인 존재인지, 육적인 존재인지 혹은 physico-spiritual being 인지는 알기 어려우나)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도 좋으나, 죽음을 겪지 않는 재림 예수에 의한 공중 휴거(“lifted up by second coming Christ”, I Thess 4:15)를 선호하는 까닭은 죽음을 겪지 않겠다는 소망에서 온 것이다.

육체의 장생을 위해 인류는 무수한 노력을 해왔다. 중금속을 사

용한 연금술은 전부 실패했지만 vaccine, 항생제, 음식, 주거시설의 발달 등은 인명연장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한 예들이다.

Human Genome project, Stem-cell research, Human Cloning등도 무병 장수하고자 하는 인류의 원초적 바람을 과학에 의해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생각 할 수 있겠다.

成人에게는 약 100조(100 trillion : 10의 14제곱) 나 되는 체세포(somatic Cells)가 있고 약 210-220종류의 조직세포(tissue cell types 즉, 뇌, 간, 신장 등)가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많은 개별 체세포 핵 속에는 인간 genome의 완전한 copy가 다 들어 있다는 것이다. (즉, 각 세포의 핵 속에 46개의 chromosomes, 3 billion chemical letters, 3만4만개의 genes등이 다 들어있다)

정자나 난자 같은 性세포의 핵 속에는 체세포의 반에 해당하는 23개의 chromosomes가 들어 있어 그 핵을 pro-nucleus라 하고 두 성세포가 결합하여 결합자(Zygote)가 되는 과정을 受精이라고 하고 이때 비로소 46개의 Chromosomes를 갖게 되어 완전한 세포가 된다. 난자(Ovum)에서 Pronucleus를 빼낸 세포질(cytoplasm)속에 체세포의 핵을 옮긴 후 reprogram 시켜 (꺼진 DNA의 switch를 다시 켜서) embryo를 만드는 과정을 복제(cloning or asexual reproduction)라 하는데 이 과정으로 1996년 Scotland에서 277번의 실험 끝에 성공한 것이 복제 양(cloned ewe)인 “Dolly”이다.

I. 줄기세포란 무엇인가?

그의 다양성(versatility or multiplicity) 때문에 210에서 220가지의 어느 조직세포로도 분화 될 수 있지만 아직은 분화되지 않은 master cell을 줄기세포(stem-cell)라 한다.

줄기세포는 출처에 따라 human embryonic stem cell, neonatal stem-cells (cord blood에서)과 adult stem-cells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Human Embryonic Stem cell(HESCS라 약칭)은 수정된 난자가 분열을 시작 36시간 후에는 2 cell stage가 되고 → 4 cell → 8 cell → 16 세포분열이 되었을 때 morula 또는 mulberry라 하고, 그 속에 자궁내막에서 분비

된 액체가 들어가면 이를 blastocyst 라고 하는데 (수정 후 약 5일째) 이것이 바로 HESCS의 典型(proto type)이다.

이 blastocyst를 자궁 속에 그대로 두면 DNA에 program된 일정에 의해 배아기(embryonic stage, 수정 후 2주에서 8주까지)를 거쳐 fetal stage(수정 후 8주에서 약 38주)를 지나 신생아로 태어나게 된다.

1998년(11월) Wisconsin 대학의 James Thompson은 In-Vitro Fertility Clinic에서 얻은 잉여 배아(胚芽)로부터 blastocyst를 추출해서 reprogram하여 분열은 하나 분화하지 않은 (division without differentiation)상태를 유지하는 기술개발에 성공 Science지에 발표했다.

또, Johns Hopkins의 산부인과 의사 John Gearhart는 Thompson이 발표한 수일 후 불임시술소에서 얻은 유산된 태아에서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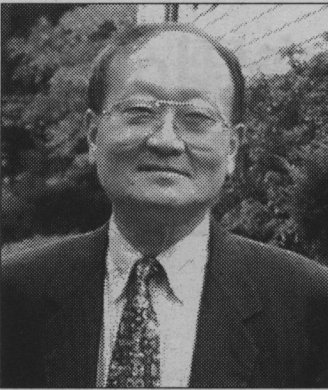
그리고, in-vitro fertilization 을 처음 성공시킨 Jones Institute, VA 에서는 기증된 정충과 난자로 줄기세포를 얻기 위한 배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7/18/01)

美國 하원에서는 2001년 6월 House Bill H.R. 2505(the Human Cloning Prohibition Acts of 2001을 265/165의 다수결로 통과시켜 이제 상원을 통과하면 법이 되는데 위반 시에는 최고 10년형 (형사법)을, 인간복제가 비록 치료용이라 하더라도 금전적 이익이 관련될 경우 1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즉 reproductive human cloning은 엄격히 금지하나 이론적으로 치료를 위한 인간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된다.

인간복제는 연방재정지원은 물론 private funding도 바랄 수 없는 처지이다.

Bush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8/9/2001) 기존의 HESCS 세계적으로 약 64 lines 정도 있는데 Australia : 6, India: 10, Israel: 4, Sweden : 24, USA 16, Greece: 이에 한해서 그 연구비를 연방재정지원(federal funding)하겠고 이 속에는 신생아 줄기세포연구(cord blood stem-cells)와 성인 줄기세포 연구비도 포함한다고 했다.

II. 줄기세포연구와 인간복제에



관한 대중인식

① <질병치료연구> 흔히 줄기세포와 배아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줄기세포가 배아로 되고 태아가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환자에게는 치료를 위한 연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the Patient Bill of Right에 호응하는 TV 스타들은 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치료방법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Mary Tyler Moor는 당뇨병 치료를, Michael J. Fox는 Parkinson병 치료를, Nancy Reagan은 Alzheimer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를 주장한다.

② <인간복제> 1996 Scotland에서 277번만에 성공한 복제 양인 Dolly를 보면서, 인간복제를 하면 얼마나 많은 기형아가 생겨날 것이며 왜 인간이 조물주의 흉내까지 내려하는가 염려한다. Italy의사 Severino Antinori는 내년부터 인간복제를 시작할 것이며, Napoleon이나 Galileo가 그의 role model이고, 인간 복제를 법으로 금하면 금지법이 없는 나라로 옮겨 갈 것이고, 필요하면 국제법상의 公海上으로 그의 실험실을 옮겨서라도 인간복제(reproductive human cloning)를 꼭 하겠다고 했다.

UN의 산하기관인 WHO에서는 국제인간복제 금지법을 제정하여 인간복제만은 꼭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David Gergan, Editor at Large, US News & World Report, 8/20/2001).

III. 연구학계의 견해

Roger Pederson(U. of Calif., S.F)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규제에 못 견디 Oxford 대학으로 이주해 버렸다. (영국에서는 금년 초 Parliament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 2/3의 다수로 찬성 통과시켰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규제와 연방 지원국의 금지 조치들은 Johns Hopkins나 Wisconsin 대학 같은 선도적인 연구소의 줄기세포 연구에 큰 제한과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여태까지 여러분야의 획기적인 과학연구에 앞장섰던 NIH도 이전 타국(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인도 등)에 비해, 이제부터 낙후되어

옆줄에 비켜서서 연방정부가 승인한 Stem cell line을 점검하는 문지기 노릇이나 하는데 고작일 것이라 염려가 전문가들 사이에 태산같다. Wendy Hernandez, (Ph.D, NYC Bio tech. Analyst)이나 Kevin Wilson, (Director of Public Policy for Advanced Society of Cell Biology, MD)와 같다.

미국의 in-vitro fertility clinics에는 지금 10만-100만이나 되는 잉여 배아가 냉동된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Pro-life주의자들 이들을 전부 임신시켜 입양시키자는 주장이고, 줄기세포 연구에 이들을 써서 불치의 병 치료용으로 쓰는 것이 쓰지 않고 버리는 것보다 낫지 않나 하는 것이 학계의 견해이다.

이런 와중에도 Pro-life주의자들의 반대가 없는 cord blood, 줄기세포 연구 (Via Cell, Biosciences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가 하면 成人 줄기세포 연구도 활발히 진행중이다(New Therapeutics, Austrom Biosciences etc.). 현재로서는 여러 요소를 감안할 때 어디서 나온 줄기세포가 가장 좋을 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10-15년 후에는 줄기세포 치료나 유전자 치료법들이 퇴행성 질환(관절염, 심장병, 암 등)에 대한 현재의 치료법을 대체할 것이며 불치병(Alzheimer, Parkinson, 척추손상, 당뇨병 등)치료에도 이들 새로운 치료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류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고 동양사상은 가르친다. 그러나 서양사상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유대사상(Judeo-Christianity)이나 그리스 철학은 이와 사뭇 다르다.

구약성서에 이르거늘 자연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라 (창세기 1장 28절)고 가르치고, 그리스 철인 Protagoras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다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했으니,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온 것이다.

인류 특히 서양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자연현상을 인간 중심사상(anthropomorphic view)으로 관찰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파생한 것이 anthropomorphism (神人同形同格說)이고, 사람은 피조물중의 으뜸(special creation or imago dei)이 되며 모든 species중 homo sapiens 만이 창조주와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것이다.

<12면에 계속>

미국은 合衆國이자 合州國이다

- 안락사와 대법원 판결 -

김 일 훈 <외대 51년 입>

요즘 미국국가를 호칭할 때 쉬운 발음을 써서 유-에스-에이(USA)라 흔히 부르며, "미합중국"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 United States of America는 주며 따라서 USA를 우리말로 엄격히 번역하자면 미합중국(美合州國)이 된다. 그리고 USA를 미합중국(美合衆國)이라고 부르는 말 또한 미국의 실체를 잘 표현한 어휘라고 하겠다.

미국헌법 첫머리 전문(Preamble)의 첫 번 글이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이라 되어있으며 "우리 합중국 시민(衆)이 — 여기에 헌법을 제정한다"는 헌법정신에 의해서, 미국을 구성하는 것은 시민이며 주(州)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잘 표현돼 있기 때문이다.

상원의원 수는 각주에 동일하게 2명씩 배당되지만, 각주의 하원의

원 수는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것이 주와 국민을 동등하게 대접한 실제 예일 것이다. 헌법조문의 서두에 있는 미국 권력구조는 3권분립(The separation of powers)과 더불어, 연방제도(federal system)아래 federal and state powers가 있어, 권력이 국민과 주에 다같이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합중국(국민을 대변하는 연방정부)이나? 또는 합중국(주 정부를 대변하는 연방정부)이나? 즉 "어느 쪽이 우선이나?"는 논쟁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일방적인 결론없이 지속되어 왔다.

미국의 여론과 연방정부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오리건주의 안락사(PAS : physician-assisted suicide=안락사)법에 대한 위헌(違憲)소송을 제 9연방 순회법원에서 기각한 사실도 그곳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 주정부

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이며, 이 판결에 대다수 미국국민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위에 말한 "우선 논쟁"을 두고 합의가 어려움을 말한다. 필자의 글 "안락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독자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다시 적어본다. 의사가 말기 환자의 소원을 받아 자살을 도울 수 있는 법이 1994년 오리건주의 주민투표에 의해서 통과되었다. 여기에 대한 반대여론이 미국에 들끓어 위헌소송이 제기되고, 처음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위헌이 인정됐으나 다음 순회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래서 1997년 세계 최초의 "안락사 법"(The Death of Respect Act)이 오리건주에서 발효되었다. 그리고 당시 오리건주 법무국장은 이 법을 발표하면서 "이 법은 환자에서 안락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

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한 견제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권한을 지닌 DEA(연방약물관리국, Th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Thomas Constantine 국장은 "오리건주에서 환자자살을 도와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약물면허증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위헌 문제를 염려한 Reno 미연방 법무장관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며 소관국장의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오리건주의 안락사 법은 확고부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위험천만한 PAS법이 전국에 확산될 것을 우려한 다른 여러 주에서는 PAS를 2급 살인죄로 다스리는 엄한 법을 제정했으며, 현재 37주(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에서 PAS를 주법으로 범죄 처벌하며, 10개주에서는 관습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에는 전번의 위헌소송과 정반대로, 이러한 "안락사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된데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주당국의 PAS 금지권한 합법인정"이란 판결을 내렸다. 이렇듯 상반된 법원판결에 대해 국민은 현혹할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 판결문에서 "미국인들은 안락

사의 도덕성과 합법성 등에 대해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할 수 있다"고 논급한 것처럼, PAS문제는 찬성하는 오리건주나 반대하는 여러 주의 주민다수결에 의해서 여론을 수렴한 각주의 독자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합축성이 담겨있다. 이것 역시 합중국과 합주국인 미국의 헌법 정신을 말해주는 판결문이라고 하겠다.

다인종사회의 복잡성과 고민을 안고있는 미국은 건국정신을 반영했다할 헌법에서부터 이러한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흑백논리가 스며들 수 없는 사회가 미국이다.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음식들이 한데 섞여져 맛을 내는 샐러드(salad)접시 내용처럼, 서로 다른 다양한 것들이 합쳐져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미국의 모습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지금부터 200여년 전 미국독립 당시의 건국 모토였던 "다양성 가운데 통일(E PLURIBUS IN UNUM)"이 바로 그것이다. 여론수렴이 힘들다 할 미국사회에서 이모토가 현대 미국을 지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정신"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이념이라 하겠다.

<11면 줄기세포와 인간복제서 계속>

이 견해가 절대화하여 dogma가 되고 이 dogma를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않으려 들게 된 것이다 (If you give an inch, they will try to take a mile).

Homo Sapiens를 Special Creation이고 타 피조물과는 질적(difference of kind)으로 다르다고 굳게 믿어온 기독교 신학에 있어 사람도 다른 species와 다를 것 없이 진화되어 왔다는 Darwin의 주장은 가장 큰 타격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창조론과 진화론 (Creationism vs Evolutionism)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유희설을 믿는 종교들에서는 (힌두교, 불교, Platonism) Human Genome project, 줄기세포 연구나, 치료 목적의 Human Cloning 등은 심각한 윤리 도덕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다. 또한 인류를 대자연의 일부로 생각, 자연의 일원으로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동양사상 특히 道敎에서도 이 연구들이나 진화론이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 것 같다.

냉혹한 과학적 事實은 미신을 타파하기도 하지만 많은 神話나 신비주의를 하루아침에 깨기도 한다. 이집트의 Khonsu, 아즈텍의

etzli, 그리스의 Selene 혹은 Artemis 신화에서 보듯이 女神으로 숭배되어왔다(달 연구를 Selenology라 함은 Greek Goddess Selene에서 유래함). Apollo 11의 landing Craft인 "Eagle"호를 타고 Neil Armstrong 과 Edwin Aldin이 달에 연착함으로써(1969. 7. 20), 오랫동안 신비에 싸였던 달은 이 태백이 놀던 달도 아니고 토끼가 방아찧고 계수나무가 있는 낭만적인 달로부터 먼지로 가득 찬 위성에 불과한 적막공간으로 바뀌었다. 과학적인 사실로서, 달이란 약 45억 년 전에 지구에 떨어진 큰 astroid에 의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고 직경이 2160 mile 자전과 공전기간이 꼭 같은 27.3일이라, 지구에서는 달의 한 쪽 면만 항상 보게 되고 중력이 지구의 1/6이라 체중을 공짜로 줄이려면 달로 가면 될 것이다.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현대 문명의 편의를 갖다주기도 하나 모든 궁극적인 문제들의 해답을 갖다주지는 못한다.

J. Rufus Fears 교수(Oklahoma대학)는 그의 저서 History of Freedom에서 자유의 다섯 가지 측면을 들기를 국가 민족의 자유, 개인, 경제적 자유, 양심의 자유 및 과학추구의 자유(알고자 하는 자유)를 거론했다.

21세기에 들면서 신의 원리를 믿지 않으려 하는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 진리는 전적으로 믿으려하고 있다고 Fears는 지적했다. 알고자 하는 자유(freedom of inquiry or scientific freedom)는 고대 Athens에서 시작했다고 보는데 앞의 대한 끝없는 추구 때문에 결국 자기 신세를 망친 전형적 예는 Oedipus에서 찾아 볼 수 있다(모르는 것이 약이란 교훈).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과학과 기술(두 가지의 차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의 발달로 예기치 않은 윤리도덕문제가 파생하고 있다. 낙태, 안락사, 인간복제, Human genome project, 원자력문제 등등이 이에 속한 문제들이다.

기독교 신학에 따르면, 조물주의 여러 속성중에는 전지전능(omniscience = omni + science). 造物主아말로 the first & the ultimate scientist이다. 조물주의 형상대로 사람이 특별히 창조되었다면(imago dei), 사람이 조물주를 닮아 과학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imago dei scientifica). 그러므로 과학추구의 자유는 신학적으로도 당연지사인 것 같다. 다만 과학을 응용한 기술이 문제이다. 생명이란 電磁力的의 표현일 뿐이다

(Life is nothing more than a manifestation of electromagnetic force)라고 하는 극단적인 환원론도 문제가 되지만, 인류를 special creation의 소산이라고 굳게 믿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하여 마구 짓밟는 인간 중심사상을 광신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IV. 맺는 말

필자는 진리는 두 극단 사이에 있다고 믿으며, 공자의 중용, 석가의 중도론 및 Aristotle의 Golden Mean을 받아들인다. 또한 "Truth will set you free" (John 8:32)라고 말한 예수의 말도 또한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speies에게 치명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한에는 과학 연구로 인류에게 갖다주는 혜택을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다.

이는 마치 기존의 신비를 깨지 않기 위해서 달 탐험과 연구를 막는다는 발전하는 인류의 앞길에 도움이 된다고는 할수 없는 것과 같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줄기세포 연구나 Human Genome project의 결실로 얻은 gene therapy도 할 수 있게 되어 지금으로서는 불치의 병인 Alzheimer, Parkinson, ALS, 당뇨병, 척추손상,

암 등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종족유지를 할 수 없게 되고 멸종의 위기에 처하지 않는 한 수많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reproductive human cloning은 하지 않는 것이 자연적이고 타당할 것이며 창조주께서도 이를 환영하리라 믿는다.

재미 동창회보 투고 요령

◇주제 및 내용:

- 동문들이 쓰고 싶은 어떤 주제나 장르.
- 시, 소설, 산문
- 전문분야 연구논문, 평론, 서평
-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원고 길이: 제한 없음

◇투고요령

e-mail 주소: snuaausa@snuaa.org

▶fax : 원고 (육필원고 혹은 타자된 원고와 사진을 꼭 보내주세요.) fax) 847-981-1465

▶자료우송 : SNAAAUS 790 Busse Rd., Suit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847)981-1464

◇원고마감일: 제한 없으나 그달 게재될 원고의 마감일은 매월 25일임.

한국 生命工學의 발전을 위한 나의 提言

김준현 <자연대 85년 졸, 뉴욕대 마운트사이나이대의대 교수, 생명공학>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첨단과학, 특히 생명공학의 발전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말로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정치 불안으로 당장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공학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제는 세계시장의 잣대로, 한국 생명공학 산업 기술 개발의 虛와 實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와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재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母國정부는 1967년도에 과학기술처(현 과학기술부)를 창설할 이래,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과학 기술 연구에 투자를 해왔다. 그래서 석유화학, 경공업, 제철, 반도체, 가전, 자동차, 조선등의 기술에서 수준급에 도달했다. 이 기간 동안 급속한 발전은 미주출신 과학기술자들의 공로가 있었으므로 가능했다고 본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난 15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한국은 과학기술 연구투자비에서 세계 11위의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내실적인 면에서 볼 때 기술집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소위 첨단산업기술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이렇게 된 이면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연구소 건물 설립, 확충등에 대부분의 투자비가 사용되었으며, 비효율적인 연구소 경영 조직, 창의적인 인력개발미흡, 국가종합 조정기능 및 평가제도미흡 등이 큰 원인이었다. 지금까지의 많은 투자로 이제 상당히 외형이 갖추어졌으니, 앞으로는 그것을 운영해 갈 인재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 동안 모국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재벌기업의 근래의 구조조정 후에, 산업부분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신기술 사업의 발전에 기반한 지식기반산업, 즉 지식인프라 구축 노력이 시급한 시기이다. 기존의 주력산업분야 및 부가가치 높은 정밀화학, 제약, 화장품, 생명공학, 생체공학, 환경 등의 신산업분야에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국내 및 국외에서 적극적으로 선발, 투입하고 계속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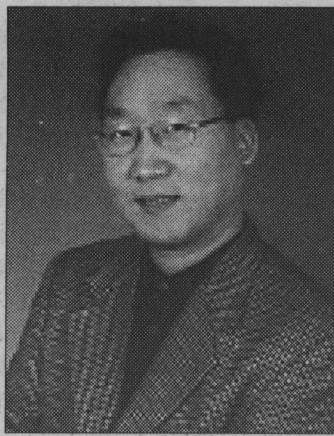
우리 앞에 다가온 수확체증효과로 대변되는 지식경제 세계에서 한국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로 무장된 지식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시기이다.

일례로, 인터넷시장은 1년이면 강산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나고,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성있는 우수인력 육성이 시급하다.

우리의 학교교육은 단순반복학습에 의한 암기로 대학입시, 국가고시에 높은 점수만을 따기 위한 교육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온 국민을 단일 규격화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제도와 관습으로 인해 바깥세상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성과 창의성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었다. 그 결과, 정부, 기업에 있는 전문가 집단의 총체적 부실로 말미암아 기술개발의 정체,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에서 결국에는 금융위기를 맞았고, 기업의 연쇄도산, 실업자양산으로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현재 방황하고 있다.

이제는 진정한 아이디어의 경쟁시대이고, 그 만큼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인력에게 기술 재교육을 계속적으로 시켜서, 기존의 상품에 새로운 기술을 결합시켜 훨씬 높은 가격을 받고 수출할 수 있게 유도해야하며, 새로 일하게 될 젊은 잠재인력들에게 다양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및 사회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즉, 앞으로 한국 및 세계시장에서 계속 전개되는 불확실성(리스크)을 분석하여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기술 경영



자의 필요성이 절실할 때이다. 이 신기술 경영자들은 첨단 기술 발전에 대한 통찰력과 수요 중심의 기술 발전 패러다임에 통달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미주지역에 있는 동문들은 신기술 경영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국가적인 생명공학정책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생명공학분야 우수인재의 발굴,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에게 충분한 연구비 지원 및 최고의 복지를 보장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생명공학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는 언론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 생명공학 연구인력 우대정책의 빠른 시일 내에 可視化를 통해 우리의 젊은 창의적인 인재들이 생명공학 분야에 많이 投身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근래 한국의 대학에서 실험실 벤처 창업이 급증하여 많은 대학 벤처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동물 복제 분야

에서도 모국도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와있다. 한국도 노력하면 미국의 빌게이츠, 일본의 손정의씨처럼 전세계를 선도해 가는 벤처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벤처기업은 적극적인 한국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다. 정부의 지원은 항상 행정지도, 규제를 불러오게 되어 있었고, 이것은 벤처기업의 원동력인 創意的 사고를 가로막게 되었고 관료주의화 되었다.

국제 경쟁력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료 주의화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미국 現地 시장의 사정을 훨씬 잘 아는 현지의 생명공학, 마케팅, 금융, 회계 등의 분야에 외부전문가들을 필요할 때마다 계약해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을 최대로 높이는 일이다.

美國의 경우, 全體 産業을 볼 때, 製藥과 생명과학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景氣變動의 影響이 相對的으로 아주 작고, 지난 20여 년간 製藥과 바이오 株式 價格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은 주지의 事實이다. 韓國이 아시아에서 再浮上하는 새로운 龍 한 마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極度의 高附加價値 産業인 바이오 産業의 발전에 대해서 國內外 同胞들의 積極적 支援이 필요할 때이다.

나는 여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美洲地域 總同窓會와 동문들과 관련 있는 회사 및 관련 조직들의 公的 資金 運用 및 소규모 투자클럽이나 동문 개인의 自發的인 財政的 投資부터 시작해서, 전세계에 퍼져서 자리 잡고 있는 同門들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바이오 벤처 캐피탈 事業(가칭 Dragon Bio-fund)의 推進이다. 近來에 筆者는 뉴욕의

바이오 專門 투자은행에 자문을 하면서 바이오 벤처 캐피탈의 重要性和 높은 成長性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이 바이오 펀드에서, 동문들은 본인, 본인과 관련된 법인이나 자녀들의 명의로 投資한 액수만큼 비례해서 새로운 바이오 벤처캐피탈의 株式을 配分 받는 方式을 생각해 볼 수 있다. 韓國의 바이오 産業發展에 지원을 한다는 동문으로서의 自矜心과 함께, 同門들은 株式 利潤 配分에 의한 長期的인 財政的 利得을 얻을 수 있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戰略이다.

또, 동문들은 有望한 한국과 미국의 바이오 벤처 및 製藥會社 등에 投資하는 바이오 펀드를 통해서, 長期的으로 自立할 수 있는 收益事業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收益金의 일부로써 투자에 참여한 동문 자녀 중에서 優秀 人材들에게 바이오 分野로 進出하는 것을 적극 激勵하는 뜻에서 바이오 獎學金도 수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며 외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산업분야에서 과학적인 사고가 스며들게 하여 기존의 기술을 개량하고, 많은 우수한 창의적 재능을 가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손들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그 일에 전념 할 수 있는 생명공학 우위의 사회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효율적인 기술개발 투자로 독자적인 일류 기술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우리는 금융위기 극복, 실업자 문제해결은 물론 세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머지않아 갖게 될 것이다.



場에 가는 行렬

松石李亨祿 (1808~?)

<紙本彩色>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바라없고 은화해 보이는 회색 하늘의 설경을 배경으로 황소를 앞세우고 장에 가는 행렬이 소박하면서도 다채롭게 그려졌다. 눈덮인 부드러운 땅과 그 위에 자라는 나무들이 근경을 이루고 울타리에 아늑하게 둘러싸인 초목과 그 쪽을 향한 사람과 말의 행렬이 중경을 차지한다. 그 너머 언덕과 들판, 그리고 먼 산 아래 아늑하게 들어앉은 몇 채의 집들은 모두 원근법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전체적으로 시원한 시야를 이룬다. 먼 산의 나무들도 조그마한 수직점으로부터 나타내어 겨울 산의 모습을 간결하게 보여 준다. 등에 각양각색 봇짐을 두른 말들 역시 여러 가지 색다른 차림의 주인들과 더불어 크고 작은 무리를 이루었고 말의 색채도 연갈색, 검은 색, 회색 등 보기 좋게 배치되어 있다. 인물을 그린 필선들은 가늘면서도 감각적이다. 송석 이형록은 19세기 중엽 화원이었고 官은 지구를 지냈으며 책가를 특히 잘 그렸다 한다. 그의 자는 汝通이며, 改名하여 李宅均으로도 알려졌다. <李成美>

SNUA OPINION LEADER

류머티스 관절염에 대한 蜂毒의 효과

봉침(蜂鍼) 관련 세계적 권위자인 李長憲(이장헌)교수. 그의 전공분야는 「통증 조절」이다. 1988년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 유학시절부터 침술을 이용한 통증조절 연구에 매달렸다. 이미 세계적인 의학지인 「페인(Pain)」에 「봉독 약침이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李교수로부터 봉독 치료효과에 대해 들어보았다.

류머티스성 관절염은 통증, 염증, 및 관절의 경직 등을 수반하는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골관절 질환 중의 하나로써 특히 중·장년층의 여성에서 그 발현 빈도가 높으며, 유전적 소인이 관여하는 자가면역체계(autoimmune disease)의 이상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장년 여성 발생빈도 높아

류머티스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임상 증상으로는 관절낭의 염증을 특징으로 하며, 초기에는 관절낭세포 및 주위의 혈관조직이 증생되고 임파구의 염증성 반응 등이 관여한다. 관절염이 진행하여 만성화됨에 따라 임파구의 침윤이 현저히 증가하며 괴사와 결절조직이 형성되면서 중국에는 관절과 골조직 등을 파괴시킨다. 따라서 관절염에서 나타나는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아스피린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프로스타그란딘 유도체의 생성효소인 COX억제제)와 코티졸과 같은 스테로이드성 약물(염증 세포의 침윤과 사이토카인의 생성억제)이 임상에 널리 응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약물들을 장시간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약물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위궤양과 출혈 및 신장독성이 있으며, 스테로이드성 약물인 구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의 경우 장기간 사용시 식욕증가로 인한 비만의 초래, 쿠싱신드롬(Cushing syndrome), 고혈압, 당뇨, 백내장, 및 골다공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체내의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널리 주지된 사실이다.

최근에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로운 관절염치료 약물들의 개발이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선택적인 COX-2 억제제와 같은 새로운 약물이 개발되어 곧 시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시간 투여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탁월한 소염 및 진통효과를 가진 치료제 및 치료법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간과 꿀벌이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아마 석기시대 중반인 약 BC 7천년 전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중국과 이집트에서는 적어도 4천년 전부터 양봉이 시작되었으며, 양봉의 산물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약 3천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벌꿀을 약으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이집트 의학을 기록한 에바

의 파피루스 고문서에서도 벌꿀과 밀납에 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에 이미 꿀과 밀납을 의약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봉독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수천년 전부터 하나의 민방요법으로 내려온 것은 사실이다.

오래 전부터 민간요법에서 신경통, 관절염에 특효라고 알려진 봉침요법(살아있는 벌에 직접 쏘임으로써 치료 효과를 보는 치료법)은 서양의학에서는 기원전 2천년경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와 바빌로니아 의서에 이미 봉독이 치료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고, 또한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봉독을 「Arcanum」 즉 대단히 신비한 약이라 소개하고 있다.

봉침요법에 대한 한의학적인 최초 문헌기록은 1973년 중국 장사 마왕퇴 3호 한묘에서 발견되었는데 기원전 168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책서(帛書)에 봉침요법 적용 예가 실려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봉독을 채취해 적절한 가공과정을 거쳐 피부를 통해 투여했는데 「양생방」에서는 봉독으로 처리한 닭의 근육을 대추기름에 개어 형질에 발라 두었다가 그 형질을 피부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투여했고, 「잡료방」에서는 봉독으로 처리한 개의 간(肝)을 식초를 용매로 사용하여 추출해 솜에 적셔 두었다가 그 솜을 피부에 대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봉독은 일반적으로 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나 일정나이에 도달하면 일정량의 독을 독낭에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봉독액은 상온에서 공기와 접촉하면 빠른 시간 내에 건조되며, 열에 매우 안정되어 있어 끓여도 그 특성을 쉽게 잃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봉독은 또한 산화성 물질에 의해 쉽게 파괴되며, 특히 알코올은 빠른 시간 내에 불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봉독의 추출법은 생벌을 개체별로 잡아 독낭을 쥐어짜 추출하는 방법인 채집법과 마취 전 꿀벌은 생리적으로 일정양의 봉독을 분비하는데 이것을 모아 채취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어 왔으나 채취량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채취방법으로는 순수한 봉독만을 얻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전기 추출법으로 봉독 채취

최근에 들어서는 고주파 전자기력으로 벌을 흥분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앓은 나이론이나 고무필름에 봉독을 분비하게 하는 방법인 전기 추출법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으로는 벌의 침이 상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채집이 가능하며, 높은 순도의 봉독을 대량 채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보급되고 있다. 봉독은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함유하고 있는 복잡한 혼합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주요성분으로는 펠리틴, 아파민, 및 아돌라핀과 같은 단백질과 효소성분, 히스타민 및 도파민과 같은 생

리 활성아민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최근 한의학에서는 종래에 사용되어 오던 재래치료법인 봉침요법을 봉독의 생화학적 약성 및 인체의 기혈 순행 노선인 경락학설을 결합하여 침치료점인 경혈에 주입함으로써 단순한 봉독요법보다 치료효과를 한단계 개선시킨 봉독약침(순수 봉독만을 추출하여 경혈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개발했으며, 이러한 봉독약침의 한방적인 치료기전은 일반적인 침의 효과와 더불어 봉독의 생화학적 약성의 자극으로 인한 치료 부위에 가벼운 열감을 일으켜 뜬의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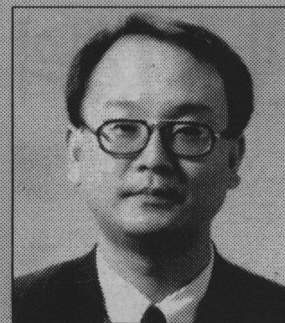
소염 및 진통효과 입증돼

최근 임상에서 이러한 봉독약침요법을 요통, 슬관절통 및 견관절통 등과 같은 통증질환의 치료에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환자에 따른 과민반응과 알려지 반응으로 인하여 소수의 의료인만이 임상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봉독약침이 임상에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봉독약침이 가지는 소염 및 진통효과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그 효능과 관련된 기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봉독이 가지는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선결과제이다.

최근에 본 연구실에서는 사람에게서 다 발하는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병성 및 유발기전이 유사한 다발성관절염을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유발시킨 후, 봉독이 가지는 소염 및 진통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국제통증학회가 발행하는 의학지인 「페인(Pain)」 최신호에 논문을 실었다. 이 논문에서 봉독은 관절염시 통증을 전달하는 척수 내 관련 신경세포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진통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염증반응을 악화시키는 체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소염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는 페인誌가 통증관련 최고 권위의 잡지인 만큼 우리 나라 고유 봉독약침요법의 치료효과를 국제의학계에서도 처음으로 입증 받은 셈이다. 또한 실험동물의 족삼리에 해당하는 혈자리와 살이 많은 등이나 엉덩이 부위에 근육주사 한 결과, 혈자리에 주사했을 때 10배 가까이 효과가 높게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실험적 입증은 경락의 존재도 간접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현재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실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봉독이 나타내는 소염 효과 및 진통효과와 관련된 기전에 대해 연구가 진행중이며, 2001년도에만도 이미 3편 이상이 국제학술지에 소개되었다. 따라서 봉독이 가지는 소염 및 진통효과에 대해서는 수차례 국제학술지에 논문발표를 통해 과학적 입증이 끝났으며, 앞으로 면역과 관련된 소염 효과가 있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암이나 에이즈치료 가능성도 조심스레 예상할



李長憲

- 1986년 모교 수덕대 수의학과 졸업
- 1988년 대학원 졸업 (석사학위)
- 美 미네소타주립대 졸업 (박사학위)
- 1993년 美 국립보건원(NIH) Alternative Medicine 연구비 심사위원
- 1994년 Southern Medical Journal 학술위원
- 모교 수덕대 생리학교실 교수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본 연구실에서는 봉독의 여러 성분 중 특정질환에 유효한 특이성분만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봉독이 나타내는 부작용의 기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효과는 배가된 봉독약침액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미 일부는 특허출원 중에 있다. 앞으로 봉독뿐만 아니라 다른 한약재를 추출해 경혈에 주입하는 약침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봉침요법과 봉독약침의 차이

그러나 「봉독이 무조건 몸에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봉독은 말 그대로 독(毒)인 만큼 심장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쇼크도 일으킬 수 있으며, 용혈작용도 있어 신장병 환자나 뇌혈관질환, 결핵,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사전 반응검사를 거친 뒤에 시술받아야 한다. 특히 살아있는 벌을 몸에 쏘이는 봉침요법과 봉독약침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봉독약침의 경우 봉독의 성분과 양을 표준화시켜 적정 용량의 투여가 가능하지만, 봉침요법의 경우 계절이나 벌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분비되는 봉독의 성분과 양이 매번 달라 봉독의 용량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국내의 동서양 의학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서로의 나쁜 모습만을 바라보고 헐뜯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듯이 「생명현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진심어린 충고와 예정으로 서로를 보듬어야 할 때라 생각된다. 이러한 학문의 분위기가 성숙되어 수천년간 경험적으로 치료효과가 입증된 한 의학을 과학적인 언어로 풀어낼 수만 있다면, 한국이 충분히 21세기 의학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본다. 봉독에 대한 연구성과는 그 중 아주 미약한 것 중 하나이며, 시작에 불과하다.

남가주지역 소식

추계 골프대회 성황리에 개최

금년 2번째로 열리는 추계 골프 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 11일에 개최되었다. 매년 추계 대회는 9월 중에 열렸으며 금년에도 9월 22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9월 11일 WTC테러 사건과 아프간 전쟁으로 인해 두 번씩 연기되는 상황 끝에 조금 성격을 달리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즉 장소를 Palm Desert Country Club(상대 72학년 조성상 동문이 운영)에서 Shot-gun 방식으로 하되, 지금까지의 단과대학 대학전 형태로 진행하던 단체전을 없애고, 휴양지의 장점을 살려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초청 형태의 개인전만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11월의 Palm Springs의 날씨답게 약간 따끈하면서도 아주 청명했던 날씨와 잘 가꾸어진 Semi-Private 골프장을 즐기러 온 동문들과 가족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L.A.에서 2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에서 처음 개최하는 골프대회였지만 총 89명이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새방식으로도 서울대 골프모임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골프가 끝난 후 Palm Desert의 골프장의 Club House에서 준비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이번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한 대회였으므로, 자신이 신고한 Handicap을 그대로 인정하여 점수를 계산하였고, 대회가 끝난 후 시상기준을 추첨(4 under)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상하였다.

MenWomen Medalist : 임종국(상대 70입)

rs. 김병서(법대)
Champion : 김건진(문리대 62입)
Mrs. 방준(의대)
1 등 : 박영서(Guest)이영혜(가정대 71입)
Closest : 최선정(상대 58입)
Mrs. 오흥조(치대)
Longest: 김재영(농대 62입)
Mrs. 이기준(법대)

또한, 시상식 중간 중간에 동창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경품들의 추첨을 통해 행운을 점치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털어버리고 참석자 전원이 흥겹게 웃고 즐거운 하루를 마감하였다.

<투고자 성주경 동문>



대회 시작하기 바로전에 전체 동문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다. 실제로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한 대회는 많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은 남가주 골프대회의 기록인 것 같다.

워싱턴DC 소식

워싱턴 DC 지역동창회는 8월 25일 개최되었던 조수미 동문 초청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결과를 실행 녹음하여 한정판으로 CD를 제작하였다. 이중 500개를 재미 총동창회에 보내어 재미동창회보 발간을 위한 관악후원금과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워싱턴 DC 음악회는 음악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이었고, 동창회 사업으로서도 대성공이었다. DC 동창회는 이 기금과 CD 관리를 위한 특별기금관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 위원장은 방은호(약대) 동문이며 위원으로는 정우순(사대), 전희정 문성길(의대), 오인환(문리대), 현희장 진금석(약대) 및 이영복(공대)동문 등이다.

동 위원회는 이 CD 중 200개 (\$ 3,000 상당)를 관악후원회에 300개 (\$4,500 상당)를 백만불 기금 위원회에 기증하기로 결정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얻었고, 11월 21일 이를 재미 총동창회 이용락회장에게 속달로 우송하였다.

이 CD는 그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조수미 애호가들의 필수 소장품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동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교포들에게도 대단한 인기인데 그 가격은 1장당 \$15이다. 이 CD는 연말과 새해를 앞두고 귀한 선물 품목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조수미 CD, "Love from Washington"은 약 70분 길이로 19곡의 아름다운 노래가 담겨 있다. 수록곡은 Rossini의 "약소, 방금 들린

그 목소리", Verdi의 "아! 바로 그대인가, 언제나 자유롭게", Gounod의 "세레나데", Handel의 "나를 울게 버려두오", 그리고 우리 가곡 "보리밭, 그리운 금강산, 그대 있음에, 정산에 살 리가, 진달래꽃", 흑인영가 "Amazing grace", Bernstein의 "Dream with me" 등이다.

모교의 장래 발전을 위한 마음과 사랑으로 이번 음악회의 대 성공을 가져오도록 한 우리의 보배며 자랑인 조수미 동문, 그리고 수고를 감수하며 협조한 동문들과 처음부터 마



지마가지 이 일의 성공에 정성을 다한 문성길 전임회장에게 힘있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투고자 방은호 동문)

조수미 음악회 CD제작 모교와 총동창회에 기여

祝 發 展

在美서울大 총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

남가주 지역 동창회

회장 : 이청광(상대)
총동창회 평의원 : 오흥조, 방석훈, 서영석, 이명상, 이청광, 임나균
직전회장 : 서영석(의대)
수석부회장 : 임나균(약대)
부회장 : 김혜인(가정대), 최윤복(간호대), 원광웅(공대), 김재영(농대), 최추봉(대) 유동웅(문리대), 꺾 철(법대), 김남철(사대), 지인수(상대), 김 영(수의대) 정만영(약대), 홍옥자(음대), 임 번(의대), 한중철(치대)
총무국장: 김지영(사대) 재무국장: 성주경(상대)
사업국장: 이영혜(가정대) 기획위원장: 이종도(공대)
경기준비위원장: 최재현(수의대) 경기운영위원장: 노순철(사대)
운영위원장: 박해옥(간대) 자문위원장: 이복한(법대) 감사: 윤병인(의대)
감사: 김경부(공대)

상임이사(약대 동창회장)
오재인, 이기준, 정원훈, 차종환, 권길상, 오형원, 박성길, 임종문
손수웅, 신보남, 장동호, 권혁창, 이병준, 전희택, 박병기, 이명상
방석훈, 오흥, 서영석

단과대학별 회장 가정대: 윤순재 간호대: 김수향
공 대: 정 황 농 대: 이승우 문리대: 한태호
미 대: 성수환 법 대: 이창신 사 대: 전송택
상 대: 심상은 수의대: 강동원 약 대: 김진호
음 대: 이순희 의 대: 김일영 치 대: 이장길
대학원: 최추봉

뉴잉글랜드 소식

뉴잉글랜드 친선 골프대회 성료 수익금 장학사업과 한인단체 보조금으로 사용

뉴잉글랜드 친선 골프대회가 재미 서울대학동창회 뉴잉글랜드 지역(회장: 이재신동문, 공대 57입) 주최로 2001년 10월 20일 매사추세츠 보스턴근교의 River Bend CC에서 있었습니다.

뉴잉글랜드의 가장 좋은 계절에 푸른 잔디에서 펼쳐진 골프대회에는 지역 각 단체의 60여명의 골퍼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경기후에는 4인조 악단의 밴드와 함께 동창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저녁을 즐겼습니다.

특히 뉴잉글랜드의 여러 식당과 단체에서 기증한 푸짐한 상품으로 Raffle을 하여 얻

어진 1000여불의 수익금은 한인단

골프대회를 마치고 나서 주관한 임원들이 함께 사진 촬영.



체에 대한 보조와 장학사업에 쓰여지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예년에는 대학동창 친선골프대회이었으나, 올해에는 참가범위를 넓혀 대학 동창회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의 여러 단체, 교회 팀도 초청하여 거행하였습니다.

올해 우승은 뉴햄프셔팀이 했습니다(아래의 골프대회 결과 보고서 참조, 투고자 변종원 총무).

뉴잉글랜드 친선골프대회 결과보고서

본 동창회 주최로 지난 10월 20일 화창한 가을 날씨 아래 거행된 골프대회가 친선도모와 기금모금의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것을 보고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대회가 범 뉴잉글랜드 한인사회의 행사가 되게끔 뉴잉글랜드 지역 내의 각계각층을 대표하여 참가한 13개 단체팀 (총 52명의 남녀 golfers)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상품과 현금으로 지원하여 주신 한인회 등 30여개가 넘는 사업체와 개인에게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예산을 넘는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단체 팀 우승에는 뉴햄프셔팀,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팀과 보스턴 장로교회팀이 각각 준우승과 상위를 하였습니다. 남녀 개인별로 다수의 종목별 수상자도 났습니다. 대회 경비로 \$5,910을 지출하였고, 수입금은 스폰서 현금 보조 \$2,550과 auction 수입 \$862을 합해 총 \$7,052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잔금 \$1,142은 노인회와 장학기금에 보조에 쓰일 것입니다. 끝으로 대회가 순조로이 마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와 당일 진행을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1년 10월 22일

뉴잉글랜드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장 이재신
뉴잉글랜드지역 친선 골프 대회장 정정욱

보스턴 한미노인대학 지역동문들 노인복지 기여

뉴잉글랜드 전 동창회장 박경민(의 53입)동문은 한인 연장자들의 복지향상과 정보교육을 위하여 『보스턴 한미노인대학』을 창설하여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노인대학은 2-3개월마다 교육강좌를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여 봉사하고 있다. 10월 27일의 제 15회 강좌에는 강길원(의대 59입, 의학박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전임강사 및 Lowell general Hospital 산부인과 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산부인과를 개업중임)동문이 강사로 참여하였다.

이번 제 15회 강좌는 금년으로서는 마지막 강좌였다.

매년 5차례씩 올해로 3년째 강좌를 가져 왔는데, 이 지역의 한인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지 프

로그림의 하나로써 건강문제, 금융관계 및 투자 방법, 등등에 관한 다양한 제목을 다루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보스턴 성결교회에서 열린 이 강좌에서 교장인 박경민 동문은 "이제 3학년을 마치게 되었고 내년이면 개설이래 4년을 맞아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의 노인대학의 강좌에는 뉴잉글랜드 지역 동창회 이재신회장(공대 57입)이 참석하여 지역동창회에서 주최한 "뉴잉글랜드지역 한인 골프대회"에서 모금한 \$500과, 이회장의 개인 기여금 \$500등 총 \$1,000을 노인대학의 운영에 써 달라고 전달하였다.

<투고자 윤상래 특과원>
(편집자 주: 92호 17면의 "자랑스

보스턴 한미 노인대학
제 15 회 강좌

2001년 10월 27일 (토) 오후 1시
보스턴 성결교회
276 Old Billerica Rd.,
Bedford, MA 01730
(781) 275-8233

보스톤 한미노인대학

런 2세들" 기사는 "윤상래 특과원"이었음을 밝힙니다.)

<부고> 정정욱 동문(의대 60입) 母親喪

정정욱동문(의대 60입, 현재 브라운대학교 의대교수이며, 뉴잉글랜드지역 동창회 부회장)의 모친이신 김옥춘여사(1914년 10월 27일 - 2001년 10월 28일)는 오랜투병끝에 8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다. 故 김 여사는 1914년 10월 7일 부친 故 김수관님과 모친 故 정영모님의 외동딸로 출생하여 순천 보통 국민학교와 광주 수피아여고를 졸업하였고, 1931년 9월 25일 정재홍님과 결혼하셨다. 김여사는 수년동안 순천여자중고등학교 사친회 회장을 역임하시며 지역사회에 봉사하였다. 또, 김여사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교회활동에 열성적이시었고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하시어서, 세계를 위하고, 나라와 가족, 친구들을 위해서 4.5시간씩 기도를 하시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며, 매년 크리스마스 행사 때마다 입었던 고운 옷을 입으시고 숨을 거두시었다. 장례식은 11월 1일에 많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제일 한인 교회에서 있었다. 정정욱 동문은 고향 날씨임에도 많이 와주시는 조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직업적으로 많이 죽은 사람을 보아오는 나로서 (현재 병리와 전문의사),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든 것은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인생이 너무도 짧은 것을 느끼게 하였다"고 하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서로 즐기고 또 사랑을 하면서 살아 갈 것을 결심하였다"고 말하였다. 김여사의 유족으로는 장남이신 정정욱동문 외에 5분의 따님과 손자, 손녀 14명, 증손자 4명이 있다. 재미 총동창회는 정동문과 유족여러분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투고자 : 윤상래, 변종원 동문)



모친 생존시의 정정욱 동문의 가족.

뉴욕 소식

뉴욕지역 서울대 동문음악회

아름다운 음악으로 3백여 청중 매혹

뉴욕지역 서울대 동창회(회장 한창섭)가 지난 11월 3일 뉴욕시 맨하탄에 소재한 머킨 콘서트 홀에서 주최한 음악회는 약 300여명의 동문과 친지들을 매료시켰다.

2시간 10분동안 계속된 이번 음악회는 뉴욕 동창회가 주최한 네 번째 음악회로 첫 순서로 크라리넷의 김하나, 비올라의 성기선 그리고 피아노의 주희선이 연주한 모차르트의 "Trio for Piano, Clarinet and Viola in Eb Major KV. 498" 이었다.

두 번째 순서는 소프라노 이정민 양이 청순하고 폭넓은 음성으로 부른 슈베르트의 "Girtchen am Spinnrade, Die junge Nonne" 와 H. Duparc의 "Soupir, Chanson triste"이었는데 문은미 씨가 피아노 반주를 하였다.

세 번째 순서는 허난씨의 푸르트 독주로 Bizet Franqois borne의 "Fantaisie Brillante sur Carmen" 이었다.

네 번째 순서는 바리톤 영경목씨가 무게있고 웅장한 음성으로 스트라우스의 "Du meines Herzens kroenelein"과 M. Ravel의 "Don Quichotte a Ducinee"를 불렀으며 역시 문은미씨가 피아노 반주를 하였다.

끝으로 이번 음악회를 크라이막스로 장식한 모차르트의 "Clarinet Quintet in A major KV. 581" 로 크라리넷의 김하나, 바이올린의 김현아, 최지나, 비올라의 성기선과 첼로의 양욱진이 연주하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에 청중이 완전히 도취되었다.



2001년 서울대 음악회를 위하여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과 비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회장 : 김기원
 - 의사장 : 주혜숙
 - 차기회장 : 양숙영
 - 간사 : 김영주
- 이사회 및 단체대표 후원회원
이수호 (대학원), 남영(원도), 김민기(광대), 송용삼(농대), 권영수(문리대), 조기원(이대), 윤영남(신대), 최승용(상대), 장영진(명대), 장기호(한대), 김민기(한대), 이영진(한대), 김민기(한대)
- 후원회사 및 후원자
J.Dent's Bank of New York, New York Club Center, New England Societies, Kibo Restaurant, Korea Forum International, E.A.C. Trading, Inc, Hans International, Inc., Do H. Chung and Partners, Alco Lock & Safe, Inc., 임기영(에이노스), 코스타스 부동부, 권유리(부동산), 박정환(주식), 정경수(부동산), 최영진(주식), 최영진(주식), 최영진(주식)

음악회가 끝난후 한회장이 배분 리셉션에 연주자 전원과 10여명의 동문과 친지들이 참석하여 이날의 음악회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뉴욕동창회 이사장인 추재옥바사는 "이번 음악회가 너무나 수준높고 서울대의 위상을 올려준 행사였다"고 평하고 "만일 월드 시리즈 경기만 없었으면 약 100명은 더 참석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였다.

SNU ALUMNI ASSOCIATION PRESENTS
SNU Concert 2001

HERKIN CONCERT HALL
90 Abbotson Court/Hudson at 129 West 42nd Street, New York City
SATURDAY, NOVEMBER 3, 2001 AT 8:00 PM
TICKETS \$40 & \$20
Herkon Concert Hall Box Office (212) 502-2330
SNU Alumni Office (212) 594-6493 • (720) 777-7679 • (201) 943-1234

PROGRAM
Saturday Evening, November 3, 2001, at 8:00 PM
SNU CONCERT 2001

W. A. Mozart - Trio for Piano, Clarinet and Viola in Eb Major KV. 498
Ashkenazy, Mendelsohn, Ronda, Allegretto
Hanna Chu, Piano / Isaac Kim, Clarinet / Hyeon Jung, Viola

F. Schubert - Girtchen am Spinnrade
Die junge Nonne
Song, Chanson Triste
Jung Min Lee, Soprano / Sunmi Moon, Piano

Bizet Franqois Borne - Fantaisie Brillante sur Carmen
Hui Hui, Flute / Hyeon Chu, Piano

Intermission

M. Ravel - Don Quichotte a Dukinee
Le Chant du Tournoyeur
Le Chant du Tournoyeur
H. Chanson a boire
Hyeon Moon Sun, Soprano / Sunmi Moon, Piano

W. A. Mozart - Clarinet Quintet in A major KV. 581
Allegro
Larghetto
Menuetto
Allegro con Moderato
New York, Clarinet: Hyeon Chu, Isaac Kim, Hyeon Jung, Viola / Hyeon Jung, Cello

인사말씀 3

9.11 세계무역센터 참사 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동문 여러분과 뜻있는 뉴욕 교포들의 후원하에 제 4회 뉴욕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음악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음악은 지통을 고칠 수는 없다"라는 서양 격언이 있지만 음악이 많은 고통을 덜어 주고 또 위로를 달래 주며 슬픔을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음악이 이 세상에 없다면 얼마나 이 세상은 삭막할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기쁘고 평안할 때도 필요한 것이며, 또한 슬프거나 어려울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뉴욕지구 서울대학교동창회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 번에 걸친 음악회는 오케스트라의 출연으로 비서울대 음악인이 참여하였지만 이번 음악회에는 뉴욕 지역에 거주하는 서울대동문들이 출연하는 그야말로 100% 순서울대동창회음악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음악회를 성사시킨 배경에는 봉사 정신으로 출연해 주신 음악대 동문들과 이 음악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뉴욕동창회 음악위원회 위원들, 프로그램에 광고를 쾌히 내주신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의 어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각 단과대학 동창회장님들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특별히 오늘 미국생활에 바쁘신 중에도 이 음악회에 참석하신 여러 동문과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즐거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번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1년 11월 3일
뉴욕지구동창회장 한창섭

저는 미국인들에게 서울대학교를 'Korean Harvard'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사실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이 하버드대학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 자랑스런 모교의 동문들이 무대의 연주자로, 또 객석의 청중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고국을 떠나 이역의 이 땅에서 인생의 새 장을 개척해 온 우리들이 지성과 재능을 수련해 온 음악대학 동문들의 연주를 감상하게 되어 오늘 이 자리의 의미가 더욱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악'(음악)을 여러 개의 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주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 플루티넷, 트롬بون, 그리고 성악까지 다양한 음이 오는 무대에 섭니다.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을 뿌리로 살고 있는 미국에서 최근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저는 여러 음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음악회는 서울대 동문가족들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우리의 정서를 수양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대 음악회가 더욱 빛을 발하며, 세계 정상급의 음악인들을 발굴하고 배출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우리 동문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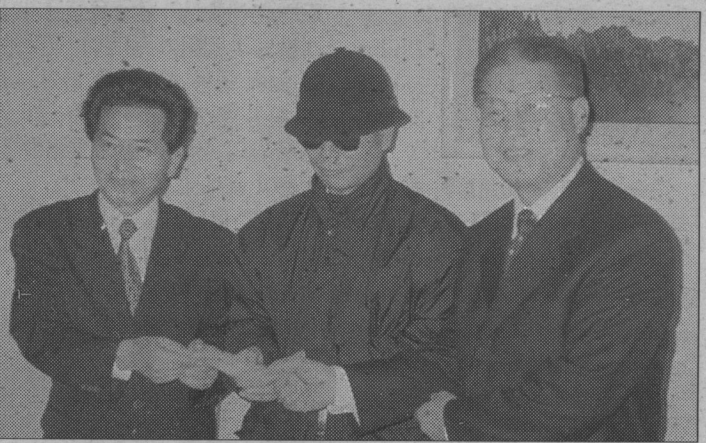
2001년 11월 3일
뉴욕지구동창회 이사장 추재옥

탈북 난민 돕기 자선음악회 수익금 연변 선교사역에 사용

서병선동문(음대 65입, 사진 좌측)이 회장으로 있는 뉴욕 예술가 곡연구회는 9월 30일에 열린 자선 음악회에서 (재미동창회보 91호 20면 관련기사 참조) 모금한 수익금 \$6,000을 연변에서 탈북 난민을 위해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최요섭선교사에게 난민구제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도록 전달하였다.

이 음악회는 9.11 테러사태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5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동포애를 발휘하기 위한 이 자선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게 하였다.

최요섭 선교사(사진 중앙)는 연변에서 11세, 12세, 13세 되는 여



린 여자 아이들이 인신 매매단에 의해 팔려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되는 생명들을 구출하여 삶의 길도 열어주시고 바른 교육도 시키시어 인간 육성을 시키시므로 희망을 열어주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 (투고자 : 서병선동문)

뉴욕지구 서울대 동창회 송년파티

12월 22일 토요일 6시 NJ 대원각

뉴욕지역 동창회는 연말 송년파티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며 소음악회도 같이 열릴 예정이오니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뉴저지에 있는 대원각
700 Palisadium Dr. Cliffside Park, NJ 07010
전화 201-224-2211
회비 : 1인당 1백달러
연락처 : 한창섭회장(전화 212-594-0493)

뉴욕지구 서울대학교동창회 회장 한창섭

9.11 참사에 관한 작문 경시대회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에서 학부모님들께 알리는 말씀 !!
9.11 참사에 관한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나, 자제분들의 친구들의 소감을 담은 에세이 공모후 책자 발간하려 하오니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청소년들이 에세이 창작과정을 통해서 정신적 안정과 위안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제목 : Where were you on September 11, 2001 ?
- ▶ 분량 : 8×11, 2 pages 이상
- ▶ 대상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전민족)
- ▶ 마감일 : 2002년 3월 31일
- ▶ 시상일 : 2002년 5월 제단 제 9주년 창립일
- ▶ 상금 : 1등 \$2,500 / 2등 \$1,500 / 3등 \$1,000
- ▶ 보내실곳 : Joon J. Bang, M.D. P.C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판권은 재단이 소유합니다.)

미주한인 청소년 재단 회장 방준재

뉴욕지역 소식

허리훈 동문 뉴욕마라톤 완주

청소년 모국방문 기금 2만여달러 조성

허리훈(63)동문 (사진·전 뉴욕총영사이며 현재 본국 외교통상부 본부대사)가 4일 열린 뉴욕 마라톤대회에서 작년에 이어 전 구간을 완주하며 노의장을 과시했다.



올 2월 뉴욕 총영사를 퇴임한 후 8개월만에 뉴욕을 다시 찾은 허 전 총영사는 이날 스테튼아일랜드 베라자노 다리에서 출발, 쿼츠와 브롱스를 거쳐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에 이르는 26.2마일을 4시간 20분대에 주파했다. 허 동문의 마라톤 출전은 지난해

부터 시작한 뿌리교육재단(KAYAC)의 한인 1.5세와 2세들의 모국방문사업 기금 모금행사를 겸한 것으로 이날 완주를 통해 구간 마일당 약정금액으로 모아진 총 2만여 달러에 달하는 KAYAC 기금을 조성했다.

우륵 챔버 오케스트라

(Ureuk Chamber Orchestra) 연주회

이준무(음대 65년 입) 동문을 비롯하여 조공자(음대 73년 입), 이유정(음대)

동문이 회원으로 있는 The Ureuk Chamber Orchestra가 지난 9월 15일 이번에 Season의 첫 연주회를 가진데 이어 12월 2일 2번째 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첫 번째 연주회에서는 메조 소프라노 조공자 동문이 "Manuel de Falla의 El Amor Brujo"에서 열창하여 관중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두 번째 연주회는 오는 12월 2일 저녁 8시 Merkin Concert Hall (129 W. 67th St. NY)에서 개최된다. 동 연주회에서는 이준무 동문의 지휘로 Brahms의 Symphony No. 4,

베버의 Overon 서곡 그리고

Brahms의 Cello와 Violin을 위한 이중 협주곡이 연주된다.

이유정 동문은 모교에서 김남윤 교수에게 지도를 받았고 줄리아드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현재 Maryland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학 중인데 그의 바이올린 연주가 크게 기대된다.

많은 동문들의 성원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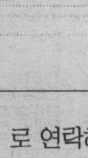
연주회 입장료는 \$30이며, 티켓 구입은 Box Office (212)501-3330, 연주회관련 문의는 (201)888-4875



Ureuk CHAMBER ORCHESTRA CHRISTOPHER J. LEE, CONDUCTOR

Sunday December 2, 2001 at 8:00 PM

Merkin Concert Hall 129W 67th St. NYC CONCERT INFORMATION (201) 888-4875 Tickets at Box Office (212) 501-3330 \$10



로 연락하면 된다.

뉴욕지역 추계 동창회 골프대회 성황리에 개최

뉴욕지구 서울대 동창회가 매년 주최하는 추계골프대회가 10월 25일 뉴욕근교에 있는 Philip Rotella 골프코스에서 동문과 가족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주중이라 많은 동문들이 참가하지 못하였으나 쾌청한 가을 날씨에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면서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좋았다고 한창섭회장은 이날 골프대회를 평하였다.

동문 31명과 부인 4명이 참가한 이날 경기는 핸디캡 별로 4조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는데 핸디캡 14이하 A조, 핸디캡 15-20은 B조, 핸디캡 21-26은 C조 그리고 핸디캡 27이상은 D조가 되었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A조 챔피언은 공대출신인 손영철 동문(81타), B조 챔피언은 약

대 출신의 최구진 동문(83타), C조는 사대출신의 김종을동문과 공대출신의 김현기 동문이 각각 92를 쳐서 공동 챔피언이 되었고 D조 챔피언은 95타를 친 문리대 출신 75세의 정택수(골든 클럽회장) 동문이 차지하였다.

크로스핀상은 공대출신의 손영철동문 그리고 장타상은 공대출신의 방수철동문에게 돌아갔다.

이날 참가상은 서울대학 로고가 있는 골프공 6개씩 주었는데 농대출신의 이진구 전동창회장이 기증하였고 챔피언상등은 추재욱 동창회이사장, 한창섭회장 그리고 이수호 대학원 동창회장의 찬조금으로 마련하였다.

추계 골프대회는 춘계 골프대회보다 소규모로 운영되며 어떤 해에는 경우에 따라 개최하지 않을 때도 있다.

癌으로 투병중인 유희길 동문을 살립시다



유희길 동문의 적합한 혈액형 타입을 찾기 위해 헌혈에 나선 뉴욕 교민들. 감사합니다.

◇연락처: 이경림 동문, 전화: 212-768-9144, 212-385-5157, Fax: 212-768-4494 사진을 보내주신 한국일보 장래찬 기자에게 감사 드립니다.



미국의 慈悲心...추수감사절에 運 좋게도 대통령에 의하면 버지니아 동물원으로 방면되는 터키.

祝 發 展

在美 서울大學校 총동창회

뉴욕 지역 동창회

회장 : 한창섭

재미총동창회 평의원 :

윤정욱, 김영덕, 권태전, 최수용 한창섭, 최철용, 이진구

이사장 : 추재욱

차기회장 : 김종을

감사 : 김창수

대학원 및 단과대학 동창회장단

대학원 : 이수호

간호대 : 남상래

공 대 : 김현기

농 대 : 송용섭

문리대 : 한경수

미 대 : 조기현

사 대 : 윤병남

상 대 : 최수용 법 대 : 강석권

약 대 : 성기호

의 대 : 서인석

치 대 : 이성길

음 대 : 김인석

필라지역 소식

연말총회 개최

필라지역 동창회(회장 강영배: 수의대 63 졸)는 연말파티 및 총회 준비를 위한 임원회를 10월 16일 삼원가든에서 가졌다. (총회 및 연말파티 일전은 아래 광고 참조)

흥, 경품, 기념품 등에 관해 세부 사항을 토의하였다 .

장소, 날짜 회원내용, 동원, 여

수의대 동문 주소록 배포

미 동부지역 수의대 동창회는 수의대 모교 총동창회 (회장 이우재 58년 입)에서 발행한 2001년도 회원명부(전체 319면으로 수의과 대학 연혁, 총동창회 연혁과 조직 및 전체 동문명단과 주소가 수록됨)를 동부 지역에서는 11월 1일부로 각 회원들에게 우송한 바 있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은 동창회로 연락을 바란다.

이와 함께 소정의 장학기금을 모금하니 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모금관련 아래 광고 참조).

연락처 : 동부-김문소 회장 978)851-3626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

서부 - 강동원 회장 760)631-2080
캐나다 - 김기구 회장 416)767-9085

필라동창회 총회 및 송년파티

서울대학교 필라지역 동문님께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 자랑스런 동문들에게 인사드립니다. 희망과 기대와 새 의욕으로 시작된 새 천년을 맞은 지 얼마 되는 않은 지난 9.11 테러사태로 우리가 꿈을 안고 안주하게 된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대, 더욱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는 정이 그립습니다.

우리 동문회의 전통에 따라 총회 겸 연말 파티를 준비하고 초청합니다.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동문인 서울대 동문여러분, 동창회라는 구심점을 향해 모두 참여하십시오. 참여는 힘을 내고 힘은 새로운 일을 하게 합니다. 이번 회장단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 장학사업을 시작했으니 같이 참여하시기를 호소합니다.

각 단과 대학 별로 한 분도 빠짐없이 연락하시고 또 주위의 동문을 아시면 권고하여 함께 나와 서울대 망국론도 성토했고, 춤과 노래, 장기자랑도 하시면서 좋은 음식도 나누고 전 회장단이 발행한 "필라 춘추"와 기념품도 받아 가시며 기쁘고 보람있는 연말 파티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2001년 11월 1일, 회장 강 영 배 올림

- 2001년 송년 축하 파티 -

일 시 : 12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장 소 : Lai Lai Restaurant (Blue Bell)
참가비 : 일인당 \$50.00 (유학생 \$25.00)

연락처 :

강영배 회장 - 610-623-8560(Work), 610-651-7834(Home)
주기목 총무 - 215-745-9030(Work), 215-938-1097(Home)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문 명부 배포 및 장학금 모금

회원님께

안녕하세요. 9월 11일 사태 이후로 어수선한 이 지을 가내 두루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2001년 10월 13일 "모교 찾는 날"을 기념하여 모교 동창회에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 2001년 회원 명부"를 많은 우송료를 들여 저희 동부 동창회에 50부를 보내왔습니다.

이곳 재미 동부 동창회에서 적으나마 성의를 모아 회원 명부 발간비와 우송료 및 모교 장학금 보조를 고려하여 12월 15일 까지 여러분의 협조(50불 이상) 부탁드립니다.

연말과 새해에도 하나님의 가호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하오며, 또 연락 드리지요.

2001년 10월 22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미 동부지역 회장 김 문 소

총무 주기 목 드림

*수표 보낼 곳 : Payable to SNU Vet. School Alumni Assoc.

Dr. Gregory K. Joo / Cottman Animal Hospital 1012 Cottman Ave., Phila., PA 19111

차광순 동문 喪配

차광순(사대 70년 졸, 현 주 시카고 총영사관 교육원장) 동문의 부인 이두우(1949. 11. 15- 2001. 9. 29) 여사께서 차동문과 함께 평소처럼 주말의 관할지역내의 한국학교 순방 지도 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신콘신주 메디슨한국학교를 방문중 불의의 교통 사고로 52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고(故) 차여사는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송리에서 이흥근님과 장만순여사의 4녀로 출생하여서 오산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내에서 26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하였고, 오산여상고의 동창회장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였으며, 재임 중에도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시고 우수교사로 문교부장관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1976년 4월 24일 차동문과 결혼하여 99년 9월 '99년 9월 시카고로 부임하는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와서 지난 2년 동안, 본국에서의 교사 경험을 살려 차동문과 함께 자녀들을 위한 재미교포 한국학교 교육에 전력해 왔다. 인자하고 자상한 성품으로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소속된 성당, 시카고지역의 모든 한국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모임에서도 많은 일을 맡아 하며 또 지도해 왔다.

장례미사 및 고별식은 2001년 10월 3일 시카고 대건성당의 김영태(요셉)신부의 집례로 Smith Corcoran Funeral Home (Palatine, IL 소재)에서 거행되었는데 대건한국학교 학생의 추모연주 및 시카고지역 한국학교 교장단의 弔歌속에 400여명의, 同門, 교민, 한국학교 학생과 관계자들이 애도 조문하였으며 대건한국학교 교사들은, "늘 기도하며 충만하셨던 선생님의 평소 말씀이 우리 학교의 밑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사(세례명) 선생님의 뒤를 따라 저희들이 참되고 거룩한 교사의 길을 감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삶의 길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라고 弔詞하였다. 유해는 경기도 안성 천주교회 묘지에 안락하였으며 유족으로는 부군인 車동문, 딸 지혜양과 아들 지훈군이 있다.

車동문은 참례한 동문 및 조객들에게 보낸 인사편지에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왕립하시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을 위하여 불심양면의 도움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하였다. 재미 총동창회는 車동문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 생존시의 한글학교 순방중인 차동문 부부.

시카고지역 소식

시카고지역 동창회 2001년도 총회 및 연말 Party

시카고지역 총동창회 (회장 조대현, 공대 61년 졸)는 11월 24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시카고 근교 Lincolnwood에 소재한 Radisson Hotel에서 2001년도 총회 및 연말 Party를 가졌다.

100여명의 동문, 동문가족 및 장학금수혜자가 참석하였다. 이지역 초대회장의 건배로 시작된 만찬이 있은 후 강영국 부회장(수의대 67년입)의 사회로 총회가 개최되었다.

먼저 김미나 동문(음대 '87년 입, 피아노)와 이승신 동문(음대 95년 입, 클라리넷)의 "La Traviata Variation" 연주로 분위기를 정리하고 막간을 이용해 워싱턴 DC 지역동문회에서 제작한 조수미 동문의 CD "Love from Washington"의 판매가 있었는데 재미총동창회 임원부인들의 적극적인 판매로 좋은 실적을 올렸다.

김정주 동문(문리대 64년 졸)의 부인인 김성자 여사의 선장으로 교가제창이 있은 후 총회에 들어갔다. 조대현 회장의 인사(열참조)에 이어 재미 총동창회 이용락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배중면 동문(공대 85년 입)의 사업보고, 전현일 재무(농대 66년 졸)의 재무보고, 박종희(의대 75년 졸) 장학금 관리위원장의 장학금 보유현황보고 및 송순영 감사(문리대 52년 입)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에 이어 양홍미 (약대 67년 졸)간사의 장학생 선발보고가 있은 후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장학금 수혜자는 김승은(College of DuPage), 노은정(The Julliard School), 이태미(University of Pennsylvania), 안호진(Northeastern Illinois University), 김소영(North-



장학금 수상자와 조대현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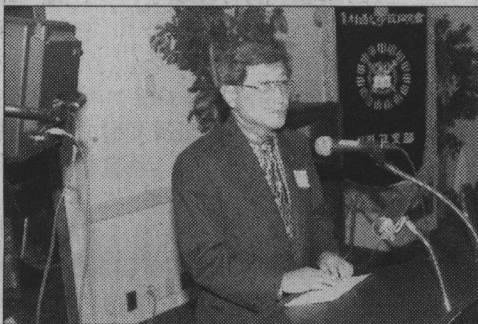
<사진제공=한국일보 이형준동문>

western University 박사과정) 및 오근찬(University of Urbana/Champaign 대학원) 등 6명이며 각 \$1,000씩 지급되었다. 특히 장학생중 3명의 자녀를 데리고 정치학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김소영동문과 지체부자유자인 안호진 장학생는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차차기 회장 겸 차기수석부회장에 장기남(문리대 62년 입), 차기부회장에 김동희(공대 70년 졸) 황치용(문리대 69년 졸), 차기 감사에 이수인(의대 63년 졸) 전현일 동문을

인준 선출되었고, 조대현 회장은 임기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해준 전임 회장 김정주 동문에게 감사장을 증정했다. 2002년도 신임회장인 한재은 동문(의대 65년 졸)의 인사(열참조)와 신임회장단 및 임원의 소개를 끝으로 총회를 마치고 2부 순서로 이어졌다.

2부를 시작하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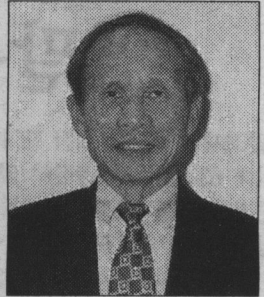
축사를 하는 이용락 재미총동창회장.



사모님 지난 1년간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대표 이대기 동문(사회대 91년 입)의 지도로 3의 배수 게임에, 숫자감각이 뛰어나다고 자처(?)하는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강영국 부회장으로부터 사회를 인계 받은 박숙 부회장(의대 70년 졸)의 사회로 본격적인 2부의 흥겨운歌舞가 자정까지 계속되었다. 모든 동문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날렵하고 속달된 춤숨씨를 과시하였으며, 특히 박영규동문의 "울고넘는 박달재"는 심금을 울렸고, 육길원동문(사대 63년 졸) 동문의 부인인 육원자 여사의 지도로 Line Dance와 테크노댄스를 즉석에서 배워 추면서 모든 동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조대현 회장 이임사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저는 지난 1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동문을 만나 뵈고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문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늘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이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같이 일한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동창회 주소록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주소록은 우리 동문간의 친목활동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은 동문을 찾아 주소록에 수록하려고 최선을 다 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 주소록은 총무장영수 동문과 편집 배중면 동문의 작품입니다. 이 두 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에 재미 총동창회 본부가 시카고로 왔습니다. 이용락 선배님께서 회장이시고 임원진이 전부 이 시카고 지역 출신입니다. 저희 지역 동창회에서는 재미 동창회에 최대한의 지원, 협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단과대학 동창회 소식입니다. 그간 소식이 없던 음악대학 동창회가 금년에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회장에는 김선영 동문입니다.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저는 1년간 회장 일을 하면서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또 보람도 느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신 동문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온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1년 11월 24일 시카고지역 동창회장 조대현

신임 회장 인사



친애하는 선, 후배 동문 여러분 시카고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가 창립된 지도 어언간 20년이 흘렀습니다. 창립당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창회를 창립하시고, 이후 동창회 발전에 헌신하여 오신 선배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제 21대 회기를 맞이하는 시카고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오늘날 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창회원들의 모습도 점차적으로 바뀌어져 초창기의 주류였던 30-40대가 이제 평균연령 50-60대의 長年層이 되었으며 졸업년도 별로는 43학번에서 93학번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中點은 66학번으로 이제 동문간의 同苦同樂이 더욱 요구되며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 회기동안 새로운 사업의 추진보다는 그 동안 역대회장님, 임원 및 이사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속, 성장되어온 장학사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위하여 계속 精進함과 동시에 동문간의 친목을 한층 더 돈독히 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주 총동창회가 2003년 6월까지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본 지부의 회원들이신 이용락회장, 구경회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총동창회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바, 지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동안 수고하여 주신 조대현 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동문들께서 동창회의 보람있는 사업들에 다 함께 활발히 참여하여 喜怒哀樂을 같이 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家內 더욱 多福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 24일 시카고지역 차기 동창회장 한재은



교가를 제창하고 있는 동문들(좌로부터 조대현 회장, 조중행 동문과 박숙 부회장 부부).

모교소식

학칙 개정...9월 1일부터 시행 본부조직 3처·1실·2국으로 줄여

모교는 모교의 설치령 개정(2001. 3. 2)으로 교육조직과 행정조직 등을 학칙에 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정하거나 시행하던 학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학사운영 등을 명료하게 규정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개정학칙」을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수렴(8월 4일~8월 11일), 기획위원회 및 규정심의위원회 심의(8월 13일), 학장회의(8월 23일), 평의회 심의(8월 30일) 등을 거쳐 지난 8월 31일 공포했다. 9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학칙개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학칙의 기본구조를 장·절로 개편(현행 16장을 6장 16절로 개편), △협동과정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실적을 매 2년마다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함(제6조 제2항), △교수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임교수를 대학, 대학원의 학과(부)에 소속되도록 함(제7조), △모집단위와 교육조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

로 학생의 소속을 모집단위 또는 교육조직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함(제13조), △현행 법정, 비법정 부속시설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맞게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로 구분하고,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통시설 제외)은 매 2년마다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토록 명시하고 부속시설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또는 학부의 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19조), △지원시설로 입학관리본부, 대외협력본부를 신설하고 입학관리본부와 학술정보원에 입학관리과와 정보화담당관을 각각 두고 사무분장을 명시함(제20조 내지 제22조), △처·실·국 조직을 3처 1실 2국으로, 과 또는 담당관 수를 16개로 개편하고, 대학행정실을 15개 범위내로 조정하여 각각 사무분장을 명시함(제25조 내지 제32조), △재정위원회 및 정보화위원회를 학칙에 반영하고 교양교육위원회와 교과과정위원회의 명칭을 기초교육위원회와 학사운영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며 각 위원회의 구성원을 조정하여 학사관련 위원

회의 기능을 강화함(제35조 내지 제41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수업 주수를 30주 이상으로, 학점 이수시간을 1학기당 15시간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제44조 제1항 및 제65조), △조기졸업 사전 승인제(24학점까지 취득)를 폐지하고 학기당 취득 학점을 직전 2개 학기 평균평점이 3.3 이상인 경우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함(제66조 제2항), △소정의 기일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제80조 제1항 및 제2항).

이번 학칙 개정에 따라 본부 조직들이 통합되고, 학내 기관들의 위상과 명칭이 바뀌게 됐다.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실·국의 수를 6개로 줄여 교무처, 학생처, 연구처, 기획실, 사무국, 시설관리국을 둔다. △과를 16개로 줄여 교무처의 학적과와 수업과를 학사과로, 학생처의 장학과와 후생과를 복지과로, 연구처의 연구지원과와 연구진흥과를 연구지원과로, 사무국의 경리과와 관재과를 재무과로 바꾼다. △대학행정실장을 15명으로 줄여 행정·보건·환경대학원, 간호대, 수의대에 행정실은 두되 행정실장은 두지 않는다.

한편 최근 실시된 연구소 평가를 계기로 일반 연구소와 기능이 다른 어학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는 각각 언어교육원과 대학생활문화원으로 바뀌었다.

외국인 자문단 「블루리본 패널」 구성 유명대 전·현직 총장급 인사로

모교는 미국 하버드대, 영국 캠브리지대, 일본 동경대 등 외국 유명대의 전·현직 총장급 인사들로 서울대의 현재를 진단하고 비전모색을 조언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대학협의회 헨지 로프스키 전 하버드 문리대학장과 로드 옥스버러 캠브리지대 부총장, 하스미시게히코 전 동경대 총장 등 미국과 유럽, 아시아 최정상급 대학행정 전문가 6명을 한시적 최고의 자문단인 「블루리본 패널(Blue Ribbon Panel)」에 위촉했다.

자문단은 지난 10월 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교수, 학부모 대표, 교육부 및 정·재·학계 관계

자 등 각계각층의 교육주체들과 포럼형식으로 만났으며, 모교 운영구조에서 인사 및 학사행정 등 행정전반과 대학의 자율성, 서울대의 사회적 위상 등에 이르기까지 모교의 현주소와 미래를 검토했다.

또한 모교 정책을 진단해 개선방향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한 뒤 이르면 연말에 2차 회의를 소집, 모교의 비전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8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과 교육관련 인사 등 70여 명이 만찬을 함께 했다.

박물관

「2000년전 우리 이웃」 전시회

모교 박물관(관장 李鍾祥)은 지난 10월 5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2000년전 우리 이웃」을 주제로 「중국 요령지역의 벽화와 문물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조양을 중심으로 한 요령성의 서쪽 요서지역은 중국 한대 이후 흉노, 선비, 오환 등 북방민족의 주요활동 무대가 되었으며 특히 동진시기에는 모용선비에

의해 세워진 前燕, 後燕, 北燕의 三燕이 역사의 무대에서 활동했다.

이번 전시회 소개되는 유물들은 前漢代 이 지역의 고분(서풍 서차구 고분, 금주 패각묘)에서 출토된 무기, 청동거울, 청동제 장신구 등 이른 시기의 문물과 함께 전연의 귀족무덤에서 출토된 청동용기, 미구, 장신구, 토기, 자기 그리고 고분의 벽화(모사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연의 귀족무덤인 원대 자고분의 벽화와 문물들은 우리의 삼국시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박물관은 지난 10월 9일 강당에서 특별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중국 요령성박물관 田立坤관장, 동경대 부총장 雅博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일 중환자실에서 외과병동인 51 병동으로 옮겨졌다.

이번에 성공한 수술기법은 좌측 액와(겨드랑이)정맥과 좌측 대퇴(사타구니)정맥을 노출하여 정맥카테터를 각각 삽입한 후 체외순환기를 이용하여 「정맥 - 정맥 우회술」을 통해 이뤄졌다. 손상된 하대정맥의 위, 아래와 간으로 가는 간동맥 및 간문맥을 일시 차단한 후 「좌측 간엽절제술」과 「하대정맥봉합술」을 무사히 끝냈다.

특히 이번 수술에서 RIS(급속수혈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결과 1만3천cc 정도의 혈액만 소요돼 종전 RIS를 쓰지 않았을 경우 3만5천cc 이상의 혈액이 필요했었다는 것과 비교할 때 1/3의 혈액만 쓰기도 시술에 성공,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귀족무덤 속의 수렵도.

모교 병원 외과·마취과팀

간손상 과다출혈 환자 살려내

모교 병원 수술팀과 제주의료원이 효과적인 협진시스템과 첨단 간이식 의료장비를 바탕으로 한 축적된 간이식술을 이용해 생존 가망이 없는 간손상 환자의 생명을 극적으로 살렸다.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주인공 김모 씨(여·28세)는 지난 8월 18일 제주시에서 갑작스런 교통사고 충격으로 간과 간정맥 부위가 심각하게 손상돼 엄청난 출혈을 하며 제주의료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의료진은 응급처치와 함께 개복을 했지만 이미 좌간정맥과 하대정맥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고 엄청난 과다 출혈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의료진은 협력병원인 모교 병원에 응급수술 협조요청을 한 후 긴급 항공편을 통해 21일 모교 병원 수술실로 이송했다.

만반의 수술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던 20여 명의 모교 병원 외과팀(李健旭교수)과 마취과팀(金聖德교수)은 그간 축적된 간이식술과 첨단 간이식 의료가인 급속수혈기(RIS: rapid infusion system)와 체외순환기(Biomedicus pump) 등을 총동원해 3시간 여의 대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환자는 지금 현재 혈압 등 상태가 많이 호전돼 지난 9월 11

미술작품 張錦園 作



「무제」, 50×65cm, mixed media, 2000.

<작가약력>

- △71년 모교 미대 회화과 졸업
- △74년 모교 대학원 졸업
- △75년 Minnesota Arts Fair
- △80년 「3 Painter's Show」
- △84년 美아미오와대 대학원 졸업
- △85~90년 서울 관화
- △85~2001년 개인전 9회
- △91년 「Women and Their Arts」
- △2000년 한국화회, 훈올전
- △2001년 「The Art of Asian Paper」
- △현재 덕성여대 동양화과 교수

동 정 수 상

▲康明順(46년 京城大卒·한양대 명예교수)=지난 10월 11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가 수여하는 제 15회 仁村賞(산업기술부문)을 수상함.

▲金完鎭(54년 文理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9월 21일 서울YMCA 지관방에서 동승학술재단이 수여하는 제5회 동승학술상을 수상함.

▲李承旭(55년 文理大卒·서강대 명예교수)=지난 9월 21일 서울YMCA 지관방에서 동승학술재단이 수여하는 제5회 동승학술상을 수상함.

▲嚴圭白(56년 文理大卒·양정고교 교장)=지난 10월 11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가 수여하는 제 15회 仁村賞(교육부문)을 수상함.

▲金瓊元(54년 法大入·사회과학원장)=지난 9월 28일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에서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2001년 뱀플리트상」을 수상함.

▲李禹煥(56년 美大入·서양화가)=오는 10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미술협회가 수여하는 제13회 「세계문화상(회화부문)」을 수상한다.

▲南豊鉉(60년 文理大卒·단국대 명예교수)=지난 9월 21일 서울YMCA 지관방에서 동승학술재단이 수여하는 제5회 동승학술상 시상식에서 동승학술연구상을 수상함.

▲孫政雄(71년 文理大卒·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기획과장)=지난 9월 25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고운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2회 고운문화상(창의부문)을 수상함.

▲李秉基(74년 工大卒·모교 연구처장)=지난 9월 17일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제46회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을 수상함.

▲朴聖會(75년 醫大卒·모교 병리학교실 교수)=지난 9월 17일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제 46회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을 수상함.

▲柳濟萬(79년 藥大卒·동화약품 중앙연구소 부소장)=지난 9월 17일 한국경제신문사가 제정한 제10회 다산기술상 대상을 수상함.

▲柳誠彥(84년 自然大卒·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포스위치단백질구조연구단장)=지난 9월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과학기술부로부터 「생명공학 우수 과학자상」을 받음. 또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함.

▲申載弘(84년 師大卒·경원대 교수)=지난 9월 21일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고전문학 연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6회 「성산학술상」을 받음.

▲趙楡顯(88년 自然大卒·90년 社會大卒·월간 서울스코프 발행인)=지난 9월 19일 책자로 보는 서울展(SeeSEOUL2001)에서 「좋은 서울홍보 책자상」을 받음.

이동·선임

▲李祥根(57년 商大卒·대일재무자문 회장)=최근 한국금융신문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함.

▲李吉女(57년 醫大卒·가천의대 길병원 이사장·경원대 총장·醫大同窓會長)=최근 제1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부 의장에 임명됨.

▲金 惠(58년 法大卒·前통일부총리)=최근 성균관대 석좌교수에 위촉돼 2학기부터 대학원에서 「남북한 관계론」을 강의함.

▲朴椿浩(59년 文理大卒·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지난 9월부터 부경대 석좌교수에 위촉돼 해양관할권론·해양분쟁 해결론 등을 강의함.

▲李東熙(59년 文理大卒·前서울산업대 총장·오성연구소 이사장)=최근 서경대 석좌교수에 위촉돼 2학기부터 「선비정신과 21세기 리더십」을 강의함.

▲金容俊(59년 法大卒·前헌법재판소장)=지난 9월 14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린 「청소년참사랑 운동본부」 창립대회에서 명예총재에 위촉됨.

▲李廷彬(60년 法大卒·前외교통상부 장관)=최근 재경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장에 선임됨.

▲李在祥(65년 法大卒·이화여대 교수)=지난 9월 3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9대 원장에 선임됨.

▲崔圭鶴(65년 行大院卒·前대통령 복지노동수석비서관)=지난 8월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제9대 원장에 임명됨.

▲李相周(60년 師大卒·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지난 9월 10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됨.

▲金基容(60년 醫大卒·강릉병원장)=지난 9월 1일 인제대의과대학 학장에 선임됨.

▲林東源(61년 文理大卒·통일부 장관)=지난 9월 11일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장관급)에 임명됨.

▲洪淳瑛(61년 法大卒·駐중국 대사)=지난 9월 7일 통일부장관에 임명됨.

▲金德昌(63년 文理大卒·前내외통신 사장·홍익대 초빙교수)=지난 9월 1일 사단법인 한국통일교육연구회 제2대 이사장에 취임함.

▲朴鍾憲(63년 法大卒·前삼양제넥스 사장)=지난 8월 30일 (주)삼양사 주총에서 사업부문 총괄사장에 선임됨.

▲林寅澤(63년 法大卒·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지난 9월 30일 건설교통부 장관에 임명됨.

▲韓光玉(60년 文理大入·대통령 비서실장·本會 副會長)=지난 9월 10일 새천년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에 임명됨.

▲文明浩(64년 文理大卒·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지난 9월부터 세종대 겸임교수로 임명돼 「국제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함.

▲尹 壻(64년 文理大卒·경원대 감사)=최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원장에 취임함. (연락처: 053-749-5000)

▲朴楊千(65년 文理大卒·前외교통상부 기획관리실장)=지난 9월 5일駐벨기에 대사에 임명됨.

▲李在祥(65년 法大卒·이화여대 교수)=지난 9월 3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9대 원장에 선임됨.

▲崔圭鶴(65년 行大院卒·前대통령 복지노동수석비서관)=지난 8월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제9대 원장에 임명됨.

재미 동창회보 원고 및 자료 투고요청

<알차고 격조있는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보>
 동문여러분, 글로써 지성인의 우정을 나눕시다.
 ◇삶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성공과 좌절의 순간과 특별한 경험들을 동문들과 나눕시다.
 ◇당신의 분야에서 초보적인 사항들은 타분야에 종사하는 일반동문들에게는 유용한 지식이 됩니다.
 ◇동문들과 함께 쓰고, 생각하며 토론합시다.
 원고 보내실 주소: 1면 상단 참조

▲鄭泰翼(65년 法大卒·외교안보연구원장)=지난 9월 11일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 임명됨.

▲金東泰(66년 農大卒·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지난 9월 7일 농림부 장관에 임명됨.

▲朴泰榮(66년 商大卒·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 27차 국제사회보장 협회(ISSA) 총회에서 임기 3년의 집행이사에 선출됨.

▲李祥羲(66년 藥大卒·국회의원)=지난 9월 14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법선진흥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임됨.

▲金鶴在(67년 法大卒·법무부 차관)=지난 9월 11일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됨.

▲朴紀正(68년 文理大卒·동아문화센터 사장)=최근 고려대 언론대학원 초청교수로 위촉돼 「신문 편집의 현대와 미래」를 강의함.

▲李淳學(68년 商大卒·前한솔창투 사장)=최근 뮤추얼펀드 평가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인 「에이브레인」 회장에 취임함.

▲金相祐(68년 醫大卒·서울백병원 부원장)=지난 9월 1일 상계백병원 원장에 선임됨.

▲卞增男(69년 工大卒·한국과

학기술원 교수)=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퍼지학회(IFSA) 이사회에서 국내 학자로는 최초로 회장에 선출됨.

▲金夏中(69년 文理大卒·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지난 10월 4일駐중국 대사에 임명됨.

▲崔 鏞(69년 醫大卒·모교 소아과학교실 교수)=최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12차 국제소아신장학회에서 임기 6년의 카운슬러에 선임됨.

▲吳生根(70년 文理大卒·모교 불어불문학과 교수)=최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평위원회 위촉됨.

▲柳明桓(70년 法大卒·前주미공사)=지난 9월 3일 외교통상부 장관 특별보좌관에 임명됨.

▲李慶衡(70년 文理大卒·대한매일신보 수석논설위원·本報論說委員)=지난 9월 27일 대한매일신보 논설위원실장에 선임됨.

▲李珍根(70년 齒大卒·부치과 의원장)=지난 9월 8일 잠실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세계어린이를 위한 봉사단체인 국제 키와니스(KIWANIS) 한국지구 총재에 취임함.

▲李淳澤(71년 工大卒·모교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교수)=최근 열린 한국자원공학회 평의원에서 2001년도

회장에 선출됨.

▲安載憲(71년 文理大卒·행자

<22면에 이어>



부 민방위재난
통제본부장)=
지난 9월 20일
행정자치부 제
2의건국법국민
추진위원회 기
획운영실장에 임명됨.

▲嚴廷植(71년 新大院卒·서강
대 교수)=최근 한국간행물윤리
위원회 서평위원에 위촉됨.

▲鄭德興(72년 法大卒·前서울
고법 부장관사)=지난 8월 30
일 법무법인 화백 변호사에 선
임됨.

▲金智日(73년 文理大卒·MBC
드라마국 위원)=지난 9월 22
일 MBC 편성국장에 선임됨.

▲金宅坤(73년 文理大卒·MBC
홍보심의국장)=지난 9월 22일
MBC 보도국장에 선임됨.

▲玄旻錫(74년 商大卒·前세무
대학장)=지난 9월 8일 陳 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특별보좌관에 위촉됨.

▲慎鍾寅(75년 師大卒·MBC 예
능국장)=지난 9월 22일 MBC
TV제작2국장에 선임됨.

▲吳日鎬(75년 商大卒·동양제
과 영업본부장)=지난 9월 23
일 오리온프리트레이 사장에 선
임됨.

▲李鍾范(76년 工大卒·한국산
업기술평가원 감사실장)=최근
출범한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
발재단 초대 사무총장에 선임
됨.

▲柳宣浩(76년 法大卒·경기도
정무부지사)=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정무수
석비서관에 임
명됨.

▲鄭壽夫(77년 行大院卒·법제
처장)=지난 9
월 11일 중앙
선거관리위원
회 위원에 임명
됨.

▲尹承鎮(79년 經營大卒·MBN
해설위원)=지난 9월 4일 매일
경제TV(MBN) 보도국 차장 겸
증권부장에 선임됨.

▲趙培淑(79년 法大卒·민주당
당무위원)=지
난 9월 7일 민
주당 전국구 柳
三男의원이 해
양수산부 장관
에 입각하게 됨
에 따라 국회의원을 승계함.

▲李鍾潤(79년 大學院卒·한솔
금고 전무)=
최근 한솔창투
대표이사에 선
임됨.

▲姜榮哲(80년 社會大卒·매일
경제신문 지식부장)=지난 9월
4일 매일경제신문 산업부장 겸
세계지식포럼 사무국장에 선임

됨.
▲禹建助(81년 農大卒·식품의
약품안전청 식품미생물과장)=
최근 세계식량기구(FAO)와 세
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조직한 GMO(유전자변형식품)
식품전문자문위원회 위원에 선
정됨.

▲曹永達(83년 師大卒·모교 사
회교육과 교
수)=지난 9월
11일 대통령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에 임명
됨.

▲李石淵(91년 大學院卒·경실
련 사무총장)=지난 9월부터 동
국대 법과대학 겸임교수로 임명
돼 형사소송법을 강의함.

▲柳三男(24기 AMP·국회의원)
=지난 9월 7일 해양수산부 장
관에 임명됨.

▲金泰完(44기 ACAD·민족통일
불교협의회 의장)=지난 9월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
임위원 및 종교분과위원회 간사
에 임명됨.

▲曹建昌(49기 ACAD·前고속도
로관리공단 이사장)=최근 한국
도로교통협회 상근 부회장에 취
임함.

행사·출간

▲宋仁相(35년 京城高商卒·한
국능률협회장)
=지난 9월 20
일 하얏트호텔
에서 申英均
(68년 商大卒)
前대우조선공
업 사장 등을 초청, 제338회 최
고경영자 조찬회를 가짐.

▲李潤子(46년 京城女子師範
卒·전국주부교
실중앙회장)=
지난 8월 30일
서울교육문화
회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전국지도자대회를 개최함.

▲金相廈(49년 文理大卒·한국
장묘문화개혁
범국민협의회
이사장·本會
顧問)=지난 9
월 26일 서울
여전도회관 2
층 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기념강연회를 가짐.

▲文太俊(50년 醫大卒·한국사
회복지협의회
회장)=지난 9월 4
~7일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인간보장과 사회안전망」을 주
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가짐.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도
건 회장·충북
장학회 이사
장·本會 首席
副會長)=지난
9월 15일 세종
호텔 은하수홀
에서 충북 출신 대학생 12명에
게 장학금을 전달함.

▲李榮德(52년 師大卒·사학운
리위원장)=지
난 9월 19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사학 자체
평가제 도입 특
별연구회」를 가짐.

▲李海元(53년 法大卒·공동체
사회포럼 회
장)=지난 9월
20일 롯데호텔
가네트룸에서
서강대 李相禹
(61년 法大卒·
本會 副會長)교수를 초청, 「우
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가?」를 주제로 제24회 조찬특별
강연회를 가짐.

▲盧信永(54년 法大卒·롯데장
학재단 이사
장)=지난 8월
29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에서 대학생,
대학원생 및 국
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등 총
4백12명에게 2학기 장학금 5억
4천8백만원을 전달함.

▲柳泰容(55년 工大卒·한국방
재협회장)=지
난 9월 18일
한국과학기술
회관에서 「도
시홍수 재해의
경감대책」이라
는 주제로 제1회 재해관리기술
세미나를 가짐.

▲朴奉植(55년 文理大卒·前모
교 총장·한국
선진화연구회
장)=지난 9월
15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
의실에서 柳鍾
根전부지사 등이 발제자로 참석
한 가운데 「한국 선진화의 길」
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가짐.

▲權純亨(55년 美大卒·모교 명
예교수·한국현
대도예가회장)
=지난 9월 21
~30일 예술의
전당 제2전시
실에서 제13회
한국현대도예가대전을 가짐.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고문·美
大同窓會長)=
지난 9월 4일
부터 14일까지
갤러리 우덕에
서 「한·일 현
대가 6인의 Illusion」전을 개
최함.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
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9월 12일 하얏
트호텔 릴리룸
에서 보건복지
부 金元吉(68
년 商大卒)장관을 초청, 「건강
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안
착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

회를 가짐.
▲張在植(56년 法大卒·산업자
원부 장관)=
지난 9월 13일
모교 엔지니어
하우스에서 열
린 「CEO 환경
경영 포럼」에
참석, 「친환경산업정책과 청정
생산」을 주제로 강연함.
▲閔丙峻(56년 師大卒·한국광
고주협회장·本
會 副會長)=
지난 9월 10일
충북대 경영대
학원에서 「환
경변화와 기업
경영」을 주제로
강연을 함.
▲崔泳一(56년 獸醫大卒·색동
회 회장)=지
난 9월 17일
전도교 대강당
에서 아동문화
운동에 평생을
바친 故 눈술
정인섭 박사를 기려 제정한 제
17회 눈술 어린이 문화대상 시
상식을 가짐.
▲李相玉(57년 文理大卒·유엔
한국협회장)=
지난 9월 17일
롯데호텔 사파
이어룸에서 유
엔 가입 10주
년 기념 만찬회
를 가짐.
▲李大淳(57년 法大卒·경원대

「서울튜티앙상블」 25회 연주회
李玉姬·李昌洙동문 등 6명 출연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姜昌佑동문, 한명 건너 李昌洙동문, 두명 건너 皮虎英동문, 李美宣·李玉姬·金貞賢동문.

지난 10월 11일 예술의 전
당 리사이틀홀에서李玉姬(64
년 音大卒·피아니스트)동문을
리더로한 「서울튜티앙상블」이
제2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
다.

이번 연주회는 클라리넷 李
昌洙(71년 音大卒·코리안심포
니 수석), 바이올린 皮虎英
(83년 音大卒·성신여대 교
수)·金貞賢(84년 音大入·원주
시향 객원악장), 비올라 姜昌
佑(83년 音大卒·올라비올라
지휘자), 플루트 李美宣(86년
音大卒·코리안심포니 수석)동

문 등이 함께 참여해 라이네케
의 「오보에, 호른, 피아노를
위한 3중주」, 하차투리안의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
를 위한 3중주」,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등 우리에게 익
숙한 명곡들을 들려주었다.

열악한 연주환경에도 불구
하고 꾸준히 연주회를 개최해
오으로써 실내악 발전과 저변
확대에 큰 몫을 해내고 있는
「서울튜티앙상블」. 이날 선보
인 감동적인 연주로 명실공히
국내 최정상급의 실내악단임을
과시했다.

▲張在植(56년 法大卒·산업자
원부 장관)=
지난 9월 13일
모교 엔지니어
하우스에서 열
린 「CEO 환경
경영 포럼」에
참석, 「친환경산업정책과 청정
생산」을 주제로 강연함.

▲閔丙峻(56년 師大卒·한국광
고주협회장·本
會 副會長)=
지난 9월 10일
충북대 경영대
학원에서 「환
경변화와 기업
경영」을 주제로
강연을 함.

▲崔泳一(56년 獸醫大卒·색동
회 회장)=지
난 9월 17일
전도교 대강당
에서 아동문화
운동에 평생을
바친 故 눈술
정인섭 박사를 기려 제정한 제
17회 눈술 어린이 문화대상 시
상식을 가짐.

▲李相玉(57년 文理大卒·유엔
한국협회장)=
지난 9월 17일
롯데호텔 사파
이어룸에서 유
엔 가입 10주
년 기념 만찬회
를 가짐.
▲李大淳(57년 法大卒·경원대

명예교수)=지
난 9월 14일
경원대 인문대
계단강의실에서
「대학과 사
회봉사」를 주
제로 특강을 실시함. 또 21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정치윤리
와 정치행태」라는 주제로 제1회
윤리포럼을 개최함.

▲李世中(57년 法大卒·변호사·
광화문문화포
럼 회장)=지
난 9월 12일
세종문화회관
소연회장에서
연세대 宋復
(60년 文理大卒)교수를 초청,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주
제로 제16회 아침공론을 개최함.

▲李徽永(57년 法大卒·LG화재
고문·세계인재
개발원장)=지
난 9월 14일
롯데호텔 벨류
룸에서 「한국
기업의 현황과
활로」를 주제로 최고경영자 모
임을 개최함.

▲李吉女(57년 醫大卒·가천문
화재단 이사장·가천대 길병원
이사장·경원대 총장·醫大同窓
會長)=지난 9월 5일 인천종합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
1회 인천국악대전 - 전국국

<23면에 이어>

약경연대회」를 주최함. 또 지난 5~8월 신생아 1명당 1만원씩 적립한 여성기금 6백여 만원을 한국여성재단에 전달함.

▲崔鍾玉(58년 師大卒·사랑의 친구들 총재)=지난 9월 15~16일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과 노천극장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사랑나누기 바자회」 행사를 가짐.

▲李仁浩(55년 文理大入·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지난 9월 27, 28일 이틀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제3차 한·러 포럼을 개최함.

▲鄭根謨(59년 文理大卒·호서대 총장)=지난 9월 26일 국방회관에서 열린 민주통일복지국민연합세미나에서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강연함.

▲韓萬靑(59년 醫大卒·산학연정책과정 원장)=지난 9월 13일 기획예산처 田允喆(65년 法大卒)장관을 초청, 「우리 경제 및 재정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짐.

▲俞東濬(60년 農大卒·한국단



미사료협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지난 9월 14일 팔레스호텔에서 「친환경 단미·보조사료 산업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가짐.

▲南正鉉(61년 工大卒·대우엔지니어링 회장·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지난 9월 19일 그랜드인더컨티넨탈호텔에서 「인천공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짐.

▲孫鳳鎬(61년 文理大卒·모교사회교육과 교수·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공동대표)=지난 9월 20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저비용·고효율의 선거법 개정 방향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愼鏞度(61년 文理大卒·모교사회학과 교수·독도연구보전협회장)=지난 9월 20일 한국언론재단에서 「독도영

유권과 한·일 어업협정 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짐.

▲李康淑(61년 音大卒·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안익태 기념재단 이사장)=지난 9월 16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과 17일 KNUA홀에서 안익태 36주기 추모 기념 음악회를 가짐.

▲蘇鎭文(62년 齒大卒·美 UIC 치대 교수)=지난 9월 12~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8차 세계소아치과학회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함.

▲徐丙喆(63년 文理大卒·통일연구원장·통일문제연구협의회 운영의장)=지난 9월 4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함. 또 14일 제주대 교수회관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내 기반 조성」을 주제로 워크숍을 가짐.

▲韓和甲(63년 文理大卒·국회의원·한국기원 총재)=지난 9월 15일 한국기원 대강당에서 바둑의 체육종목 전환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짐.

▲金守經(63년 齒大卒·前모교교수)=오는 10월 21일 서울 우이동 솔밭공원(덕성여대 앞)에서 三角山 축제와 三角山 시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愼富鎬(64년 工大卒·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지난 9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통안전제도 정비와 정책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한·일 국제심포지엄을 가짐.

▲許永燮(64년 工大卒·녹십자 회장)=지난 9월 14일 한양대 종합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생명공학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공학 박사학위를 받음.

▲盧健一(64년 文理大卒·인하대 총장)=지난 9월 20~25일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5개국 과학자 2백50명이 참가한 제5차 국제 황해학술 심포지엄을 가짐.

▲鄭冀人(64년 文理大卒·한양대 교수·한국중재학회 회장)=지난 9월 15일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의실에서 추계 중재학술 세미나를 가짐.

▲黃炳茂(64년 文理大卒·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지난 9월 20일 국방대 세종대강당에서 「한반도 군비통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짐.

▲柳在成(64년 法大卒·변호사·장호체육진흥재단 이사장)=지난 9월 17일 장충테니스코트에서 제45회 장호배 전국 주니어 테니스대회를 가짐.

▲玄敬大(64년 法大卒·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지난 9월 21일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통일 전후 독일민족간의 갈등」을 주제로 「2001 한·독 워크숍」을 가짐.

▲卞柱仙(64년 師大卒·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本會 副會長)=지난 9월 4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무엇이 달라졌는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林香淳(64년 師大卒·한국세무사회장)=지난 9월 11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회원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40주년 기념식을 가짐.

▲成耆虎(64년 商大卒·성결대 총장)=지난 9월 18~19일 성결대 대강당에서 「세속화와 성결신학」을 주제로 개교 39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가짐.

▲金仁煥(65년 農大卒·계명대 교수)=지난 9월 3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실에서 「지속가능개발 연구포럼」 창립총회와 세미나를 가짐.

▲金光玉(65년 文理大卒·수원대 교수·한국방송학회 회장)=지난 9월 20일 한국방송회관, 21일 한국언론재단에서 「글로벌 시대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과 국가 이미지, 정체성」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洪淳吉(65년 文理大卒·한국항공대 총장)=지난 9월 20일 중소벤처기업 창업기반 구축을 위한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함.

▲朱光逸(65년 法大卒·제일국제법률사무소 공동대표변호사·서울천지로 타리클럽 회장)=지난 9월 25일 자매클럽인 일본 오사카 나가노지마로타리클럽 회원을 제주도로 초청, 친선모임을 가짐.

▲車培根(65년 師大卒·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한국언론학회 회장)=지난 9월 1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방송과 상호작용성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朴容晟(65년 商大卒·두산중



공업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한중e비즈니스협회장·本會 副會長)=지난 9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중국의 WTO가입 이후 한·중 e-Biz 협력 확대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李成千(65년 音大卒·모교 국악과 교수)=지난 9월 1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정년 퇴임 기념 작품 발표회를 가짐.

▲李承培(66년 工大卒·한국표준협회 상근부회장)=지난 9월 25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유니텔 姜世昊사장을 초청, 「생활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라는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가짐.

▲卜成海(66년 農大卒·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로부터 「21세기 저명 과학자 2000인」에 선정됨.

▲閔丙均(66년 商大卒·자유기업원장)=지난 9월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회의실에서 경제품질 褒奭然대표를 초청, 「한국경제와 기업가」라는 주제로 제30회 자유기업포럼을 가짐.

▲李鍾協(66년 音大卒·중앙대 교수·협스트링 앙상블 음악감독)=지난 9월 20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열린 제 15회 협스트링 앙상블 정기연주회를 지휘함.

▲李孝杓(66년 醫大卒·모교 산부인과학교실 교수·한국부인암재단 이사장)=지난 9월 11일 모교 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함.

▲姜熙甲(67년 大醫院卒·명지대 교수·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지난 9월 22일 한양대에서 「주식관련 현안과 법제」를 주제로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가짐.

▲姜正一(68년 農大卒·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지난 9월 14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미국, 일본, 태국 등 주요국의 통상협상 전문가를 초청, 「WTO 농업협상: 국별제안서와 협상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세

<25면에 계속>

尹天柱 前모교 총장 별세

모교 제13대 총장을 역임한 仁齋 尹天柱박사가 지난 9월 8일 오후 10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경북 선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7년 모교 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경대 교수로 재직했다. 63년 민주공화당 초대 사무총장을 맡은 후 문교부 장관, 제7대 국회의원, 부산대 총장, 모교 총장 등을 지냈으며, 78년 학술원 회원에 선임됐다.

尹박사는 한국정치 연구에 처음으로 행태주의 이론을 도입, 우리 나라 초창기 투표 행태가 대부분 관권·금전 등 각종 압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이른바 준봉투표(遵奉投票) 개념을 확립했으며 실증적 선거 행태 분석을 강조, 한국정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고인은 평소 선비의 관료는 근검절약의 모범을 보여야 한



다며 40년 이상 한반도 이사하지 않고 한옥에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李貞姬여사와 장남 大根(72년 工大卒·동부제강 사장), 차남 台根(73년 商大卒·사조아메리카 사장)등문 등 2남2녀이며, 국회의원 朱鎭亨(74년 文理大卒)등문과 외교안보연구원 李瑞恒(73년 文理大卒)교수가 사위다.

유족들은 12일 돈암동 천주교회에서 장례미사를 마친 후 충남 천안시 광덕면 신덕리 소재 천안공원묘지에 고인을 모셨다.

<24면에 이어>

미나를 개최함.

▲**朴性洙**(68년 師大卒·전주대 총장)=지난 9월 4일 신라호텔에서 역사학자인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를 초청, 특강을 가짐.

▲**韓利憲**(68년 商大卒·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지난 9월 19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노사정 위원회, 사회적 협약의 허와 실」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짐.

▲**孫菊任**(68년 音大卒·숙명여대 교수)=최근 프랑스 예비양 음악제와 독일 막스 레이저 음악제에 초청돼 독주회를 가졌으며, 지난 10월 13일 LG아트센터에서 드뷔시, 베토벤, 무소르그스키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金圭七**(69년 法大卒·BBS불



교방송 사장)=지난 9월 15일 여의도 KBS홀에서 제4회 가랑빈가합창단 정기연주회 「붓다의 노래」를 공연함.

▲**丁海旺**(69년 商大卒·한국금융연구원장)=지난 9월 20일 금융감독위 李瑾榮위원장을 초청, 「하반기 금융구조조정 방향」이란 주제로 금융경영인 조찬회를 가짐.

▲**李起澤**(69년 齒大卒·대한치과의사협회장)=지난 9월 1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

회(상임대표 李壽成)와 공동으로 「2001 치아건강 잔치」를 개최함.

▲**李承勳**(70년 工大卒·모교 경제학부 교수·모교 사회과학연구원장)=지난 9월 14~15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1세기 새로운 한·일·중 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가짐.

▲**裴光宣**(70년 文理大卒·산업연구원장)=지난 9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徐東喜**(70년 美大卒·건국대 디자인문화대학장)=지난 8월 5일부터 25일까지 독일 최대의 도자기 업체인 Villeroy and Boch에 연구과제 수행차 방문함.

▲**李相甲**(70년 美大卒·서울교대 교수)=지난 9월 12~18일 예술의 전당 미술관 제6전시실에서 「場(field)」을 주제로 작품전을 가짐.

▲**郭柄善**(70년 師大卒·한국교육개발원장)=지난 9월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 사회의 학력·학벌주의 극복」을 주제로 포럼을 가짐.

▲**全京秀**(71년 文理大卒·모교 인류학과 교수·비교문화연구소장)=지난 9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사회과학대학 교

수회의실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윤흥기 교수를 초청, 「외공수를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62회 비교문화연구소 집담회를 가짐.

▲**全熙天**(72년 文理大卒·오리콤 사장)=지난 9월 3일 광고업계에서 처음으로 브랜드 전문 격월간지 「오리콤 브랜드 저널」을 창간함.

▲**李基秀**(72년 大學院卒·고려대 법대 교수)=지난 9월 14일 저서 「국제거래법」의 인지대 3백4만6천50원 전액을 불우 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동아꿈나무 재단에 전달함.

▲**鄭用德**(73년 農大卒·모교 행정학과 교수·한국행정학회 회장)=지난 9월 14~15일 강원 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춘천 두산리조트에서 「21세기 지방행정의 과제와 비전」 학술대회를 가짐.

▲**朴在甲**(73년 醫大卒·국립암센터 원장)=지난 9월 5일 「말기 암환자 삶의 질 -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짐.

▲**安秉均**(74년 文理大卒·경기대 교수)=최근 논문집 「權山論叢」을 출간함.

▲**金善蓮**(74년 音大卒·Classical Nuances 멤버·오보이스트)=지난 10월 8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흐, 베크레이, 헤드, 뢰플러 등의 작품으로 오보에독주회를 가짐.

▲**文玄卿**(75년 家政大卒·단국대 교수·대한영양사협회장)=지난 9월 24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가짐.

▲**尹永寬**(75년 文理大卒·모교 외교학과 교수·미래전략연구원장)=지난 9월 15일 한글회관에서 「세계화시대의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李源德**(75년 商大卒·한국노동연구원장)=지난 9월 12~13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원 13주년 기념 「고용

보장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국제워크숍」을 가짐. 또 22일 호주에서 열린 노사관계학회 연차총회에 참석, 「한국의 노사관계 - 최근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함.

▲**裴永洙**(76년 人文大卒·모교 서양사학과 교수·대학신문 주간)=지난 9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 인문대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미국학연구소 집담회에서 「미국과 미국학의 현안 및 쟁점」 주제발표를 함.

▲**鄭斗彥**(80년 社會大卒·한나라당 부대변인 겸 서대문을지구당위원장)=지난 9월 18일 한양대 백남음악관에서 「최고의 종리, 최악의 종리」를 주제로 특강을 함.

▲**表時烈**(81년 行大院卒·고려대 교수·대한교육법학회 회장)=지난 9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교육주체의 법적

新刊

■ 아나미와 아니무스

—李符永 著



한국융연구원의 설립자인 李符永(59년 醫大卒·모교 명예교수)원장이 분석심리학

의 탐구 3부작 가운데 2편을 내놨다.

1편 「그림자」가 인간 마음속의 집단적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번 책은 그림자 더 안쪽에 자리잡은 무의식의 내적 인격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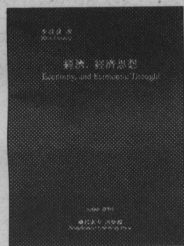
남성 속의 여성 아나미와 여성 속의 남성 아니무스를,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자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카를 융과 그 제자, 동료의 학설과 논평을 근거로 설명했다. <한길사·값12,000원>

■ 經濟, 經濟思想

—李柱晟 著

지난 8월말 성신여대를 정년 퇴임한 李柱晟(65년 大學院卒) 동문이 논문집을 펴냈다.

지난 83년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저서 「국민경제학」을 국내 최초로 완역해 간행한 바



있는 李교수는 이번 책에 종속이론과 제3세계, 통일 후의 우리 경제, 경제학의 사조,

리스트의 경제사상 연구 등을 담았다. <성신여대출판부>

■ 영국에서 떠나는 유럽 자동차 여행 및 영국 생활 정보

—朴鍾守 著



SK(주) 아로 마틱 Trading 팀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업무 담당 과장인 朴鍾守(89년 農大卒)동문이 영국 연수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자동차 여행에 대한 책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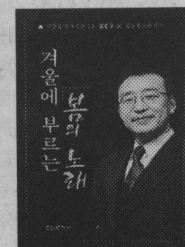
영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교민들이 영국에서 유럽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나면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과 영국인들이 하찮은 정보도 책으로 집대성, 지식자산화하여 다른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하는데 영향받아 한국인들을 위한 책을 써보자고 결심했다고.

차동문은 알고보면 배낭여행보다 저렴하고, 여행자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선택해 가장 효율적으로 유럽여행을 할 수 있다며 자동차 여행을 추천하고 있다. <제일여학·값16,000원>

■ 겨울에 부르는

—金鍾久 著



국방홍보원장을 역임한 金鍾久(47기 ACAD) 동문이 최근 隨想集을 펴냈다.

정치, 행정, 국제, 문화 등 각종 사회적 이슈와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공직 체험기, 그리고 틈틈이 신문, 잡지 등에 기고했던 에세이를 담았다.

金동문은 현재 IT벤처기업(주)Digilog의 명예회장을 비롯 민주통일복지연합 대변인 겸 기획위원장, 경실련 부장부

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정은문화사·8,000원>

公演

■ 金裕恩피아노독주회

—10월27일 일산 돌체음악실 —11월 1일 서울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金裕恩(92년 音大卒)동문이 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순회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습과 연주의 세계」를 주제로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9월 20일), 대구 어린이회관(10월 4일), 대전 시민회관 대강당(10월 9일), 광주 드림아트홀(10월 12일) 등에서 공연을 마쳤으며, 일산과 서울에서 소풍, 라흐마니노프, 슈만 등의 연습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3486-9154>



피아니스트 金裕恩동문.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1	남가주	164 정전걸(의대 49졸) 김선명(공대 75입) 조용명(치대 54입) 최준호(치대 58입) 김동산(법대 59입) 차민영(의대 78입) 권처균(공대 51입) 배재호(공대 58입) 정중주(가정대 72입) 이계식(공대 78입) 김용제(문리대 61입) 남정우(치대 48졸) 나병철(자연대 84입) 이대영(의대 68졸) 김세담(법대 55입) 김창섭(약대 44입) 김순택(법대) 김지익(의대 44입) 고용규(의대 67입) 박혜란(음대 73입) 이기풍(상대 54입) 김석기(상대 56입) 박영순(음대 44입) 김정협(치대 59입) 윤병인(의대 64입) 신영준(수의대 64입) 김생철(법대) 오양숙(의대 60입) 공성식(경영대 89입) 김재영(농대 62입) 강동순(법대 59입) 김중표(법대 58입) 이호경(치대 63입) 이삼희(농대 66입) 신한경(약대 56졸) 심상은(상대 54입) 정동구(공대 61졸) 이승우(농대 67입) 구자란(농대 72입) 박계영(공대 57입) 강정진(문리대 60입) 구철회(의대 78입) 박태호(치대 66입) 김성환(의대 71졸) 최복영(사범대 56입) 이호준(공대 55입) 정현진(간호대 72졸) 김인영(공대 58입) 안승호(공대 71입) 민경탁(의대 61입) 신대식(상대 60입) 정원훈(상대 38입) 이현세(법대 68입) 이실흥(의대 42입) 박명근(상대 63입) 우원섭(치대 65졸) 이건설(치대 54입) 홍진(간호대 55입) 한종철(치대 62입) 최영순(간호대 69입) 이성호(의대 72졸) 이기준(법대 54입) 하기환(공대 66입) 이종규(간호대 73졸) 정기정(상대 69입) 박선희(가정대 81입) 이종도(공대 66입, \$100) 신정식(상대 64입) 노명호(공대 61입) 김옥자(음대 56입) 이기재(사범대 52입) 김영선(미대 57입) 이영송(치대 63입) 전병희(약대 55입) 장진성(약대 66입) 권중건(치대 65입) 김설화(공대 71입) 박영근(상대 56입) 최종권(문리대 59입) 김기은(음대 66입) 이환진(상대 68입) 임재영(공대 59입) 김용일(보건대학원 65입) 허영석(미대 67입) 김현경(치대 56입) 최승륜(상대 53입) 장대옥(음대 57입) 이영식(농대 59입) 김승철(사범대 56입) 김혜인(가정대 69입) 정조용, 박인희(간호대 67입) 서중용(공대 57입) 박정모(문리대 66입) 정복근(사범대 69입, \$100) 한영옥(치대 56졸) 김동호(치대) 이병국(수의대) 신인자(문리대 59입) 광철(법대 64입) 김이호(상대 59입) 황동하(의대 65입) 김은중(상대 59입) 김원탁(공대 65입) 이정재(수의대 45입) 김대평(문리대 63입) 권대원(대학원 59입) 임낙균(약대 64입) 유희기(의대 64졸) 문완철(사범대 59입) 이영주(치대 62졸) 박임하(치대 56입) 장정용(미대 64입) 김은희(치대 50졸) 이호일(의대 60입) 박호웅(약대 63졸) 권봉성(문리대 64입) 오수남(의대 55졸) 김희재(사범대 66입) 김태윤(법대 53입) 박일진(치대) 서동영(사범대 60입) 최덕순(간호대 59입) 권순철(치대) 신동국(수의대 76입) 임선영(음대 57졸) 임민빈(상대 58입) 김교복(농대 63입) 이동성(의대 53입) 이열재(법대 53졸) 김성운(농대 70입) 열세욱(간호대 69입) 서관석(미대 67입) 허영진(문리대 62입) 양명규(의대 55입) 이수복(약대 70입) 홍주안(공대 66입) 김홍기(사범대 58입) 문덕수(공대 73입) 이근설(상대 56입) 정광진(농대 76입) 김항자(약대 61입) 최예섭(치대 45입) 김재신(음대 60입) 박취서(약대 60입) 강영빈(문리대 58입) 임택선(공대 52입) 김광근(치대 59입) 오길평(치대 61입) 김진호(약대 64입) 정유석(의대 58입) 강형운(농대 52입) 이규호(문리대 59입) 신정자(사범대 63입) 권길상(음대 46입) 김용삼(음대 49입) 윤진수(의대 57입) 장동석(문리대 66입) 전동희(공대 58입) 김광은(음대 56입) 김원경(약대 59입) 정황(공대 64입) 최승규(간호대 65입) 김석구(공대 66입)
03	샌프란시스코	
04	뉴욕 (NY, NJ, PA 일부 CT)	114 김현기(공대 62입) 최창식(의대 61입) 김종울(사범대 51입) 이국진(사대 51입) 윤순철(사범대 44입) 이종성(의대 58입) 변찬의(상대 63입) 유재섭(공대 69졸) 박상원(음대 69입) 김영덕(공대 53입) 김화국(약대 54입) 민만기(공대 62졸) 정진우(의대 72졸) 노용면(의대 55졸) 이충호(의대 63입) 강재현(상대 70입) 이연천(공대 52입) 선우문(의대 60졸) 김세환(공대 65입) 최환웅(농대 58입) 탁명양(약대 56졸) 황문하(수의대 76입) 김충진(농대 68졸) 김상각(상대 57입) 윤갑석(공대 53입) 김우영(상대 60입) 이행순(미대 60입) 김승관(의대 76졸) 윤정옥(약대 50입) 김지익(의대 71입) 이정애(미대 57입) 이영연(상대 58입) 장소현(농대 80입) 윤인숙(간호대 63입) 변광록(간호대 63입) 백영복(간호대 69입) 김병술(약대 52입) 이재택(법대 60입) 조상근(법대 69입) 조달훈(사범대 66입) 노경희(간호대 66입) 강석권(법대 61입) 반영철(약대 64입, \$100) 박경원(미대 66입) 최영태(문리대 67입) 정사열(법대 55졸) 이성길(치대 66졸) 허선행(의대 58입) 임은진(농대 46입) 이준우(의대 55입) 임종오(문리대 63입) 김순자(약대 63졸) 호민선(상대 59입) 이시진(문리대 58졸) 김규화(상대 63입) 이정순(법대 53입) 송기인(의대 60입) 정일화(상대 55입) 박창의(농대 64입) 백윤자(간호대 64입) 이성수(공대 60졸) 신혜분(약대 55졸) 홍준호(의대 67졸) 조중수(공대 64입) 이재원(법대 60입) 서중용(약대 70졸, \$100) 이경림(상대 64입) 손완배(농대 70입) 조경호(의대 66입) 성기호(약대 57입) 신규호(의대 68졸) 이종오(의대 58입) 변영석(의대 65입) 이명희(의대 60입) 최일단(미대 55입) 박영태(상대 63입) 박순영(법대 56입) 조충열(의대 60입) 조성무(공대 56입) 김욱현(의대 59입) 서상철(의대 56졸) 유호근(법대 71입) 김광호(의대 72졸) 허병렬(사범대 42입) 한승원(미대 60입) 이종현(의대 60입) 서홍석(의대 65졸) 김일하(치대 58졸) 민발식(의대 66졸) 최희웅(문리대 64졸) 신정택(약대 52입) 이준무(음대 65입) 정현진(법대 63입) 백승원(의대 73입) 민준기(공대 59입) 석창호(의대 66입) 한영수(의대 61입) 유숙현(간호대 61입) 남일우(법대 57입) 윤현남(공대 63입) 장영자(간호대 68입) 전희근(의대 54입) 조희재(음대 58입) 박승균(의대 55입) 김창수(약대 64입) 남상래(간호대 65입) 차대웅(상대 54입) 최영혜(간호대 64입) 박장생(의대 54입) 이삼민(문리대 58입) 홍정표(음대 67입) 주성문(의대 58입) 이찬서(자연대 82입) 광선섭(공대 61입)
05	시카고(IL, IN, WI, MO, MI, OH)	91 최순강(음대 65입) 이원호(의대 59졸) 유석환(치대 62졸) 한의일(공대 62입) 한동하(의대 58입) 이상일(의대 54입) 김윤태(의대 63입) 윤봉수(간호대 73졸) 황현상(의대 55입) 권순희(간호대 78졸) 김동수(공대 48입) 계명수(의대 69입) 장홍(문리대 61입) 이백기(의대 58졸) 김형수(농대 68입) 김태기(의대 68졸) 안창현(의대 55입) 이진주(문리대 55입) 진보린(약대 56입) 이건설(공대 73졸) 김용우(공대 58입) 이수인(의대 56입) 장시경(약대 58입) 정영숙(사범대 63졸) 안은식(문리대 55입) 장세근(의대 57입) 허서룡(의대 60입) 김건(문리대 63입) 한재은(의대 59입) 김봉현(법대 51입) 이민우(의대 67졸) 원중수(의대 69입) 배영섭(의대 54입) 이명자(간호대 60입) 한경희(간호대 67졸) 이기준(약대 42입) 정길화(의대 65졸) 김창구(의대 65입) 장재찬(의대 59입) 이태안(의대 67졸) 최혜숙(의대 53입) 김일훈(의대 51입) 이규달(의대 68졸) 임근식(문리대 56입) 위장호(의대 67입) 한성화(의대 57입) 박봉수(공대 59입) 표양순(간호대 71졸) 장병호(의대 66입) 조철영(의대 75졸) 김인수(상대 60졸) 이인선(미대 70졸) 최웅수(공대 60입) 임현재(의대 59입) 강영국(수의대 67입) 소진문(치대 58입) 유태임(교육대 67입) 김용성(상대 54입) 고병철(법대 55입) 정승규(공대 60입) 장운인(공대 60입) 강창만(의대 58입) 구경희(의대 59입) 계훈택(의대 55입) 송재현(의대 48입) 배건제(공대 53입) 이덕수(문리대 62입) 이철주(치대 77입) 전영재(미대 58입) 남상용(공대 52입) 고영철(의대 65입) 이영웅(의대 62졸) 김택수(의대 63졸) 조형원(약대 54졸) 박강훈(공대 66입) 정근제(사범대 56입) 이병배(의대 57입) 임재일(농대 74입) 이경일(농대 77입) 장기남(문리대 62입) 김정일(의대 57입) 서정환(\$5100, 의대 71입) 조중환(의대 65입) 조영재(상대 68입) 김봉주(사범대 72입) 차명환(치대 70입) 최동규(법대 73입) 이용락(공대 48입) 이봉자(사범대 60입) 임태섭(\$100, 미술대 54입) 손기용(의대 68입)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6	워싱턴 DC (MD, VA)	40 김진홍(의대 68졸) 장병규(사회과학대 76입) 이나원(사범대 58입) 박형순(의대 60졸) 김국(농대 75입) 곽대조(음대 64입) 박영호(공대 64입) 홍영석(공대) 김택경(의대 54입) 신상균(의대 52입) 조인욱(간호대 71입) 최동현(문리대 50입) 장효강(공대 66입) 김수웅(문리대) 이근순(간호대 73입) 김준희(의대 71입) 윤개일(약대 60입) 김재구(의대 56입) 전경철(공대 55입) 소속영(간호대 64입) 이홍석(공대 49입) 변만식(사범대 49입) 정재성(의대 68졸) 임필순(의대 54입) 김기환(공대 67입) 박성대(문리대 71입) 신영철(의대 53입) 진금섭(약대 57입) 김효성(공대 51입) 이형모(의대 45입) 유영준(의대 68입) 정두현, 석균범(문리대 61입) 박인영(의대 69입) 정약훈(의대 49입) 이정희(의대 59입) 오광동(공대 52입) 맹옥열(간호대 68입) 이선구(\$100, 문리대 65입) 이규섭(상대 68입)
07	워싱턴주 (WA)	14 전계상(공대 40입) 김재호(상대 54입) 유성렬(공대 72입) 맹병규(문리대 70입) 이순모(공대 56입) 이동립(의대 52입) 황수택(의대 65입) 이해숙(문리대 64입) 김영일(공대 53입) 양용관(수의대 62입) 채태용(법대 55입) 윤재명(의대 65입) 김봉오(법대 74입) 김장태(문리대 53입)
08	휴스턴 (HOUSTON, TX)	10 이은실(문리대 53입) 현인실(공대 57입) 최광욱(문리대 73입) 최관일(공대 54입) 이진현(의대 67입) 이규진(약대 60입) 함호자(음대 62입) 임성빈(사범대 56입) 박승균(의대 59입) 김태훈(공대 57입)
09	달라스 (DOLLAS, TX)	2 전중희(공대 56입) 김인호(공대 47입)
10	미네소타 (MN)	11 박상빈(공대 71입) 남세현(공대 67입) 김태환(의대 58입) 최정음(공대 58입) 신학철(공대 75입) 김권식(공대 61입) 문일지(공대 61입) 조형준(문리대 62입) 변우진(인문대 81입) 왕규현(의대 56입) 주한수(농대 62입)
11	조지아 (GA)	11 장병건(대학원 64입) 김만복(문리대 72입) 한영수(의대 54입) 이관호(공대 45입) 은철수(상대) 백낙영(상대 61입) 조덕성(공대 71입) 박천기(법대 56입) 이준남(의대 59입) 계광무(공대 63입) 오경호(농대 60입)
12	아리조나 (AZ)	2 이은수(경영대학원 73입) 진명규(공대 70입)
13	유타 (UT)	1 손홍용(공대 58입)
14	하와이 (HI)	7 구해근(문리대 60입) 오갑열(행정대학원 75입) 박성재(상대 49입) 남궁종(공대 52입) 황재만(농대 71입) 김장원(공대 49입) 김용진(공대 50입)
15	오레곤* (OR)	5 김상순(상대 67입) 김상만(음대 46입) 성성모(사범대 67입) 최동근(문리대 50입) 이태호(문리대 61입)
16	기타 (중부)	4 이학은(약대 57입) 홍지호(공대 53입) 박용호(의대 59입) 김현철(의대 57입)
17	기타 (중부)	1 유태준(의대 59졸)
18	기타 (동부 & 캐나다)	4 박준홍, 정병욱(의대 59졸) 조동립(의대 56졸) 이종진(공대 55입)
19	필라델피아 (PA)	16 임광상(공대 57졸) 심완섭(의대 73졸) 이광연(공대) 윤석희(치대 68입) 주기목(수의대 68입) 안지영(문리대 71졸) 구정울(의대 55입) 오진석(치대 56입) 김영우(공대 55입) 신성식(공대 56입) 문상규(의대 62졸) 서진석(의대 62입) 최환(공대 68입) 양운택(의대 58입, \$100) 이기범(의대 56입) 전방남(상대 73입)
20	뉴잉글랜드 (MA)	13 박병준(공대 52입) 김양일(경영대) 이재신(공대 57입) 김문소(농대 61입) 변화경(음대 66입) 문대욱(의대 73졸) 문형성(의대 65졸) 정용국(공대) 박기순(간호대 70입) 김경석, 배성호(의대 65입) 노인규(의대 52입) 김순규(문리 53입)
21	하트랜드	12 신두식(의대 58입) 오테요(의대 56입) 오계숙(미대 59입) 임하진(의대 79입) 민경환(의대 56입) 유준혜(의대 70입) 박세화(의대 76졸) 이상강(의대 70입) 김경숙(가정대 70입) 설원종(의대 60입) 구명순(간호대 66입) 이상문(상대 57입)
22	펜실바니아	
계		522 \$26,50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 계
01	남가주	김성희(200) 서동영(200) 조만연(300) 이병준(3,000) 정인환(200) 오길평(200)	6	4,100
03	샌프란시스코			
04	뉴욕(NY, NJ, PA 일부 CT)	김상각(500) 이기형(200) 이명희(200) 이대영(200) 김영덕(200) 한창섭(200) 이운순(200) 조대영(200) 최영태(200) 김용환(200) 이문휘(200) 이재원(200) 이재덕(200)	13	2,9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성홍환(250) 최일주(500) 김기태(200) 임현재(1,000) 임근식(500) 소진문(350) 신석균(300) 최길용(300) 강영국(300) 김병윤(200) 최희수(200) 황치용(200) 조대현(200) 정승규(200) 임춘수(500) 장기남(500) 이정일(200) 최호승(200) 이용락(5,000) 시카고 지역동창회(4,000) 송순영(1,000) 한재은(1,000) 구경희(800) 조중환(500) 박영규(300) 전현일(200) 김현옥(200)	27	19,100
06	워싱턴 DC (MD, VA)	장효강(200) 전신애(미연방정부 노동성장관실 여성국장, \$500) 진금섭(200) 권철수(500) 박윤수(1,000)	5	2,400
07	워싱턴주			
08	휴스턴	탁순덕(250)	1	250
09	달라스			
10	미네소타	김태환(500) 이장재(200)	2	700
11	조지아	김용건(200)	1	200
12	아리조나			
13	유타			
14	하와이			
15	오레곤	조중훈(200)	1	200
16	기타1(서부)			
17	기타2(중부)			
18	기타3(동부 & 캐나다)	정구영(200)	1	200
19	필라델피아	현재원(200) 이상봉(200) 정정수(200)	3	600
20	뉴잉글랜드	김인수(200) 윤상래(200) 변화경(300)	3	700
21	하트랜드	이상문(200) 지역동창회(500) 김용환(200)	3	900
22	중부펜실바니아			
일반 이사 합계			66	\$32,250
종신 이사 합계				
총 계			66명	\$32,25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관악 후원금 납입현황

(2001년 10월28일~11월24일)

종신이사

강영빈, 박경민, 박병기
방은호, 서영석, 심상은
오인석, 오홍조, 윤선홍
이교락, 이기영, 이병준
이세락, 이전구, 이청광
정태

김상각(상대 57입) \$500
최일주(공대 55졸) \$500
전신애(전경철등문, 공대 55입의 부인) \$500
김태환(의대 58입) \$500

300달러이하

성홍환(수익대 75입) \$250
김성희(상대 67입) \$200
서동영(사범대 60입) \$200
이기형(법대 50입) \$200
이명희(의대 60입) \$200
이대영(문리대 64입) \$200
김영덕(공대 53입) \$200
한창섭(문리대 57입) \$200
이운순(의대 52입) \$200
조대영(공대 61입) \$200
최영태(문리대 67입) \$200
김기태(의대 52입) \$200
장효강(공대 66입) \$200
진금섭(약대 57입) \$200
김용환(의대 45입) \$200
정구영(의대 50입) \$200
현재원(공대 60입) \$200
김인수(사범대 55입) \$200
윤상래(수익대 62입) \$20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2001년 10월28일 ~ 11월24일)

Anchor-Donor (2만달러 이상:약정)

방은호 (워싱턴 DC. 약 42입)

윤정옥 (뉴욕. 약 50입)

김영덕 (뉴욕. 공 53입)

이병준 (남가주. 상 55입)

김병수 (뉴욕. 상 55입)

최수용 (뉴욕. 상 55입)

유창남 (뉴욕. 의 58입)

오인석 (뉴욕. 법 58입)

이전구 (뉴욕. 농 60입)

임낙균 (남가주. 약 64입)

3,000달러이상

1,000달러이상

300달러이상

300달러이하

1백만불 기금 지부별 입금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01	남가주(CA)	정인환(200)권길상(100)한상철(333,400) 이병준(20,000) 심상은(1,000) 조용명(500) 임낙균(500) 이명선(300) 박취서(200) 이종열(200) 이강훈(150) 임택선(100) 김옥관(100) 권기상(100) 이정재(100) 신동국(100) 김일영(100) 유병원(100) 도영미(100) 황성우(100)	20	357,450
03	샌프란시스코	박우선(200) 김양주(300)	1 1	200 300
04	뉴욕 (NY, NJ, PA 일부, CT)	진성호(19,400) 추재옥(10,000) 오인석(20,000) 김병수(7,000) 최수용(5,000) 김영덕(5,000) 윤정옥(5,000) 이전구(4,000) 황관일(1,500) 김진승(1,000) 허리훈(1,000) 허선행(500) 이준행(500) 강영선(500) 김용재(500) 이기범(500) 이재진(500) 변찬의(500) 김상각(300) 홍선경(300) 이경립(300) 방준재(300) 주익돈(300) 남상태(300) 조성준(300) 김기훈(250) 박승서(250) 이기형(200) 김연석(200) 동형근(200) 리준국(150) 황진환(100) 조대영(100) 허병렬(100) 심기련(100) 유진형(50)	36	86,25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소진문(100) 임춘수(200) 이용락(1,000) 조영재(300) 정태, 최호승(500) 배영섭(200) 전영자(200) 임춘수(200) 강영국(200) 박종수(200) 구자원(200) 이기춘(200) 김윤태(100) 문병훈(100)	15	4,700
06	워싱턴 DC(MD, VA)	방은호(5,000) 이규섭(150) 박윤수(1,000) 박용걸(100) 오인환(200) 김창호(50) 장병근(50) 이선명(50)	8	6,600
07	워싱턴주(WA)			
08	휴스턴(HOUSTON, TX)	박승균(300) 유금용(100) 김충열(200) 박민자(100)	4	700
09	달라스(DALLAS, TX)	김이호(200)	1	200
10	미네소타(MN)	변우진(100) 김태환(300) 왕규현(100) 변우진(100) 남세현(100)	5	700
11	조지아(GA)	장병건(100)	1	100
12	아리조나(AZ)	박양세(200)	1	200
13	유타(UT)			
14	하와이(HI)			
15	오레곤(OR)	이태호(100) 익명(300)	2	400
16	기타(서부)			
17	기타(중부)	이회백(1,000)	1	1,000
18	기타(동부&캐나다)	한광수(333.33)	1	333.33
19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PA)	정정수(500) 서중민(1,000) 이정필(800) 정정수(500) 한혜원(300) 현재원(300) 정홍택(300) 강형진(200) 윤경숙(100) 정구영(100)	10	4,100
20	뉴잉글랜드(MA)	이재신(3,000) 이금하(200) 정태진(100) 김제호(100)	4	3,400
21	하트랜드	오태요(500) 김명자(500) 이상문(250) 배한홍(100)	4	1,350
22	펜실바니아			
	특별 후원금	간호대동창회(13,560) 모교동창회/모교순방단(3,000) 임광수 서울대총동창회부회장(5,000) 한규남(유회1점: 현재 경매 중)	4	21,560
	총 계		118	489,493.33

약정하신 동문들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현금 약정	방은호(워싱턴 DC/\$20,000약정 \$5,000납입) 서동영(남가주/\$100,000:생명보험 중 일부) 윤정옥(뉴욕/\$20,000중 \$5,000납입) 임낙균(남가주/\$20,000약정) 김영덕(뉴욕/\$20,000중 \$5,000납입) 김병수(뉴욕/\$20,000중 \$7,000납입) 최수용(뉴욕/\$20,000중 \$5,000납입) 이전구(뉴욕/\$20,000중 \$4,000납입) 유창남(20,000약정) 강영빈(휴스턴/1,000) 강경식(뉴잉글랜드/생명보험 중 일부)	11명 (6명 납입)	\$261,000 (\$31,000 납입)
기타	방은호(유증) 김태환(유증) 정태	3명	
총 합 계		126명	719,493.33

조수미 CD 주문서

조수미 CD "Love from Washington" 주문서 (8-25-01 Washington DC 공연 실황 녹음)

구입자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구입 수량 및 금액: CD _____ 개 총액 \$ _____ (우송료 포함)
 수표는 Payable to SNUAAUSA *가격: 1장 당 \$15.00 (우송료 별도)
 우송료는 1장 당 \$3.00, 복수 구입시 추가 1장 당 \$1.00 추가

*주문서를 기입하여 CD대금과 우송료를 합계하여 재미동창회 사무국으로 보내 주십시오.

SNUAAUSA
 790 BUSSE ROA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 판매대금 전액은 재미 동창회를 위한 관악후원금과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에 적립됩니다.

절취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동문독자 여론조사 설문서

이번 8월부터 이곳 시카고에서 발간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문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꼭 회송하여 주십시오

Ⅱ) 동창회보가 각 분야에 중시하시는 동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쓰는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면, 어떤 분야의 주제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야를 쓰셔도 좋고 가능한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I) 지금까지 동창회보를 우편으로 받으신 후 (택일)

- 1) 그냥 받아두고 잘 읽지 않는다()
- 2) 눈으로 일별하고 밀쳐둔다()
- 3) 흥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즉시 읽어본다()
- 4) 시간상 당장 읽지 않더라도 보관했다가 꼭 다시 찾아 읽는다()
- 5) 시간 나는대로 게재내용을 거의 다 읽는다.()

1)

2)

II) 동창회보를 읽으시는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분 ()시간 정도

VII) 현재 기획중인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분석 기사를 동창회보에 게재하는 데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십시오

- 1)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관한 국제 정세()
- 2) 한국교육문제에 장래와 서울대학교의 역할()
- 3) 기타 자연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읽고 싶으신 주제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III) 어떤 내용의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십니까 (여러 항목에 표시셔도 됩니다)

- 1) 동창회 사업계획 보도기사나 공지사항()
- 2) 본국 동창들의 동정, 소식()
- 3) 미국 내 동창들의 개인/지부 활동소식(소속지역)()
- 4) 타지역 동창회 소식()
- 5) 동문들이 투고한 기사 및 column()

VIII) 동창회보 편집위원회에서 집필의뢰를 하면 응하시겠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어째서 그러십니까? ()

IV) 일반 신문잡지에서 어떤 분야들에 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으십니까?

IX) 미주동창회에서 동창회를 빛내는 전문적 업적을 성취하신 동문을 초청하여 지역을 순회하는 강연회를 개최하는(Distinguished Alumni Lecturership)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V) 지금까지 받으신 동창회보의 내용 구성에 대하여 (택일)

- 1) 만족한다()
- 2) 좀 부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3)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4) 내용이 실망적이어서 읽을 흥미가 없었다()

- 1) 예()
- 2)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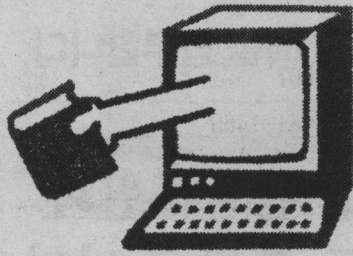
X)내용있고 수준있는 동창회보를 만들기 위하여 동문 개개인들이 크고 작은 소식이나 의견을 수시로 보내주시면 알찬 동창회보 발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타 충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작성 동문>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e-mail: _____
 Fax: _____

기타 의견란

한국의 대형 서점을 내 방안에



25만여종 / 풍부한 서평 / 최고 40% 할인



AladdinUS.com Internet Korean Bookstore

T323.692.9888 • F323.692.9952 • I888.338.8480 • 4282 Wilshire Blvd., 2fl. LA, CA 90010

AladdinUS.com 이형렬(국문 79입) 송명국(국사 81입) 윤장희(경영 83입) 최경희(사회 83입)

재미 총동창회 지부회장 / 동창회보 지국장 명단

지 부	회 장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뉴욕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김종을 B:914-714-0587 F:914-686-0186
남가주	이창광 B:626-795-7988 H:818-888-9772	김지영 B:213-532-3600 H:818-952-5606
샌프란시스코	김은중 B:510-567-8800 H:925-736-5516	임승쾌 B:415-777-1133 H:510-537-5369
시카고	조대현 B:630-972-4595 H:630-920-2201	장영수 B:630-252-4076 H:630-357-6275
뉴잉글랜드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변중원 B:508-366-2743 H:508-389-1706<ext.3038>
조지아	김재철 B:770-944-2775 H:770-579-5615	문종현 B:770-409-8844 H:770-449-0301
미네소타	김필주 B:651-730-6203 H:651-436-5642	남세현 B:651-733-7287 H:651-768-8939
워싱턴 DC	문성길 B:703-914-2000 H:703-893-0855	송상희 B:703-974-7194 H:703-503-0864
워싱턴주	황수택 B:253-627-8680 H:253-927-8668	고희선 B:425-673-7258 H:425-787-0292
휴스턴	이옥배 B:281-491-8972 H:281-265-2822	변중무 B:713-743-9301 H:713-783-3178
달라스	최근자 B:214-665-8345 H:972-403-1269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아리조나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권형욱 B:520-624-8254 H:520-624-8254
하와이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정광수 B:808-956-7653 H:808-395-1678
유타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황선중 B:801-582-1695 H:801-582-1695
오레곤	박창성 B:503-692-6747 H:503-579-8492	주기욱 B:215-745-9030 F:215-745-3055
필라델피아	강영배 B:610-623-8560 H:610-651-7834	배규영 B:816-524-7414 H:913-345-2396
하트랜드	김호원 B:913-451-4999 H:913-897-5365	이 욱 B:814-862-0494
중부펜실베이니아	이수경 B:814-833-1587 H:814-234-5529	정순교 B:416-512-1833 H:905-884-4306
캐나다/온타리오	이이병 B:416-385-0107 H:416-250-6908	최승선 B:604-584-5067
캐나다/밴쿠버	엄승용 B:604-542-0595	
캐나다/에드먼튼	정기진 B:780-437-7669	

동문 사업체 안내

강 권

Pusan Pipe America
이병준(상 55입)
(562)692-0600
Sant Fe Springs, CA

골프수업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농 60입)
(212)564-2255
New York, NY

중인회계사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 72입)
(201)569-1177
Englewood Cliff, NJ

이법선(상 48입)

이경림(상 64입)
(212)768-9144
New York, NY

Young Tail Choi EA
최영태(문 67입)
(212)695-0206
New York, NY

Deloitte & Touche LLP
김낙구(상 67입)
(213)688-5585
Los Angeles, CA

Wesley Y Chung
정일화(상 55입)
(212)736-6590
New York, NY

이규선(상 68입)
CPA, CFA
(703)642-2900
Annandale, VA

공회수업

IBECONS INT L
김재철(공대 58입)
(212)460-2815
New York, NY

구 회

진리교회
김태철목사(공대 76입)
(718)225-1000
New Hyde Park, NY
(L.I.E. Exit 33 South)

국제금융

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상 55입)
(212)750-7215
New York, NY

PTC International
이태영(법대 60입)
(410)962-8409
Baltimore, MD

금 고

Alco Lock & Safe
정인식(상 58입)
(212)867-3377
New York, NY

금융/수지

Liberty Bank of New York
우상영(상대 55입)
(201)695-5757
New York, NY

외환은행 브로드웨이 지점
이홍일(상대 70입)
(212)736-6575
New York, NY

무 연

Nina America Inc.
강석권(법 61입)
(212)683-6462
New York, NY

EAC Trading Inc.
윤정숙(약 50입)
(516)466-5678
Great Neck, NY

Oregon Hide Co.
조형원(수 55입)
(503)620-1001
Lake Oswego, OR

G.A. Marketing Company
지인수(상 59입)
(310)216-7929
Los Angeles, CA

미 시

최형무 변호사
최형무(법대 69입)
(718)463-3500
Flushing, NY

김용화 변호사
김용화(법대 69입)
(212)619-1770
New York, NY

법 의 내과

Joon J Bang, MD
방준재(의 63입)
(718)768-1264
Brooklyn, NY

법 의 소아과(유아과)

Charles H. Sung, DVM DVM
성홍환(수의 75입)
(330)534-8383
Hubbard, OH

법 의 심리학

Rim and Sul, MDPC
임춘수(의 57입)
(313)882-2922
Grosse Pointe, M

법 의 신장내과

Kenneth Song
송관호(의 58입)
(212)423-4817
New York, NY

법 의 심장내과

Chang Ho Suk
석창호(의 66입)
(718)461-6212
Flushing, NY

법 의 치과

Sung Bo Hong, DMD
홍성보(치 63입)
(201)871-0007
Tenafly, NJ

부 서

Gold Plus
서재숙(음 65입)
(212)354-8988
New York, NY

보 험

KOI 종합보험
김성희(상 67입)
(213)387-5252
Los Angeles, CA

한미종합보험
박일순(상 59입)
(718)458-3551
Jackson Hts, NY

한영종합보험
한영우(공 59입)
(718)463-9100
Flushing, NY

부동산

Cosmo Realty
이재덕(법 60입)
(201)944-4949
Palisades Park, NJ

C-21 Infinity
이재원(법 60입)
(201)944-5353
Palisades Park, NJ

REMAX(회합부동산)
최 호(문 61입)
(201)461-3525
Palisades Park, NJ

Gateway Title Co.
박인수(농 64입)
(213)388-3333
Los Angeles, CA

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사대 49입)
(703)750-0000
Annandale, VA

로얄 부동산
엄무광(문 65입)
(800)474-0200
SKOKIE, IL

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A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농대 58입)
(206)972-3675
Everett, WA

설 계

NKP Architectures
남신우(공 61입)
(908)636-4800
Woodbridge, NJ

JND Engineering, Co
박진득(농 67입)
(310)404-1848
Cerritos, CA

Booming World Design & Engineering
김상익(공 49입)
(310)539-7760
Court Lomita, CA

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공대 71입)
(718)392-0111
L.I.C. NY

업 식

Care Tex Industries, Inc.
강봉창(약 50입)
(562)602-6567
South Gate, CA

S.Y. Shipping
김종표(법대 58입)
(592)467-5455
Artesia, CA

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미 74입)
(213)368-5705
Los Angeles, CA

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문리 57입)
(213)368-9000
Los Angeles, CA

의 료기구

MASH
심상은(상 54입)
(213)487-5695
Los Angeles, CA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 70입)
(201)863-5160
Secacus, NJ

의 료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광(상 61입)
(201)440-8500
Moonachie, NJ

KS E biz
장세원(농 69입)
(201)722-4796
River Vale, NJ

인터넷 서점

Aladdin USA
이형렬(문 79입)
(323)692-9888
L.A. CA

지주지 부품

Knox-Seeman Whse, Inc.
서동영(사대 60입)
(310)327-1006
Gardena, CA

진 자

Amkor Anam
정홍택(상 61입)
(214)580-1879
Philadelphia, PA

주류상

Smithtown Wines & Spirits
이지원(문리 73입)
(613)265-1121
Smithtown, NY

학 비

Kumon Educational Institute
김형덕(상 57입)
(718)358-0538
Flushing, NY

합 의실

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보건대학원 71입)
(718)353-6207
Flushing, NY

방 문

브롱스 약국/시호 한의원
박경률(약대 63입)
(718)733-1399
Bronx, NY

장 장

Revicci(레비치)
신정택(약대 52입·회장품, 약품개발)
(973)994-1421
Short Hill, NJ

화 진

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음 65입)
(800)2525-way
New York, NY

Seward Florist
김수향(간호 72입)
(626)287-6161
San Gabriel, CA

새 회계년도입니다. 응답 꼭 보내주세요.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려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1. 7. 1 ~ 2002.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봉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address : _____
5. New home adress : _____
6. New home Tel. No. _____
7. 직장이름 : _____
8. 직장주소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
10. 사업 종류 (다음 해당되는 항목 또는 복수항목에 서클하여 주십시오.)

가정주부, 가정복지 자문, 간호원, 감정사, 경영간부, 경찰, 수사관, 사설탐정, 공무원, 공인회계사, 군인, 금융자문, 은행원, 기업인, 대학교수, 학교 선생님, 학원강사, 디자이너, 미술가, 서예가, 음악가, 연예인, 작가, 기타 예술인, 검사, 판사, 변호사, 법률보조, 법의학, 보험, 부동산 중개사, 실험실요원, 언론인, 엔지니어, 연구원, 요리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의료보조, 은퇴, 장의사, 종교인, 투자자문, 재정자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타 컴퓨터 관련업, 통관사, 체육인, 학생, 건설 건축 관련업, 국제무역, 농업, 수산업, 제조, 통신업,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광고업, 여행업, 인쇄업, 운송업, 기타 서비스 소매, 기타 직업.

11. 위의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취급하시는 분야 또는 전문분야를 간단하게 아래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의사의 경우) "정신과" : (변호사의 경우) "가정법" : (교수의 경우) "물리학" : (언론인의 경우) "일간신문기자" : (도매업) "의류" 등등

12.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5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재원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더욱 재고하여 나가겠습니다.

본인은 2001. 7. 1 ~ 2002. 6. 30 구독료 \$5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No. () 수표 보내실 곳 : SNUAAUSA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1 2001. 7. 1. ~ 2002. 6. 30 회계년도 동창회 회보 구독료 \$50.00을 납부합니다. ()

2 **미주 관악후원회 3차년도 후원금 납입서**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3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매년 불입 후원이사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 후원금은 세금 보고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50 이상만)

3 **1백만 달러 기금 납입서**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백만달러 기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총액(금액명기 \$)
 ①일시불 ()
 ②3년 분할 납입 ()
 (\$)씩 ()회 분납

▷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미 총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Check Payable to : **SNUAAUSA**(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aa.org

※ 수표에 Payable to 'SNUAA in the USA' 그리고 '2001년 구독료' 라고 명기바랍니다.